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①沖縄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琉球と朝鮮半島

내가 처음 오키나와를 찾아간 것은 학생시절이다. 그 때 산호초의 너무도 아름다운 색깔에 압도되었다. 이 번에는 휴가^①를 내서 추억의 장소인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세계^②에서도 손 꼽힐 정도로 산호초가 아름답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오키나와이지만 뜻밖에 한국과의 공통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류큐문화 500 년의 역사^③가 살아 숨쉬는 수리(首里)성을 방문했다.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융합시키면서 그 독특한 문화를 살려온 류큐 왕국의 상징인 수리성은 일본본토의 성과 달리 수직^④으로 세워진 돌담, 그리고 경복궁의 근정전을 연상시키는 건축물이 인상적이었다. 임금^⑤의 상징인 용의 손가락도 한국과 같은 4 개이며, 한국이 “동방 예의지국^⑥”이라면 류큐왕국은 “수례지방(守禮之邦)”이었고, 양국 모두 사대교린(事大交隣)주의를 기초로 중국으로부터 책봉(冊封)을 받아서 “연행사(燕行使)”같은 사절을 파견하기도 했고, 쇄국정책을 실시했던 시대에서도 세계^⑧에 눈을 돌린 류큐왕국은 중일간의 중요한 가교로서 큰 역할을 맡았다.

일반서민들의 생활상도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사람^⑨들은 털털한 성격이며 소싸움이나 줄다리기와 같은 전통놀이, 계나 품앗이, 두레같은 상호부조의 습관 등 일본본토에서는 사라졌지만 한국의 농촌에는 아직 남아있는 풍습이 있다. 또 오키나와에는 한국의 “한식”에 해당하는 벌초의 풍습인 “시미(清明)”도 있고 4월 초순에 성묘를 한다. 튀지 않는 색채에 익숙한 “육지 사람^⑫”들에게는 마치 색동저고리와도 같은 원색으로 염색한 류큐 기모노의 색채감각은 “문화적 충격”일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한국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느끼질지 모른다. 또 전통음악이 들려오면 어깨춤이 저절로 시작된다. 본토와 한국은 아주 가깝지만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가 오히려 “한국적”으로 보이는 사실은 아주 흥미롭다.

リゾートホテル

설레는^① 마음으로 휴양지의 호텔 로비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얕은^② 바다에 펼쳐진 산호초가 한눈에 들어왔다. 천장까지 흰히 뚫린 개방형으로 설계된 호텔^③ 안으로 햇빛이 내리 비추고, 산들산들 부는 바닷바람이 매우 상쾌했다. 이^④ 호텔은 동중국해를 향해 뾰족하게 뺀 곳에 위치한 특급리조트호텔로, 2000 년에 개최된 세계정상회담의 무대가 되었다. 잉꼬와 앵무새가 지저귀고, 실내분수가 포물선을 그리는 테라스에서 자몽주스를 마시면서 체크인^⑤을 마쳤다. 객실에 준비된 가운을 걸치고 발길 달는대로 비치로^⑥ 나서니, 환성을 지르며 튜브를 타거나 뗏목을 즐기는 사람, 피부를 가무잡잡하게 태우고 싶어서 선크림을 바르고 한가롭게 해변에서 얌드려 누운 사람, 커플룩 하와이언셔츠를 입고 스킨십하는 젊은이 등, 모두들 제각기 즐기고 있다.

바닷가에서 해엄치고^⑦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맥주병”^⑧인 필자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평소의 스트레스^⑨를 풀기 위해 한의사의 경락맛사지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곳의 끝부분에^⑩ 고즈넉하게 위치한 코티지를 추천한다. 바다를 향해 활짝 개방된 실내에서^⑪ 파도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쐬고 수평선에 저물어가는 석양과 레드와인과도 같은 저녁 노을을 만끽해 보자. 질릴^⑫ 때까지 경치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竹富島

나하시에서 비행기로 약 1 시간 거리에 다케토미섬이 있다. 이^① 외딴섬은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는 미군기지투성이인 오키나와본도와 달리, 점점 사라져가는 오키나와의 옛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어, 찾는 이들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 여기에는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콘도도 없으며, 검은색 물소가 사탕수수 밭 곁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산호석 돌담에 둘러싸인 빨간 기와집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옛날에는 도둑이 없었을 정도로 안전하여, 문단속도 하지 않았다.그러한 매력에 이끌려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회를 잠시라도 떠나고 싶은 도시인들이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여가를 즐기고 있다.

여기는 호텔보다 민박이 많고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이투숙자가 많다. 필자가 목은 민박은 아주머니가 꾸려나가고 있는데,투숙하자 “시장하시죠!”라고 웃으면서 썩이 들어 있는 영양밥과 수세미 볶음 등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오키나와 향토요리를 만들어 주셨다. 아주머니가 손수 만든 요리가 너무 맛있어 덥석덥석 깨끗이 먹어버렸다.

식사를 했을 때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이 갑자기 퍼붓던 소나기는 이내 그쳤다.밤에 마당에서 올려다 보는 밤하늘에 가득한 별은 대도시와는 천양지차이다. 민박집의 아저씨가 흥이 나서 고향자랑인 오키나와 민요를 노래하기 시작하자, 부인도 즉흥적으로 전통 현악기를 연주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드카와 같은 독한 토속술을 몰로 희석시킨 “미즈와리”와 아이스박스에 가득한 맥주 “오리온”을 마시면서 황홀한 남국의 밤은 깊어간다.

米軍基地問題

오키나와는 1945 년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 일본군은 사면초가에 빠져, 향복했다. 미군은 철거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미군기지로 만들었다.

그 후 27 년동안 미군에 점령되어,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 곳이었다. 사실상의 종속관계가 성립되어 미군들이 거리낌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훈련장에서는 탄환이 표적을 벗어나 날아가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기지 밖에서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병사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오키나와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대가로 일본정부는 “안전보장”이라는 명목하에
 미군을 이용해 왔다. 정부간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일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의지와 반대로 오키나와는 2 차대전 이후의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조국 복귀” 운동의 기운이 높아져
복귀를 쟁취한 1972 년이후에도 오키나와 문제는 그야말로 “산넘어 산”이었다.
 이러한 눈엣 가시와도 같은 미군기지는 줄곧 오키나와섬의 중심부분을 점령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정부의 국방정책의 뒷수습을 해야만 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주마간산식의 여행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나, 30 분정도만
자동차로 달리면 싫건 좋건 그 엄연한 사실이 드러나, 모처럼의 즐거운 기분이
깨진다.

“좌향좌! 열중, 쉬어!”라는 구령에서부터 항공모함을 이용한 공중폭격 훈련까지
엄격한 훈련을 받는 일병이나 상병들은 월급날이 되면 기지밖의 유흥가로 몰려나가
기분을 낸다. 넓디 넓은 미군기지 주변의 손바닥만한 토지에서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미군을 상대로 술집을 경영하는 오키나와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군기지주변에서는 꼬부랑말의 간판이 눈에 띄고, 핫도그나 감자튀김, 포테이토
칩, 피클등, 미국과 똑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사이즈도 “스몰”을 시키면
일본의 “미디엄”, “라지”를 주문하면 일본에는 없을 법한 큰 사이즈가 나온다. 돈이
있으면 쓰기 마련일 것이다. 술집 안에 들어가니 요란한 록음악이 들리고,
입영한지 얼마 안된 초병이나 스포츠머리의 매부리코가 노름을 하거나 탁한
목소리로 큰소리를 지르는 곱슬머리들이 자랑스럽게 알통이나 문신을 보여주면서
팔씨름을 한다. 또 전방에서 돌아온 국방색 군복을 입는 노란 머리 여군이 다트를

하거나, 몇몇 사람은 울다가는 웃고 웃다가는 울고 있다. 술취한 주정뱅이²⁰가 차를 운전하다가 뺑소니사고를 일으켜 많은 비난을 받지만, 일본의 경찰차도 단속오토바이도 미군기지내로 들어가서 용의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인지 “110”²¹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지구대가 순찰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또 부모²² 잘 못 만난 죄로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불쌍한 혼혈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²³ 방약무인한 미군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沖繩の唄

일본 각지에서는 그 지방특유의 민요가 사랑받고 있지만, 오키나와 사람들 만큼 민요를 팝송으로 승화시켜, 전통과 유행의 구별없이 즐기는 사람들은 없다.

햇빛이 짹짹 내리쬐는 여름 날, 진땀을 뚝뚝 흘리면서 오키나와의 찜통더위를 이겨낼 장사¹가 있다면 바로 “에이사”참가자들이다. 오키나와의 민속놀이인 에이사는 모든² 연령대가 참가하여 북과 현악기 “산신 (三線)”의 울동에 맞추어 춤을 추는 축제³이다. 행사장에 구름과 같은 관중이 몰려와 춤을 추는데 “서당 개⁴ 삼 년이면 풍월 읊는다”더니, 어릴 때부터 귀에 익은 민요가 들려오면 들썹들썹 어깨춤을 추던 오키나와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칼퇴근”해서 친구들과 에이사를 연습하게 된다. 어르신들조차 에이사를 보면 “얼썩 얼썩!”⁶라고 흥이 나서 춤을 춘다. 에이사에는 이렇게 중독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다.⁷

1970년대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로 귀속되었지만 현지인들은 미군 기지문제에 대해 머리⁸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저항 가요⁹가 생겼다. 그 대표적인 가수가 기나 쇼키치 (喜納昌吉)이다. 기나의 아버지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민요 가수였고 아들인 기나도 가수¹⁰로서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기나의 소년 시대에 끔직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웃에 전쟁으로 인해 정신이상을 앓고 있던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자신의 딸을 끔찍하게 살해했다. 그 이후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게 되어 인생이 파멸되었다. 기나는 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 충격을 받고 인생을 포기한 아저씨를 위해 그 비극을 담은 노래를 만들었다. 이것이 기나의 데뷔곡 “하이사이 오지상(안녕!아저씨)”이다. 비참한 현실을 배경으로 한 그 노래에는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인 재산피해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후의 정신면이나 가족의 생활까지 파괴한 전쟁을 계속하면 안된다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반면 일본 본토의 청취자들은 평화의 메시지나 저항 정신보다도 기나의 몸 안에 배어 있는 오키나와의 리듬, 그리고 주체하지 못하고 넘치는 끼에 주목했고, 라디오 방송을 타자 열풍이 불었다. 오키나와의 독보적인 가수, 기나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그의 콘서트는 극성팬들로 행사장이 꼼짝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 90 년대에 들어서 부터 단순한 집안 내력인 창법이 아니라 노래의 힘으로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싶다는 더 큰 차원에서 최대의 히트곡 “꽃”을 발표한 결과, 일본국내 뿐만이 아니라 중국어로 리메이크되기도 하고, 중화권에서는 90 년대 일본을 대표할 만한 노래가 되었다.

90 년대 이후, 기나 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출신의 가수들이 사랑받게 되었다. 타고난 목청으로 감정을 넣어 부르는 독특한 창법으로 인기를 얻은 나츠카와 리미, 물질적인 풍부함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지닐 것을 진심어린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는 네네즈등, 출중한 재능과 메시지를 가진 가수들이 맹활약하게 되었다.

필자도 대학생 시절에 그 노래들에 감명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쳐 눈물을 흘렸다. 40 대에 들어와 고음 부분에서 음정이 어긋나기도 했지만 날마다 산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②九州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有田

부산에서 바라보면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떠 있는 섬인 큐슈는 고대로부터 토용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도자기 생산지도 산재해 있다. 그 중 하나인 사가현 아리타마을은 자기를 생산했다. 16 세기, 유럽과 아시아간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표면이 매끄러운 명나라 자기가 바다를 건너가 유럽의 귀족들을 매료시켰다. 일본에서는 당시 자기라고 하면 중국이나 조선에서 수입되는 것 뿐이었다. 그후 17 세기 초에 들어와 “임진왜란” 이 일어났고, 이 때 일본으로 끌려온 한국의 도공들에 의해 도자기 제작법이 도입되었다. 말하자면 아리타 자기의 부모는 한국, 스승은 중국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리타 도자기의 창시자로 기구한 삶을 산 이삼평(李參平)은 고향인 공주에서 아리타에 끌려 오자 타향살이를 원망하고 한탄하기 보다는 궁리하고 연구를 한 결과 자기의 원료인 자석이 나오는 광산을 발견했다.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이삼평의 지혜와 기술이 성과를 일구어, 아리타는 일본 자기의 발상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삼평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도산(陶山)신사가 세워졌다. 보통 신사 입구에는 신의 영역과 인간세계를 구분하기 위한 홍살문과 같은 문이 있는데, 도산신사의 문은 자기로 만든 것이었다. 부척과 등롱, 심지어 한 쌍의 해태상에 이르기까지 자기로 만들어져 있다.

필자가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험한 산들이 마을 삼면을 둘러 막고 그 골짜기를 자기의 원료를 실은 덤프트럭이 오가고 있었다. 그 곳은 겨울인 탓에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석회 칠을 한 창고나 공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예로부터 왕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을 건너

보면 우산¹⁴꽃이, 문패, 우편함에 이르기까지 자기로 만든 물건 일색이다. 산책
 도중에 공방에 들어가 보니, 경사를 이용하여 만든 가마에서 견습공이 장작불을
 지피고 있었다.

귀로길에 나뭇가지에 무언가가 앉아 있나 싶더니, 까치였다.한반도에서는 길조로
 사랑받는 까치이지만, 일본에서는 사가현에서만 서식하는 사실을 보더라도, 도자기
 뿐만이 아니라, 새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長崎

나가사키시는 가늘고 긴 나가사키만과 이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사이에 시가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지형은 부산²과 닮았다. 17 세기에 무역항으로 개항된 이래
 이국적인 정서가 흐르는 나가사키는 한 번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게 되는
 도시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무역항으로서 나가사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570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르투갈에서 총포⁴와 천주교가 잇따라 일본에 전래된 것을 계기로, 당시의 영주는
 시대를 앞서가는 기항지로서 나가사키를 만들었다. 영주⁵도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영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또 토지를 교황께
 바치기도 했다. 17 세에 들어와 천주교 금지령이 내려져, 천주교⁶도들은 혹독하게
 고문을 받는 등 조선시대 “신유박해”과도 같이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개종하거나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카오나 필리핀으로 몸을 피신했다. 표면적으로
 불교도가 된 사람들도 관음보살⁷ 등을 모시는 것을 방패삼아 몰래 천주교를 믿기도
 했다. 천주교가 허용된 명치시대부터 이 순교자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각지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17 세기부터 200 여년에 걸쳐 에도막부가 외국과의 교역을 엄격히 관리한
 쇄국정책 당시에도 나가사키는 외국에서 도착한 짐을 하역하던 유일한 항구로서
 각지에서 나가사키로 서양의학을 배우러 오는 학자들도 많았고, 서로의 외국어나

의학의 지식을 주고 받으며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해부도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의학에 공헌한 학자도 탄생했다. 네덜란드와의 무역은 인공섬인 데지마(出島)에서 이루어졌는데, 격리되어 조성된 이 인공섬에 그 옛날 네덜란드 무역상들이 살았던 자취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사적으로서 복원되어 있다.

19세기 후반 쇄국정책이 풀린 후, 서양사람들의 거류지가 되었던 당시의 양옥과 산책길이 정비된 나가사키는 마치 서양의 어느 마을 같은 분위기이다. 바다를 오가는 배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 성당에서 수녀들의 찬송가가 들려와, 안을 들여다 보니 참회실에서 신자가 나온다. 이러한 장소는 일본에서는 많지 않다.

나가사키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서양인 뿐만 아니라 화교들이 더 많고 그 들이 만든 중화요리도 유명하다. 중화요리라면 단시간에 기름에 바삭 튀겨낸 요리나 고추를 많이 쓰기 때문인지 입이 얼얼할 정도로 매콤한 이미지도 있지만 나가사키를 대표할 만한 중화요리로서 망설임없이 추천할 만한 것은 짬뽕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에는 라면이 많지만 여기서는 “철가방”에 들어 있는 것이라면 먼저 짬뽕을 상상할 정도이며, 또 중국집에서도 형형색색의 중화요리보다 짬뽕을 후루룩 먹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본냄새”가 전혀 안 나는 차이나타운을 방문했다. 모처럼 이곳에 왔기 때문에 짬뽕을 주문하니, 하얀 국수가 나왔다. 식욕을 돋구는 그 냄새의 정체를 궁궁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본고장의 짬뽕이었다. 요리사와 화교 손님들이 서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짬뽕”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신기했다.

別府温泉

오이타 (大分) 현 벳푸온천은 원천이 2800 곳 이상 있고, 그 용출량은 세계최대량이다. 이 유황냄새가 가득한 온천마을에는 진흙탕, 찜탕 등 온천의

종류도 다양하다. 온천물의 용출량이 세계제일이며, 한국인도 “효도여행”으로 많이 오는 곳이다.

또 몇주일동안 체재하면서 온천요법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카타에서 온 야마다 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물을 끼얹고 욕조에 들어가 “아, 개운하다!”라고 하며 야마다씨는 말을 계속했다. “저는 오십견을 앓았는데 여기에 온지 열흘이 돼요. 친구가 “속는 셈 치고 여기에서 하루에 그저 너댓 번 입욕해 보라”고 했는데, 정말 낫았어요. 물이 아주 좋아서 피부도 팽팽해지고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입니다. 차라리 이곳으로 이사올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야마다씨는 필자의 등을 밀어주고, 또 같이 폭포수를 맞으면서 온천의 효능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벳푸 시민들은 날마다 발바닥에서 목까지 온천물에 담그기 때문에 까칠한 피부도 매끈매끈해 지기 때문에 여성들도 피부관리할 필요도 없고, 또 베인 상처가 나도 반창고가 필요없다고 한다.

벳푸에서는 온천요법 말고도 “지옥순회”라는 명소도 인기가 있다. 그것은 펼펼 끓는 온천물과 황산, 진흙, 간헐천 등 여러가지 온천의 기이한 모습을 지옥에 비유한 것이다. 황산철로 파랗게 물들은 곳, 김이 뭉게뭉게 피어 오르는 가운데 뜨거운 진흙이 보글보글 거품을 내뿜는 곳 등 지구에너지의 웅장함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벳푸 시가지를 걷다 보면 관광객과는 달리 대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 주변에는 대중탕 역할을 하는 온천시설이 얼마든지 있고 비싸지 않은 요금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길가에는 무료로 족탕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 욕탕물에 뜨는 하얀 침전물이 특히 몸에 좋다고 한다.

이 지역의 맛있는 음식으로 가자미가 유명한데, 이 가자미는 두툼한 살과 쫄깃한 맛이 최고이다. 산해진미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는 고장술을 즐길 수 있는 양조장 겸 저장고도 있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인 마을이다.

太宰府

헤이안시대의 정치가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를 모시는 다자이후 천만궁(天滿宮) 신사는 후쿠오카현의 대표적인 신사이다. 9세기말기 당시 후지와라 가문이 권력을 휘둘렀던 시대에 박식하고 선견지명이 있었던 미치자네는 학문으로 관직에 올라 고급관료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권력자로서의 권세를 계속 누리고 싶었던 후지와라 가문에게는 걸림돌과 같았기 때문에, 마침내 후지와라는 미치자네가 모반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천황이 소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그 결과 미치자네는 누명을 쓰고 실각했다.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 그는 도읍인 교토를 떠나기 전에 마당의 매화꽃을 보면서 “단가” 즉 시조와도 같은 짧은 시를 지었다. 그 후 다자이후에 좌천되어 막막한 세월만 보내다가 한풀이도 못한 채 불우한 생을 마쳤는데,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관련자들이 돌림병으로 잇따라 죽었다. 그것은 원한을 품고 죽은 미치자네의 무시무시한 저주라고 하였고, 또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냈다. 이를 꺼림칙하고 두렵게 여긴 천황이 미치자네를 “하늘의 신”으로 모셨다. 이것이 천만궁신사의 기원이다.

박식했던 미치자네는 현재 “학문의 신”으로 수험생들의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 있어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경내에는 합격을 기원하는 수험생들이 희망하는 학교 이름과 자기 이름을 쓴 오각형의 나뭇판이 수없이 걸려 있다. 또 한국에는 애인끼리 자물쇠에 영원한 사랑을 기약하는 메시지를 새겨 철책에 채우거나, 사찰에서는 기와에 기원하는 바를 쓰고 봉납하는 풍습이 있지만, 일본의 이 “에마”라는 나뭇판도 한국의 자물쇠나 기와에 해당한다. 미치자네는 기원하러 온 수험생들을 모두 합격시켜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만궁 신사에는

“^⑩예고 합격”, “수능 대박!”, “어느 어느 대학교 합격”, “^⑪사시 합격”, “과학탐사 90 점, 사탐 95 점 이상” 등 각종 시험의 합격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쓰여져 있다. ^⑫한창 막바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여기에 와서 부적을 받아 시험장에 지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⑬참배길 양쪽에 즐비하게 늘어선 가게에서 풍겨나는 뜨끈뜨끈한 떡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한다. 특히 겨울에는 “^⑭입시철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⑮신사에서 앞드리면 코 달을 데에 있는 규슈국립박물관은 국제^⑯교류의 교차로로서의 역할을 맡아온 규슈지역의 문화교류사를 전시한다는 컨셉을 기초로 한 박물관으로 호기심을 발동시켜 준다. 고대중국에 파견된 사절이나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 국제도시 나가사키 등 뿐만이 아니라, 13 세기에 천군^⑰만마를 동원한 몽골/고려군이나 임진왜란 등 전쟁의 역사도 소개되어 있다.

国東半島

오이타 현 구니사키(國東)반도는 중앙^①에 우뚝 솟은 후타고산(兩子山)에서 갈라진 수많은 산등성이와 골짜기가 방사형을 이루며 겹겹이 펼쳐진다. 길이 좁은 탓에 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도착한 골짜기^②에는 계단식 논과 옛모습을 간직한 농가가 보인다. 빈^③ 광통, 페트병 한 개도 볼 수 없는 깨끗한 길가에는 머위나 미나리, 고비 등이 자생하고 있다. 현재^④는 인구과소지역이지만 절정기였던 12 세기경에는 2000 여명의 승려가 수행을 쌓았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불교유적이 많고 큐슈^⑤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전체를 노송나무로 지었다고 하는 부귀사(富貴寺) 도 그 하나이다.

또 구마노(熊野)석굴도 그 중의 하나이다. 가파른 암벽에 새겨져 있는 대일여래들은 희로애락이 뚜렷하지 않고 세련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딘지 대륙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은 한반도문화의 영향일지도 모른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③中四国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松山

시코쿠섬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쓰야마시는 “하이쿠(俳句)”라는 17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를 누구나 창작할 수 있도록 19 세기 말에 부활시킨 작가,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의 고향이다. 짧은 구절의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하이쿠를 근대화시킨 그를 자랑스럽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곳곳에 시비나, 난치병^②으로 별세한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자료관, 그리고 옛집 등이 있다.

시내에는 마사오카의 친구인 문학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에 관한 사물도 적지 않다. 그는 마쓰야마에 중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해서 그 동안의 체험을 조금은 익살스럽게 그린 자전적 색채가 짙은 소설 “붓짱(도련님)”을 발표했다. 이것은 소세키의 작품으로서는 예외적으로 딱딱하지 않은 내용의 작품이다. 주인공은 세상일에 어둡고 성미가 급하고 어딘가 덜렁거리는 면이 있는 교사이다. 그 밖에도 청개구리인 붓짱을 맹목적으로 아끼는 입주가정부, 붓짱의 편을 드는 인물로는 배짱이 좋고 어찌됐건 부딪쳐보자는 수학교사, 걸치레만 중요시하고 소심하며 세상인심에 신경쓰는 교장,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부하직원의 애인과 사귀려고 하는 교감, 교감과 함께 기생집에서 놀던 것이 발각되자,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다가 결국 꼬리가 밝힌 미술교사 등, 모두 개성적이다. 결국 붓짱은 사직서를 내고 동경으로 돌아가지만 마쓰야마에서는 “붓짱”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기념품으로 가장 잘 팔리는 과자도 “붓짱 경단”이라는 명칭이다.

마쓰야마는 순례길로도 알려져 있다. 약 1400km 에 이르는 이 길은, 시코쿠의 88 개의 신령스러운 사찰을 시계방향으로 일주하여 참배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순례길이다. 마쓰야마시내에도 백의¹³에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손에 든
순례자들이 절에서 불공을 드린 후 각 사찰에 설치된 인주로 도장을 찍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마쓰야마는 일본인들에게 언제나 편안함¹⁴을 안겨 주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취어린 옛것들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요즘시대에
드물게 보는 일이다.

出雲

이즈모 (出雲) 는 일본신화의 보고이다. 천지개벽¹ 이전부터 일본신화의 기초가
 된 8 세기의 역사서적 “고사기 (古事記)”의 무대는 이즈모가 약 1/3 를 차지한다.
 여기서 발걸음²을 옮길 때마다 마치 그리스에 필적할 정도의 신들의 나라를 발견할
것이다.

이즈모를 대표할 만한 신사가 이즈모 대신사이다. 어느 화창한 날³ 이 신사를
 찾아갔다.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작은 마을의 신사이기 때문에 참배자의 대부분은
 고령자일 줄 알았는데, 신기할 정도로 2,30 대의 젊은 여성들로 미어터질 정도로
복적거렸다. 실은 여기는 “천생연분⁵을 맺어주는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⁶
효험을 보기 위해 생전 남자운이 없다고 여기는 여성들부터 재미삼아 찾아온
여성들까지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조사해 보니⁷ 원래는 여기에 모셔져 있는 신인 오쿠니누시 (大國主) 는 연분을
 맺어주는 신이 아니고 고대 이즈모 왕국을 다스리던 신이었다. 하지만 하늘 세계에
 사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天照) 가 사절을 파견하여 이즈모 땅을 양도하도록
 교섭한 결과, 하늘의 궁궐과 같은 높이 (무려 48 미터!)의 궁궐을 건설하고, 또
 신들의 세계를 다스릴 권리를 오쿠니누시에게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이즈모 땅을
 아마테라스에 바쳤다고 한다. “고사기”의 이 서술에 관에서는 아마테라스⁹한테
멀리기만한 오쿠니누시가 왕으로서 너무 쪼대없다든지 48 미터 높이의 건물은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하다든지, 이즈모에 대한 침략을 자화자찬하고 있다든지, 굳이 말하자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00-2001 년에 신전 부지의 지하에서 13 세기에 세워진 굽은 기둥 세 개가 발굴되어, 고고학적으로 보더라도 높이 48 미터의 고층건축이 존재했다고 보인다. 아니, 적어도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한 동안 잊혀져 있던 고층신전과 이즈모왕국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2007 년 신사 옆에 고대이즈모박물관이 개관 되었다.

더 깊이 신화의 세계를 체험하고 싶다면 기스키 (木次) 선을 탈 것을 추천한다. 필자는 기차를 타기 전에 기스키 역 매점에서 이 마을의 명물 기스키 우유를 마셨다. 들판에서 소를 몰면서 짠 우유는 여기서 태어난 필자도 어렸을 때 마셨었다. 도중에 지나는 간이역의 역사는 신사모양이며, 그 안에는 새끼를 꼬아 만든 금줄까지 장식되어 있다. 이 지역의 특징인 지붕 위에 설치된 통나무를 엑스자 형으로 만든 장식이 있는 신사건축을 볼 수 있어, 역인지 신사인지 구분이 못 갈 정도이다. 또 전 노선에 걸쳐 역의 별명으로 신들의 이름이 지어져 있기도 한다.

창측 좌석에 앉으면 휘파람새 소리가 들려와 마음이 편안해 진다. 필자는 한 량짜리 하행열차를 타고, 역무원도 없는 역을 몇군데 통과했는데 곳곳에서 디카나 SLR, 캠코더 등을 손에 든 남성들을 보았다. 일본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시골의 열차를 촬영하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많다고 한다.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지 열차는 노약자석이 많고, 휠체어나 목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설계로 되어 있다. 콩나물 시루같은 대도시의 전철과 달리 수더분하고 말수가 적은 노인과 학생들을 신고 덜커덩 소리를 내며 터널을 빠져나와 마을을 달린다.

벗꽃이 눈보라처럼 흩어져 다 떨어진 초여름이면 눈은 녹색으로 뒤덮이고, 붓꽃 아래에서 청개구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후 갑자기 열차는 당장이라도

멈출듯이 서행으로 운전하기 시작했다. 밖을 보니 신화 속에 나오는 머리 8 개의 괴물 “오로치”를 이미지해서 만든 나선형의 다리가 보이고, 그 경치를 즐기도록 속도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리 아래의 계곡에서 올챙이와 산천어, 은어 등이 씩씩 헤엄치고 강 하류의 양 기슭에는 유채꽃의 노란 융단이 깔려있다. 또 상류에는 희귀한 양서류인 도롱뇽도 서식한다. 계곡은 진한 녹색으로 물들어 있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신비롭기까지 했다. 여기에 와서 비로소 삼라만상을 신으로 여겨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신으로 모시는 일본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명치시대 이즈모에서 거주하고 일본문화를 세계각국으로 영문으로 소개한 서양인 칼럼니스트 겸 언론인 고이즈미 야쿠모 (小泉八雲)가 이즈모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푹푹한 마음으로 묘사한 것도 생활 속에 신들의 존재가 없어서는 안될 이즈모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萩

에도막부가 쇠퇴한 19세기, 미국 군함이 침입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센 문호개방의 압력 속에서 야마구치현 앞바다를 지나가는 열강의 함대들이 틈만 나면 침략하려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조슈(長州)의 무사들은 몸을 던져 그들을 공격했다. 그 결과 그들의 포대는 순식간에 열강에게 점령당했고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그들은 근대식 전쟁으로는 일본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외국과의 전쟁을 경험한 그들을 혁명적인 인재로서 배출한 서당이 송하촌숙(松下村塾)이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지식해서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로, 청빈한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창백한 얼굴을 한 선비가 아니라 짧지만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 “산림유생”과도 같이 벼슬없는 야인 쇼인은 “향교”에 해당하는 관립학교 “번교(藩校)”와 달리 시대를 짚어질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이 서당에서 가르쳤다. 50 m² 정도에 불과한 목조단층집의 작은 서당이었지만 이곳에서 근대일본을 탄생시키기 위해 활약한 수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하지만 막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숙청당했다. 또 이 서당에는 쇼인의 “살신성인”의 장렬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당이 조용히 자리잡고 있다.

하기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긴 역사를 지닌 도자기가 있다. 17세기 처음에 가마를 댄 인물은 한국인 형제이며, 지금도 도자기 분야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기도자기는 작은 금이 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하다 보면 수분과 차의 양금이 틈 사이에 스며들어 색이 변한다. 쓰면 쓸 수록 운치가 나는 것이 하기도자기의 특징이다. 필자도 마음에 든 것이 많았지만 20만엔을 훌쩍 넘는 고가의 도자기가, 많아 5000엔 정도의 적당한 가격의 찻잔을 샀는데도, 그냥 에어캡 (뽁뽁이) 으로 싸는 게 아니고 정성스레 나무상자에까지 넣어 주었다.

지붕없는 박물관과도 같은 하기에서는 어디에나 있는 옛 민가의 처마밑에서도 혈기왕성한 시절의 젊은이들이 활약하는 장면이 보일 듯한 착각이 든다.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하기를 찾는 참 묘미 라고 말한다.

広島

일본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읽은 적이 있는 만화가 있다. 1940년대의 히로시마를 무대로 그린 “맨발의 겐”이다. 반핵, 반전만화로 알려진 이 작품은 원자폭탄이 터져서 초토화된 히로시마에서 살아남은 “국민학생” 겐(元)과 주변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만화로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작자 나카자와 케이지(中澤啓治)씨의 소년시대를 그린 자 서전이기도 한 이

작품은 핵무기^③를 근절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과 동시에 원자폭탄의 기억이 점점
바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 원폭투하직후의 차마^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참상때문에 진저리를 치며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이다.
사람들마다 핏자국이 묻은 셔츠를 입고 길가의 레일은 흐물흐물하게 구부러질
정도로 뜨겁고 온마을에서는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 불이 옮겨 붙어 주인공
가족 집도 불타, 아버지와 동생들도 죽었다. 간신히^⑧ 살아난 사람들도 붕대로 칭칭
두른 상태로 방치되거나, 참담한 상황에 놓여, 정신을 잃고 공허한 표정을 짓거나,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살아가는 길은 가시밭길^⑨이었다. 나이 어린 남자아이가 더
어린 여동생을 돌보는 장면도 안쓰러웠지만, 기아에 허덕이다가 영양실조의
증세가 악화되어 여동생이 죽은 사실에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 같다. 마지막에는
너무나^⑪ 안쓰러워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는 독자도 적지 않았다.

또 피폭후유증^⑫은 훗날까지 장기간 계속 되었고, 어머니가 피폭으로 인한
종양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위자료도 못받고, 또 형편이 어려워 고교 진학도 포기한
채 생업에 나서야 했다. 또 어떤 여성은 원폭피해자이라는 편견 때문에 괴롭힘^⑬
당하고 혼담이 성사되지 못하고, 앞날이 캄캄한 생활 속에서 눈물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 가슴이 쓰러 견딜 수 없다.

그 작품에서는 영장을 받아^⑭ 한국에서 히로시마로 끌려 온 “박 씨”라는 남성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조선인임이^⑮ 탄로나 치료도 못받은 채 죽어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본인도 많았다. 또 혼란스러운
히로시마시내에서 군중^⑯에게 붙잡혀 학살당한 미군포로도 등장하여, 그 끔찍한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길을 돌린다.

일본에서는 원폭투하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한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류가 인류에 대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본인의 원폭에 대한 견해에는 반미감정보다는 ^⑰반핵, 반전감정이 앞서는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는 단순한 평화주의교육 이상의 원가가 있다. 예를 들면 만화책 표지에는 겐이 보리를 쥐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리가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전쟁에 반대했기 때문에 ^⑱“겁쟁이”라고 비웃음을 받은 겐의 아버지는 “보리는 추운 겨울에 ^⑲삭을 띄워 무수히 밟혀도 곳곳이 살아남는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깨닫기 원할 뿐만 아니라 보리처럼 밟혀도 밟혀도 곳곳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이 만화의 메시지이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④関西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日本初の都、飛鳥

나라현 아스카(明日香)마을은 6-7 세기 고대일본의 도읍이었다. 마을 전역에 유적이 많고,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건립된 비조사(飛鳥寺)와 백제 출신의 장인이 만든 가장 오래 된 불상도 여기에 있다. 593 년 성덕태자가 고모인 추고천황을 대신하여 정권을 잡아 태자가 살던 법륭사에서 아스카까지 도로를 냈는데, 그가 다녔다는 도로는 아직까지도“태자도”라고 불리우고 있다. 인덕이 있던 태자가 세상을 떠나자 세자인 야마시로(山背)는 호족인 소가(蘇我)가문에게 학살을 당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이 사건 이후, 소가 가문이 천황을 대신해 정사를 보았다. 645 년 태자인 나카노오에(中大兄)는 권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황의 “복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스카의 궁궐에서 단지 몇 명의 부하만을 거느리고 소가 가문을 암살했다. 현재 아스카에는 큰 고인돌과 같이 생긴 석무대(石舞台) 고분이 있는데 그것도 소가 가문의 고분으로 여겨진다. 권토중래를 달성한 나카노오에는 호족들과의 이해관계를 끊고 시가현 오츠(大津)로 천도해서 천황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한 대화개신(大化改新)을 실시했다.

奈良

옛 도읍 나라(奈良)시는 명승고적이 많아 교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광지이다. 710 년에 평성경(平城京)이라고 불리워진 이 수도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長安)을 모델로 한, 바둑판 모양으로 정연하게 정비된 도시였다. 나라시에서 가장 볼만한 곳이 동대사(東大寺)이다. 거대한 사다리꼴 지붕의 대웅전과 높이

15 미터의 대불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동대사에 있는 대불상은 원래 금박을 입혔으나, 그 후 덧칠하지 않아 현재는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다. 그 밖에 당초무늬와 낙타가 그려져 있는 나전칠기 비파 등 공예품이 보존되어 있는 정창원(正倉院)도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동대사는 8세기부터 계속되어 온 이월당에서 3월에 행해지는 행사 “오미즈토리(御水取)”로도 유명하다. 밤에 등이 일제히 꺼지고 술렁거리던 경내에 범종 소리가 울리면, 타오르는 횃불이 밤하늘을 태워버리고, 이어서 불뿔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이 불공행사는 13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불에 관한 행사라면 나라시에는 “야마야키(山燒)”라는 대보름 쥐불놀이를 상기시키는 축제도 있다. 양력 1월 하순의 어느 날 해가 저물면 들로 나가 마른 풀에 일제히 불을 놓아 태운다. 이 날 쥐불을 놓는 이유는 잡초를 태움으로써 해충의 알이나 쥐를 박멸하여 풍작을 이루려는 뜻이 담겨 있다.

동대사 일대에는 한가로이 걷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 보인다. 필자는 쌀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워낸 사슴먹이를 샀는데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십수 마리의 사슴이 몰려와 그 사슴먹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 치웠다.

인접하는 지역에는 경전을 필사본으로 옮겨 적기 위해 필요한 먹을 만드는 장인 등, 절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인 나라마치가 있다. 민속촌과도 같이 오래된 가옥이 남아 있고 가옥들의 기와지붕과 미닫이문 등이 눈에 띄는데, 정면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입구의 넓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정면입구를 작게 만들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집집마다 빨간 천으로 만들어진 “미가와리자루”라는 원숭이부적을 볼 수 있다. 닥쳐울 재앙에서 구해 준다는 부적이다. 오래된 민가를 이용한 휴게소에서 뿔은 감 잎으로 싸서 발효시킨 명물의 초밥을 먹었다.

이와 같이 사찰이 많은 이유는 역대 천황들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이지만,

도경(道鏡)이라는 스님은 당시의 여제의 승은을 받아, 천황이 되도록 뒤에서 음모를 꾸몄다. 그에 위기감을 느낀 항무(桓武) 천황은 784년 교토의 나가오가로 천도했기 때문에 나라이는 그후 서서히 쇠퇴했다.

熊野

풍요로운 자연속에서 다져진 신앙의 땅인 구마노를 찾고 싶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필자는 이세신궁에서 구마노로 향했다.

구마노의 역사는 아스카보다 오래되어, 진 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파견한 중국인 서복(徐福) 일행이 탄 배가 여기에 표착해서 사람들에게 고래잡이를 하는 방법 등을 가르쳤다는 일화도 있고, 신구(新宮) 시내에는 그것을 기념한 서복공원도 있다. 또 시내에는 신화에 따르면 구마노 땅에 처음에 신들이 내려왔다는 두꺼비 모양의 바위가 있다. 힘한 오르막길로,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영험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정도이다고 들었는데 해발 120미터의 산속에 위치한 그 바위를 보기 위해 필자는 마음을 다 잡아 산을 오르기로 했다. 하지만 길 양쪽은 양치식물이 무성하게 우거져 대낮에도 어두침침하고, 살무사와 지네가 출몰할 것 같았다. 등산이라고 하기보다 암벽타기와 다름이 없어 겁이 났다.

목이 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손등이 주름살투성이인 그 고장 어르신들이 올라오면서 “나 같이 저승사자가 찾아올 날이 멀지 않은 노인네도 이렇게 경충 경충 올라가죠.”하며 뛰어올라가는데, 노인들의 건강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남이야 어쨌건 필자는 넓적다리에서 장딴지까지 아프고 뒤통치와 발부리에 굳은살이 배겼다. 바위에서는 태평양의 웅장한 경관을 바라볼수 있었는데 기대이상의 경치였다.

그 날은 바닷가의 어부가 경영하는 민숙에서 투숙했는데, 필자는 정말 먹을 복이

있는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요리가 나왔고, 통째로 구운 생선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요리와 함께 정종도 마셨는데, 마지막에 필름이 끊겨버릴 정도로 많이 마셨다.

다음 날에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나치 (那智) 폭포로 향했다. 평안시대 당시 구마노 일대는 필자와 같은 구제불능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극락정토로 여겨졌다. 가도가 정비되어 순례자들이 많이 늘어나, 12 세기에는 천황에서 몰려난 상황(上皇)들이 항상 참배했다.

가쓰우라 (勝浦) 에서 삼거리를 우회전하여 약 20 분정도에 나치폭포에 도착했다. 산길을 걷다보니 오래되어 나이테가 촘촘한 삼나무 그루터기를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두견새와 유지매미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삼나무가 뻑뻑이 들어선 원시림 속에서 이끼 낀 돌계단을 걸어갔다.

주차장에서 약 20 분 올라가, 청안도사(靑岸渡寺) 삼층탑에 도착했다. 어제 올라간 산보다 오르기 쉬워 약간 맥이 빠졌다. 부정을 씻어줄 것 같은 이 폭포를 가장 아름답게 보는 방법은 이 탑너머로 보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폭포 등 자연을 신으로 여기는 신도와 부처님을 모시는 불탑 등을 세우는 외래종교인 불교가 혼재해 있었다가 18 세기에 분리되기 전까지는 함께 숭배되는 일이 많았다.

마지막에 구마노 나치신사에 도착했다. 올해는 남자의 일생 중 재난을 당하기 쉽다고 하는 “삼재(三災)”인 42 살이기 때문에 필자도 관례에 따라 액막이 의식을 받았다. 필자는 믿음이 돈독한 순례자는 아니지만 숙원을 풀어 마음이 후련해졌다.

神戸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고베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무역도시로서 번성했지만 대도시로서는 고층빌딩이 적다.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사는

고베는 종교적으로도 다양하다. 기독교 교회는 물론, 다른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유대교 교회와 장엄한 이슬람사원, 극채색의 관제묘(關帝廟)등, 없는 종교시설이 없다. “신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성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는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고베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카페도 많아, 필자는 코베에 갈 때마다 1948년에 개정한 원두커피를 끓여 주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또 과자는 모양도 모양이려니와 맛도 기가 막힐 정도라서,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사이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밖에도 차이나타운의 중국요리로서 탕수육, 팔보채, 당면과 같은 대중요리, 고기호빵과 춘권같은 간식거리까지 여러종류가 있다.

大阪人

오사카 사람들은 동경에 대한 “대항의식”이 강하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팀으로 말하면 그라운드를 누비는 동경의 강팀 “요미우리”에 대해 오사카는 상대적으로 약한 “타이거스”의 만회를 기대하여 타이거스 용품을 장식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많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도시대의 장군, 현재는 관료가 지배하는 동경에 대해 “관료가 대수야?”라고 비꼬면서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사투리를 거침없이 쓰는 사람들은 오사카사람들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동경사람에게는 잘 난척하는 것으로 모르지만, 오사카사람들은 사실은 상인들의 수도였던 오사카를 진심으로 자랑한다. 상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먼저 고객위주의 창의력이다. 샤프펜, 컵라면, 자동 개찰구 등 뿐만이 아니라 신호등 옆에 설치된 카운트다운 미터, 공항에서 자주 보는 움직이는 보도 등, 모두 오사카 사람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발명한 것이다. 또 식문화로 말하면

오사카에서는 식사할 때 유부를 넣은 우동만으로 떼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바쁠 때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오사카사람이 고안해 낸 것이다.

“고객위주”는 바꿔 말하면 “손님이 왕”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손님인데 오사카사람들은 손님한테 농담을 자주 한다. 필자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정식 (600 엔)을 시켜 먹은 후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손님을 보고, 아주머니가 “600 만엔입니다!”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을 받아 손님은 “요즘은 엔이 비싸니까, 500 만으로 해 줘, 농담이야!” 라는 우스갯소리로 응대했다.

일단 바보같은 말을 한 후에 상대방을 반격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동경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또 받아쳐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서로 임기응변으로 재치 있는 농담을 익살스럽게 주고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원활히 만드는 것이 오사카 스타일이다. “창의력”, “시간절약”, “농담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도시의 상인들이 만든 것이다

鶴橋

오사카에서는 “밥 먹었냐”는 질문 대신에 먼저 “장사가 어때요?”, “항상 그저 그럴죠.” 라는 인사말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17 세기부터 무사사회였던 에도, 즉 동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사카사람은 호피무늬 옷으로 치장한 저속한 옷차림과 마치 강요하는 듯한 독특한 억양으로 말하는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동경이 아니고 오사카이다. 특히 오사카 시내 동남쪽에 자리잡는 츠르하시는 재일한국인들의 “수도”격이다. 츠루하시역에 내리자 김치냄새가 물씬 풍겨오고, 연기가 맵다. 총 2 킬로나 되는 이 상가는 한 때는 슬럼화되었지만 정겹고 시간이 멈춘것 같은 향수어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저렴한 소내장구이집이나 밥집

등이 늘어서 있다. 어둡고 미로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을 따라 시장으로 들어가면 구멍가게와 옷수선/맞춤가게, 밥집 등이 즐비하며 왓지 마음이 훈훈해져 전국 각지에서 온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늘 북적거린다. 해방직후 허허벌판이 된 이 일대에 암시장이 들어서면서 갖가지 물건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이 시장의 시초이다. 울적함을 달래기 위해 한잔하다가 꿍아떨어진 아저씨들이 모인 술집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의 외관과 함께 당시의 꾸밈이 없는 복고적 분위기를 여전히 느낄 수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제주도사람인 이 지역의 한국음식점에 들어가서 겉절이를 담구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다. 아주머니는 조총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와 표준일본어는 다 어색했지만, 오사카말이 가장 유창했다. 아주머니는 같이 간 친구와 성이 같고 본관도 같았기 때문에 아주머니한테 아버지 성함을 물어보니, “정자, 윤자, 길자”라고 대답했다. 우연히 바로 그 친구와 같은 돌림자를 가진 먼 친척이었다. 이 동네가 훈훈해지고 향수어린 분위기가 있는 “재일한국인의 수도”격인 것도 잘 이해가 간 순간이었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⑤京都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京都—天皇と貴族と舞妓の町

가을도 깊어가 감상적이 되면 왠지 일본여성 들이 가고싶어 하는 여행지가 교토이다. 일본에는 사계절의 자연이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5/7/5/7/7 의 음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인 “단가(短歌)”가 있다. 귀족들은 궁녀들에게 추파를 던질 때에는 먼저 애달프고 지극한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한 단가를 선사했다. 그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랑뿐만 아니라 연애편력같은 것은 연감생심일 정도로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에 틀어박혀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염세적인 작품, 아지랭이와도 같은 덧없는 인생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다”식의 귀족이나 무사의 흥망성쇠를 테마로 한 퇴폐적인 작품 등 테마는 무궁무진하다. 그러한 단가가 가진 외롭고 쓸쓸한 정취가 쌀쌀한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계절에 맞는지도 모른다. 또 가을 뿐만이 아니라 12 세기에 이러한 작품을 100 편 골라서 편집한 “백인일수”는 지금도 학생들이 암송해야 하며, 신년에는 한사람이 각 단가의 전반구절을 읊고 다른 사람들이 그 후반구절이 적혀 있는 딱지를 집는 카드게임으로도 인기가 높다.

교토의 역사적인 중심지는 황궁이다. 그곳의 역할은 서울의 경복궁을 연상해 볼 때 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인 황궁은 역대 천황의 궁궐로 사용되어 온 곳이지만, 대대로 골육상쟁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천황의 즉위식이나 장군들이 천황을 알현할 때 사용되는 “자진전”은 1855 년에 재건된 것이다. 그 건축물에는 경복궁의 상징색인 단청문양 은 없지만 수수함과 간소함이라는 특징 을 갖고 있다.

또 교토의 다른 한 일면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기온 (祇園) 지구이다. 미관상의 이유로 네온이나 전봇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돌길에서 기모노를 차려입은

“마이코”라는 기생이 걸어다니는 모습은 정말 아리따다. 포동포동¹²하거나 가름한 얼굴에는 물론 목덜미까지 새하얀 분을 바른 청초하고 정숙한 그녀들은 패랭이꽃에 비유된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연수단계에 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학원에 다니면서 전통노래와 악기연주, 꽃꽂이 등 전통문화를 배우고,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프로인 기생, 즉 “게이코”가 될 수 있다. 정치가, 문화인, 호상들은 크게 한 톨 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녀들을 불러 호유했고, 그것은 또한 교토의 무형문화를 지켜오는 역할도 있다. 요즘은 마이코를 동경하는 여성관광객들의 변신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마이코 모습으로 시내 관광지를 산책할 수도 있어, 외국여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다.

1869년 동경으로 천도되어, 교토는 수도로서의 자위를 잃었다. 하지만 그것은 옛 도읍으로서 세월이 경과하여 더 아름다워진 모습, 바꿔말하면 “아름다운 낡음”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마침표”가 아니고 “침표”라고 할 수 있다.

京都流コミュニケーション

교토사람들의 소통방식은 아주 독특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①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식의 소통방식은 통하지 않고, “이해성”이 요구된다. 될 수 있는 한 한 꿀 먹은 벙어리 처럼 속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 관건이다. 이견^③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하면 상대방을 망신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애매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상책이다. 유명한 일화가 두 가지 있다. 교토 사람 집을 손님이 방문했을 때 주인이 슬슬 손님이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경우 “부부즈케나 드실래요?”라고 손님한테 물어 본다고 한다. “부부즈케”는 밥 위에 김이나 조림, 구운 연어 등을 올린 후 녹차를 부은 가정요리인데, 한국의 송늬과 비슷한 것이다. 이럴 때 일부러 부부즈케를 만들게 하면 주인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손님도 그 심정을 헤아리고 귀가해 달라는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부즈케를 먹으면 눈치가 없다고 여겨진다.

또 향응접대^⑤를 받을 때 “화중지병”이라고 생각되는 게이코가 자기한테 아양을

떨고 있다고 해서 그녀에게 오늘 밤 어디 같이 가자고 손님이 권유하면 그들은 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고 한다. 하지만 전통무용과 음악으로 대접하는 그들은 진심으로 대답하는게 아니고 분위기를 고려하여 화기애애하게 접대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다. 이럴 경우 “몇 시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랑 만나고 뭐뭐를 먹자” 등 확실하게 약속하면, 게이코들은 은근슬쩍 인상을 쓰고 “별 사람도 다 있군” 이라고 내심 생각할 것이다. 게이코에게는 소위 “6하원칙”은 금기이다.

이러한 교토사람들의 소통방식을 영문을 모르겠다거나 아이로니하게 들린다든지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교토는 1200 년간 천황과 귀족들이 다스리던 일본 유일의 도시이다. 그 동안 전란에 패배한 천황을 귀양보내거나, 권력을 잡은 장군이 천황을 갈아치우거나, 하급귀족이 후지와라가문에게 발목이 잡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상황에 처해, 다른 지방에 좌천되는 등 갖가지 충돌을 겪어 왔다. 그러한 역사를 직접 겪은 교토 사람에게는 “세치혀가 화근이다”라는 소통방식이 형성되었다. 혹은 사자성어로 말하면 “화이부동”, 즉 반대하지는 않아도 상대방의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京都お寺巡り

교토 시내에는 신사가 약 300 곳, 그리고 1600 곳 이상의 절이 있어, 반올림하여 약 2000 의 신사와 절이 있는 셈이 된다. 그 중에 언제나 관광객들이 찰칵찰칵 사진을 찍는 절이 바로 금빛 찬란한 자태를 뽐내는 삼층 영빈관인 금각사이다. 무사문화와 귀족문화, 그리고 불교를 융합시킨 복합적인 금각사를 보고 15 세기 일본을 방문한 명나라와 조선의 사절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해서 국위선양의 의미도 있었다. 그 시대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이 경내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금각사와 더불어 교토를 대표할 만한 사찰이 청수사(清水寺)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축물은 벼랑에 지어진 무대 건축인데, 큰 결심을 하여 과감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일본어의 관용표현으로 "청수사 무대에서 뛰어 내릴 생각으로"라고 한다. 청수사라는 이름 그대로 경내에서 떨어지는 약수를 마시려고 줄을 서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또 남쪽에 있는 고야스탑은 순산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여성들로 붐빈다.

또 일본식 정원을 보고자 한다면 용안사를 추천하고 싶다. 선종사원과 정원은 떨러야 떨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15세기 교토에서 발생한 내란으로 인해 혼란상태에 빠져, 그 때까지 돈을 물쓰듯이 쓰고 사치를 부리던 장군들도 곤궁해져서, 청빈한 가운데에 있는 미의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고산수(枯山水)정원, 즉 산수화와 같이 검은 바위와 하얀 모래만으로 꾸미고 입체적으로 산수를 나타낸 검소한 정원 양식인데, 그 대표적인 정원이 용안사에 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필자가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려고 했을 때 가사를 착용하고 손에 염주를 걸고 있는 주지가 구두를 한 켤레 씩 신발장에 가지런히 널도록 일러주셨다. 여기는 그냥 정원이 아니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선의 정신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에 들어가면 바닷물 또는 강물이 구비구비 흘러가는 모양을 흉내 낸 모래밭에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바위가 흡사 징검다리와도 같이 가로질러 있다. 어딘가 아름다우면서도 호젓하게 흐르는 강과 닮았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이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다 봤다는 분에게는 교토 서부지구의 우즈마사(太秦)를 추천한다. 현재는 무사들의 격투나 난투장면 등 사극의 야외촬영에 종종 사용되는 촬영스튜디오로 유명한 우즈마사이지만 6세기에 here를 본거지로 삼았던 하타

(秦)씨족은 선구적인 양잠기술 로 그 세력을 확대했다. 모시로 베를 짜는 기술, 불상을 조각하는 기술 등, “도래인”이 교토에서 세운 공적은 매우 크다.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신빙성이 적다는 사람도 있지만 교토는 크건 작건 그들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하타 씨족이 지은 누에를 모시는 신사까지 있다. 또 그들이 지은 광릉사(廣隆寺)에서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반가사유상 (半跏思惟像)과 마치 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한 불상이 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얹은 채 약간 숙인 얼굴에 오른손을 뺨에 지긋이 대고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이 신령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통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교토이기 때문에, 관광 전용 앱을 이용해서 명승고적을 탐방하는데 일주일을 다 써도 모자란다.

応仁の乱

8 세기 말부터 수도였던 교토이지만 그 시대의 건축은 하나도 없고 대다수는 15 세기 이후에 재건된 것이다. 15 세기는 장군을 이용해서 집권을 도모한 제후인 야마나 (山名) , 호소카와 (細川) 양 가문이 교토 시가지에서 내란을 일으켰다. 일본역사상 가장 큰 이 내란 “응인지란 (應仁之亂)”을 계기로 교토의 치안을 지켜 주던 무사들이 서로 항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건축도 파괴되고, 그 때까지 땡땡거리며 돈방석에 앉아 있던 부자들이 독차지했던 금은보화 등을 강도들이 빼앗기도 했다. 장군은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담뱃불이 부주의로 큰 불로 되듯 교토의 문화재와 서민들의 생활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판국에 대두하여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제후들이 각지에서 생겨나 약 100 년 동안 내란이 계속되었다. “전국대명”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다 교토로 올라와 새로운 장군으로 부상하려고 했다.

최종적으로는 승승장구하여 장군을 퇴위시킨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로 올라올 때까지 교토의 내란은 약 1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지금 볼 수 있는 사찰이 그 시대에 재건된 것이 대부분인 것도 그것에 기인된다.

京の伝統工芸

황실 진상품인 전통과자 “야쓰하시(八橋)” 외에도 교토에는 기능인들이 대를 이어 갈고 닦아 온 전통공예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무사들이 썼던 투구와 갑옷, 말의 안장 등 지금은 문화재가 된 것은 물론, 금사나 은사를 넣어 짠 고급 비단이 생겨났고 그 천을 아낌없이 사용한 일본옷이나 그 위에 두르는 허리띠 등도 있다. 또 9세기 중반에 교토에서 생겨난 접는 부채는 더위를 쫓는 여름용 부채 뿐만 아니라 가무, 전통탈춤 등 예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품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채는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평면의 부채를 접어서 축소시키려는 발상은 하지 못했다. 부채를 접어서 작게 만든 것은 교토인이었다. 그 밖에도 기능인의 기량을 구사한 공예품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공예품을 구입하려면 매월 21일, 동사(東寺) 경내 공터에 서는 골동품 장터를 추천하고 싶다. 1200개에 이르는 좌판과 철학관까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바구니와 소쿠리, 담뱃대 등 축제품, 갈대로 만든 발과 조롱박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전통공예품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다. 공예품들은 약간 비싼 가격이 흠이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 여기에는 백화점과 달리 과대포장도 없고, 외국의 시장과 같은 강매행위도 없다. 결국 필자는 회양목으로 만든 빗과 비녀와 귀이개를 샀더니, 가게의 아가씨가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라고 교토말로 응대해 주었다.

尹東柱と京都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운동주는 만주에서 태어나 일본 후쿠오카형무소에서 옥사한 민족시인이다. 동시에 독실한 기독교 시인이었던 그가 너무도 짧은 삶을 마감하기 전에 청춘을 구가하고 작품을 쓰던 곳이 교토였다. 그는 동지사대학에 재학중이던 1943년 7월에 한글로 시를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감시 대상자로 낙인이 찍혀 독립운동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해방을 맞이하기 다섯달 전에 그는 누명을 벗지 못한 채 향년 27세로 옥사했다. 그가 다니던 교토 동지사 대학교와 하숙집 앞에는 대표작품 “서시”의 시비가 각각 서 있고, 매년 2월 16일에 추도식이 열린다.

“서시”는 일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실린 적도 있다. 이 시가 일본학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망을 피해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시를 쓴 운동주의 삶 속에서 나타난 추하고 침울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서려고 하는 기세가 학생들의 마음과 부합된다 사춘기의 학생들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자신을 나타내려고 싶은 마음이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짐작된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地理⑥中部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軽井沢

동경에서 신간선으로 1 시간 남짓 가면 가루이자와에 도착한다. 실바람 불고 봄의 숨결이 느껴지는 계절에 초목이 푸르른 이 곳에서 유기농 식품을 먹고 스포츠와 요가 등 웰빙생활을 하는 피서객도 있고, 새파란 나무잎과 짹짹거리며 지저귀는 새소리 등,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야영객도 있다. 특히 동경에서는 밤에도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 나날이 계속되지만, 해발 약 1000m 의 고원 에 위치한 가루이자와에서는 새근새근 잠 잘수 있을 것이다. 가을이 되면 잡목림과 수풀에서 들리는 벌레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즐길 수도 있고, 서리가 내리거나 상고대가 피는 계절에는 스케이팅을 하거나 스키를 타는 사람들도 많다.

가루이자와는 17 세기부터 대로변의 여관이 모여 형성된 마을로 번성했으나, 그 후 19 세기 말에 뽕나무 밭이었던 이 지역에 일본정부가 초빙한 외국의 전문가들이 잇달아 별장을 짓기 시작했다. 시원하고 낭만적인 가루이자와가 좋다는 이유에서 20 세기초 많은 재산가와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화려한 사교장이 된 반면 서민들에게는 “귀하신 몸” 만이 간다는, 예전에는 문턱이 높았던 별장지가 되었다.

필자는 아침에 역 북쪽에 펼쳐진 미루나무와 전나무, 자작나무 등이 우거진 숲 일대를 거닐었다. 새벽안개 속에서 어디에선가 빠꾸기 우는 소리와 딱따구리 소리가 들려왔다. 산책길에서는 덩굴이 얽힌 너도밤나무에 앉아 있는 호랑나비, 그것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사마귀, 벌집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꿀벌과 말벌,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 곳곳에서 뛰노는 다람쥐, 그리고 하늘을 나는 매 등,

풍부한 자연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어서 요즘은 당일치기로 돌아가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金沢

폭설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쌀의 생산량 백만 섬을 자랑했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는
염색과 직조 등, 본고장 교토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 의 공예문화가 꽃을
 피웠다. 그러한 공예품을 찾아 11 월의 첫눈이 흠날리는 어느 날, 함박눈으로 하얗게
덮힌 가나자와를 찾았다. 먼저 생울타리를 다듬어, 구불구불 구부러진 수로와
석가산을 배치한 경륙원 (兼六園) 으로 향했다. 가나자와는 서민들까지 일상적으로
 다도를 즐긴다고 하는데, 필자도 경륙원에서 다도를 체험했다. 화로에 놓인 솥에서
뿜어나는 물 끓는 소리가 방안에 은은히 퍼졌다. 기모노를 입은 여주인이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 “다도는 정원과 도자기, 바닥보다 약간 높게 만든 사랑방의
장식공간에 거는 족자나 꽃꽂이 등으로 종합적으로 연출하는 가나자와문화의
집대성입니다..”

밤에는 섬세한 서비스로 유명한 요정 에 갔다. 문을 열자 재색을 경비한 여주인이
나를 보고 공손히 허리굽혀 인사를 한다. 여주인은 단지 정숙하고 부지런할 뿐만이
아니라 주위 상황을 판단해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는 것 같다. 그 후 다다미방에
 안내되었다. 방의 장지문에는 유리가 끼워져 있고, 유리 너머로 눈이 내리는 것이
 보인다. 전통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지게 만들어진 방에서 먼저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의 해삼과 새고막, 전어와 초무침, 튀겨 조린 두부,
취뿌리, 숙갓 등 제철의 식재를 곁들인 요리는 꽤 먹을 만하다. 정성을 다한 맛과
섬세한 장식 은, 맛은 물론이고 보는 이의 눈도 즐겁게 해 주고 “후한 대접”이 어떤

것인지 느껴진다. 곡창지대¹⁵라서 쌀밥과 감칠맛이 나는 정종도 두말 할 필요 없이 맛있다. 요리뿐만 아니라 옷칠¹⁶을 한 식기와 선명한 빛깔의 사기그릇 등이 하나가 되어 진수성찬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러한 도자기는 회전원반¹⁷으로 형태를 만들어 굽는 초벌구이와 채색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작업이며, ¹⁸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무지개색을 과감하게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제 11 월. 머지않아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처마끝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리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한다. 추워서 손가락이 곱았지만 본격적인 추위는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佐渡

니이가타항(新潟港)에서 고속정으로 약 1 시간쯤 가면 금광과 따오기¹, 그리고 낚시의 섬으로 유명한 사도가 나타난다. 료츠(兩津)항은 “월척²을 낚기 위해 낚시대와 낚시찌, 미끼, 그물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짊어진 낚시꾼들로 북적거린다. 사도는 “낚시의 천국”으로 유명한데, 전쟁이, 보리멸 등 “턱” 하는 입질이 자주 올 뿐만 아니라 갯가⁴에서는 소라, 전복 등 조개류에 이르기까지 해산물이 풍부하여,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라고 한다. 또 항구가까이에 있는 호수에서는 썰물⁶이 되면 바지락(모시조개)이나 대합 등 조개캐기도 할 수 있다. 섬 북부의 기암괴석이 이어지는 해안선에는 해당화⁷, 백합 등 갖가지 꽃이 핀다.

문화수준도 높아, 능악(能樂), 즉 손바닥⁸으로 직접 두들기는 장구나 피리 등에 맞춰 연기하는 가면극 이 잘 보존되어 있다. 다른 지방에서 “능악”이라면 교양이 있고 돈도⁹ 들고, 부유층만이 감상하는 가무악의 집대성일지도 모르지만, 멀티플렉스도 없는 섬에 능악공연장이 30 군데나 있다. 고대로부터 권력싸움¹⁰에서

패하여 수도였던 교토에서 쫓겨난 귀족들이 이 섬으로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사도에는 교토의 귀족 문화가 함께 유입되었다. 봄과 가을의 첫째주 토요일에는 능악이 공연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골 아저씨들의 공연이고, 연기자들도 어차피 아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알아서는 안된다. 기술면에서는 약간 서툴지만 그들의 솜씨는 프로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능숙하다. 또 300 년의 역사를 지닌 인형극 “봉야(文彌)인형극”이 있다. 속눈썹과 엄지손가락까지 생동감 넘치게 꼭두각시를 조작하는 그들은 프로 못지 않다.

사도의 이름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금광일 것이다. 에도시대 광산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죄수들 이었다. 채굴을 하거나 갱내의 용수를 퍼내는 등 가혹한 작업 은 19 세기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금광은 1989년에 폐광되었지만, 노천금광의 채굴 흔적에서 당시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富士登山準備編

일본의 상징 후지산. 언젠가는 한번 올라가 보려고 버르고 있던 후지산이었는데,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학생시절의 친구와 함께 큰 맘 먹고 1 박 2 일의 투어에 참가하기로 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배낭에는 나침반, 스테인레스 머그잔, 플래시와 지사제, 목캔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출발을 예정했던 날의 일기예보가 “흐리고 가끔 비”였는데, “글피까지 기다리면 맑은 날이 된다”는 친구의 의견에 따라, 출발일을 연기했다. 몇일 후 짐을 등에 메고 햇볕이 작열하는 동경의 폭염을 벗어나 후지산 등산의 버스터미널이 있는 오합목(五合目)에 도착했다. 40명 안팎의 참가자들 중에는 후지산을 제패하기 위해 퀵서비스로 알바비를 저축해 일본에 온 남아공 대학생과, 또 팔순이신 어르신까지 계셔 그 다양함에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그 날은 등산하기에는 최고의 날씨로 주차장에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등산객이 많아, 필자는 이 북새통을 빠져 나와 먼저 짐 보관소에서 짐을 맡겼다. 점심을 먹고 가벼운 준비운동을 마친 후, 라운드티 위에 오리털파카를 입고, 발끝부터 발목, 복사뼈까지 덮은 등산화 를 신고 집합장소에서 가이드를 찾았다. 이 번에 우리를 서퍼트해 줄 강인해 보이는 20 대 남성가이드 는 올라가기 전에 여러 주의사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후 “아자아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출발하자마자 휴대폰은 통신두절이 되었다. 우리는 오솔길에서 한껏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경쾌하게 걸어갔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표지판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등산로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었다. 날씨 때문에 자주 “숨바꼭질”을 한다는 후지산인데, 비구름 하나도 없는 맑은 날씨로 인해 희미하게 산장이 보일 정도이다. 그 정도라면 “누워서 떡 먹기”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김치국부터 마신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찢은 오징어를 먹으면서 약 3 시간 올라갔는데, 점점 경사가 심해지고 옆구리가 좀 아파왔지만 아직 발걸음은 경쾌하기만 했다. 안개주의보는 없었는데 갑자기 산기슭을 안개가 뒤덮기 시작해서 숨을 헐떡이며 길을 재촉했다.

저녁에 산장에 도착했다. 산장에는 수도도 없고 물을 아껴 써야 했다. 또 좁아터질 정도의 방에서 등걸잠을 자야 하는데, 나는 스티로폼으로 된 매트 위에서 담요를 덮고 손목시계도 풀지 않는 채 잤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숙면하지 못한 채 잠이 덜 깬 눈으로 일어났다.

모두들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워 추워서 입이 돌아갈 것 같고,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였다. 2시반쯤 분실물이 없도록 재확인하고 나서

마음을 다 잡고 정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富士登山高山病編

그 날의 일기예보는 맑은 후 흐림이었는데, 여기서부터 힘들기 시작했다. 경사도 가파르고 꽃도 풀도 사라지고 또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더니, 원래 야맹증인 나는 발 밑이 잘 안보여서, 용암과 자갈이 발걸음을 방해했다. 기압때문에 다리에도 부종이 생겼다. 옆친데 덮친격이라더니, 1ℓ 나 있던 물도 바닥이 나 마침내 나는 뒤쳐지기 시작했다. 억지로 이를 악물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눈이 침침하고, 또 통통 부어 올라와 안약을 넣고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다. 고산병인 것 같았다. 당장이라고 쓰러질듯하여 성큼성큼 걸어가는 동행자의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친구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새벽녘에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겨우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는 우체통이 있고 기념으로 후지산 정상의 소인을 찍은 그림엽서를 집에 보냈다. 정상의 기온은 약 5℃, 바람이 쉴쉴 불어와, 땀이 식기 시작하면서 추위가 느껴져 “에취!”하고 연속 재채기가 나왔다. 추워서 식당에서 라면을 먹었다. 세상에 컵라면 1개 900엔이라고 하니, 바가지를 쓴 것 같아 화가 났지만, 운반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라면을 먹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니, 찬란한 해가 어둠을 뚫으면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정신이 번쩍날 정도의 그 해돋이에 몽클했다.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다.

남다른 감동을 느낀 30분 후 아침 이슬이 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다 잡아 먹고 하산하기 시작했다. 팔합목까지 하산했을 때 햇빛이 짹짹 내리쬐고, 또

공기가 희박한 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몇분후에는 뒷통수도 육신육신 아파지고 피로가 극에 달해 구역질까지 나기 시작했다. ^⑰ 여기에 배멀미한 것 같이 속이 거북해졌고, 숨이 차면서 땀이 끝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⑱ 이것 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무서운 속도로 구르듯이 산마루를 뒤로 하고 내려왔다.

^⑲ 산악지대의 날씨는 변덕스럽다더니, 신쥬쿠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자마자 날씨가 꺾어지더니 비가 뿡뿡 쏟아지기 시작했다. 산기슭에서 후지산을 보면서 느꼈다. 후지산은 역시 정상보다 밑에서 찍는 것이 ^㉑ 사진발이 좋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⑦東京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永田町・霞が関

동경은 정치, 행정, 사법의 중심지이다. 특히 나가타초지구는 국회의사당과 청와대^①에 해당하는 수상공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전투경찰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내각은 수상과 국무위원^②으로 구성되지만 한국의 대선^③과 같이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과 비교하면 일본 수상은 정계를 좌지우지 못하여 정국의 부침이 심하다. 수상은 20 세 이상의 일본국민들이 총선^⑤으로 선출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의원들은 각종 법률의 초안을 만들거나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지만 여야권 모두 때로는 배후공작을 행하면서, 심지어는 비자금 즉 뒷돈을 써서 세력을 넓히고,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악육강식의 세계를 벌이기도 한다.

국회의사당 북쪽에는 대법원^⑦과 2300 만 권의 방대한 서적을 열람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도 있다.

국회의사당 동남쪽은 각각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등에 해당하는 중앙관청이 모여 있는 지구이며, 서울의 세종로와 비슷하다. 여기를 오가는 관료들은 평균 20 대 1 의 경쟁률을 넘는 “좁은 문”을 통과한 우수한 엘리트들 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들의 이미지는 2 대 8 로 가르마를 타고, 양복을 입고, 서류가방을 손에 든, 판에 박힌 말만 하는 고지식한 인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어수선한 정국에서 정치가 보다 국가를 지탱해 온 장본인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는 이러한 관료라는 사실을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성의 자리에 눌러 앉아, 각 부처가 관할한 업무내의 일에 관해서 상사의 지시만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뒷받침해 주고 마땅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소위 “관료근성”에 대해서 비판의 안목도 적지 않다.

神田神保町

간다진보초 일대는 동서고금의 헌책이 밀집해 있는 서점가이다. 어느 날 필자는 동경지구의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5000 엔을 충전한 후 진보초로 향했다. 거기서 탐욕스럽게 학문을 추구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딴 후 대학교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김 모선생님(익명)의 안내로 진보초를 산책했다. 선생님은 그저 상아탑에 갇혀 있는 “사이비 문화인”이 아니고 답사를 통해서 사회의 실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이다.

그 날은 먼저 점포 앞에서 책벌레들이 다 읽은 책을 손에 들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다. 출판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붐볐다. 그 후 화류계 여성이나 연극배우, 명승지의 풍경등을 소재로 그린 에도 시대의 풍속화 를 취급하는 서점, 또 연극각본이나 팸플릿을 모두 갖추고 있어 영화팬들에게 인기가 있는 서점, 조선시대에 쓰여진 한정판 서적 “동의보감(東醫寶鑑)” 등을 취급하는 고전전문 서점, 그 밖에 의학서적 등 학구적이고 딱딱한 문장의 전문서적은 물론, 점술, 육아책에 이르기까지 이것 저것 구분없이 진열하고 있는 서점 등 개성적인 전문점을 둘러봤다. 필자도 옛부터 찾아헤맸지만 구하지 못했던 책을 몇권 찾았다.

마침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하기 위해 아담한 커피숍에 들렀다. 천정에는 상들리에, 실내에는 4인용 좌석이 놓여 있으며, 거울에는 난로도 설치되어 있고, 또 책장¹⁴으로 둘러싸인 서재와도 같은 커피숍의 오래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읽다 만 문고판책을 아련히 밝혀 주는 조명이 아주 고풍스럽다. 그런 분위기있는 커피숍에서 각설탕¹⁵을 넣은 비엔나커피를 마시고 마늘빵을 먹었다.

역사를 지니고 있고 편한 분위기의 그 커피숍에서 방금 산 헌책을 탐독하며 한 때의 감개에 젖는 것도 각별한 재미일 것이다.

고서점가에서 조금 벗어나면 악기거리와 스포츠용품 거리가 있다. 반짝반짝 광을 낸 전자기타가 백백이 들어선 악기전문점이 많다. 시험 삼아 실로폰, 심벌즈 등을 두드려 보는 사람 등도 보았다. 또 스포츠용품 거리에서는 테니스나 골프는 물론 스쿠버다이빙이나 파도타기, 암벽타기, 스케이트 등의 전문점도 즐비하다.

언덕길을 올라가면 러시아 정교회 “니콜라이성당”이 있다. 성당 종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경건한 신자 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에 안식을 안겨준다. 정처없이 걸다 보니, 매콤달콤한 고구마맛탕을 파는 제과점이 있다. 실은 고구마맛탕은 진보초에서 모였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점, 스포츠용품점, 악기점, 커피숍 등, 학교에서 수업이나 세미나를 끝낸 대학생들이 모이는 서울의 “대학로”에 해당하는 거리가 진보초라고 할 수 있다고 김 선생님께 해석해 주셨다.

お台場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는 속담처럼, 에도 즉 동경의 역사는 400년 이상 바다를 매립하며 도시를 넓혀간 역사였다. 특히 오다이바는 원래 19세기 중반무렵, 일본판 “위정척사”사상을 지닌 에도막부가 외국함대의 습격에 대비하는 포대를 설치하기 위해 연안에 6개의 인공섬을 만든 것이 그 기원이다. 요즘은 TV 방송국과 음식점, 극장 등이 입주해 있는 대형상업시설 아쿠아시티, 국제적인 견본시장이 열리는 빅사이트 등, 고층아파트와 업무용빌딩 등 신개발이 활발한 이 인공섬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 오다이바의 세계 최대급의 대관람차에서는 빨간색 사각뿔의 동경타워와 흰 색

원뿔의 후지산 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러한 오다이바에서 가장 볼만한 시설은 과학미래관의 로봇일 것이다. 일본의 산업용 로봇은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한다. 특히 미래관에서는 팔 힘도 강하고 엉덩방아를 찢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두발 보행 로봇 “ASIMO”의 안정적인 걸음걸이에 숨을 죽인다.

구미보다 일본에서 이러한 로봇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는 그 “로봇관”에서 알 수 있다. 서양인들은 로봇을 인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면 프란켄슈타인과 같이 인간을 배반하는 “배신자”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만물에 생명이 깃들여 있다는 자연신앙의 영향일지도 모르지만 “우주소녀 아톰”, “도라에몽”, “마징가 제트”등 인간과 함께 살며 정이 많은 존재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이가 잠들지 못할 경우에는 자장가를 불러 주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졌을 때에는 수발을 해 주기도 할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또 함께 생활함으로써 가족처럼 정이 들어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기 과학미래관이다.

秋葉原

아시아 최대규모의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 “재고정리 특별판매”를 하는 이 전자상가는 각종 세일품목의 배송료 및 설치공사비의 무료서비스와 A/S 등 고객서비스도 완비되어 있는 판매점이 많다. 정기휴일은 없고, 밤 10 시까지 영업하는 점포도 많다.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각종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지급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다.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전기밥솥, 에어컨 등 백색가전은 물론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 카메라 삼각대나 플러그 등 관련부품 전문점 등 아주 다채롭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라더니, 최근에는 특히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총동구매를 자제하지 못하고 싹쓸이하는 바람에 매장의 물건이 사라질 때도 있다고 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곳이 백엔숍이다.

일본전통적인 디자인의 기념품을 백엔으로 사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스카치테이프,

물감, 조각칼 같은 학교에서 쓰는 문구를 사는 현지의 일본학생들도 많이 온다.

또 아키하바라는 80년대 이후 “오타쿠”, 즉 창백한 얼굴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특정 분야나 취미생활에 빠져있는 매니아들이 마음놓고 활보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 가진 돈을 다 털어 무언가에 홀린듯이 마니아적인 물건을 구입하는 그들의 취미 생활이 너무 개성적이라서, 주위의 이해를 얻기 힘든 오타쿠들. 예를 들어 남성이 마치 완전히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된 것처럼 여장까지 하거나,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용품은 물론 양철제 장난감 까지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서로 통하는 동호인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동호인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키하바라를 찾는다.

이러한 자극적인 거리이지만 2008년에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우울증으로 시달려 심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자가 아키하바라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사람을 치고, 다시 옆에 있던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다. 범인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사건 후, 아키하바라의 보행자전용도로는 한 때 폐지되었으나 재개되어, 주말이면 길거리 공연 등 평화스러운 광경이 회복되었고 다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과 오타쿠들의 수도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山の手と下町

동경의 매력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와 400년간 계속되는 전통적인 면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19세기 정부가 특혜를 주고 설립된 재벌들이 모인 마루노우치 (丸ノ内) 지구,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이 세상에서 당대에 막대한 재산을 형성한 벼락부자들이 활보하는 롯본기 (六本木) 지구, 닛케이225 등 주가지수를 발표하는

증권거래소가 자리잡은 카부토초 (兜町) 지구, 반짝거리는 팔찌, 목걸이 등을 진열해 놓은 명품전문점 뿐만이 아니라 유화, 수채화, 수목화 등 미술품의 개인전이 열리는 갤러리 도 즐비한 긴자 (銀座) 지구 등이라고 할수 있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듯한 미녀와 잘 나가는 꽃미남의 “닭살커플”들, 혹은 주말에도 출근하는 샐러리맨과 직장여성들이 활보하는 도시야말로 동경의 첫인상일지도 모른다. 이 지구들은 서울이라면 지하철 2 호선에 해당하는 노선 야마노테선 주변에 위치한다.

후자는 아사쿠사 (淺草), 시바마타 (柴又) 등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성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소위 “시타마치”라고 불리는 서민들의 거리이다. 17 세기부터 장군이나 무사계급이 살던 “야마노테”와 비교해 격식차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서민들이 살던 지역이 시타마치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에도시대의 전통문화나 전통기술, 그리고 전통적인 기질은 중심부보다 시타마치에 남아 있어, 신쥬쿠나 시부야와는 다른 의미에서 일본문화의 발상지로서 “숨은 공로자” 역할을 해 왔다. 야마노테에는 대기업 본사나 관청이 집중되어 있는데, 시타마치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싸구려 과자 가게나 목욕탕 겸 빨래방 같은 서민적인 장소 뿐만이 아니라 세탁소와 이발소, 터득한 기술을 살려 일을 하는 목공이나 수공 기능인 등 식당 등 자영업자가 많다. 시타마치는 손재주가 있고 빠릿빠릿하게 정교한 작업을 해내는 기능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보는 이로 하여금 끝없는 흥미를 복돋는다. 그것은 시타마치 사람들이 권력이나 대자본 등이 지배하는 이른바 “직함”이 중요시되는 세계와 많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타마치에 있어서 “순수한 동경토박이”의 이미지는 의리가 없으면 사내로서의 체면이 안 선다고 여겼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 결과 항상 손해를 보고 의리와 인정사이의 난처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배포¹⁹가 큰 것을 보여 주려고, 혹은 끈기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눈앞²⁰의 이익에만 구애받는 것은 멋없다고 한다.

흔해 빠진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전자와 후자의 조화야말로 동경관광의 백미이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⑧下町

江戸っ子

시타마치 지역에 사는 동경토박이는 만화, 영화 등에도 자주 등장하여, 특히 영화로서는 60년대말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대표할만 한 성격^①파 배우 아츠미 키요시 (渥美清)가 총 48편 연속해서 주연을 맡았던 인기 시리즈영화 “도라 (寅) 상”이 있다. 시타마치의 작은 마을 시바마타에서 태어나, 부친^②에게 의절당한 도라상은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이상하리만큼 수줍음을 타는 중년남성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③ 노총각은 속옷 위에 단벌 신사복을 걸쳐입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빈둥거리고 있다. 맹렬^④한 사랑공세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여성앞에서는 품 잡기를 좋아하는 도라상은 여행지에서 자주 미인과 만나, 애달픈 짝사랑에 빠지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도 “다 큰 남자가 울면 보기 흉하다”고 허세를 부린다. 고향인 시바마타로 돌아올 때마다 가족들 앞에서 자기^⑤밖에 모르는 그는 언제나 욱하면서 욱설을 퍼붓다가, 가족들이 무시하면 외로워하고 주눅드는 다루기 힘든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복^⑦자매인 여동생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식으로 인생의 뒀안길을 걸으려고 하는 오빠에게, 그런 하루살이 생활은 청산하고 착실히 살아가도록 부탁을 한다.

반면 시타마치를 무대로 한 만화작품으로서 시바마타 근처에 있는 “가메아리 공원 앞 파출소”가 있다. 외모^⑧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제복의 소매를 걸어붙이고 숫다리에 나막신을 신고 별에 그을린 얼굴에 굵은 눈썹이 특징적이며, 성미가 급하고 덩벙대는 순경“료 (兩) 상”과 주변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이 작품은 자그마치 35년동안 계속되어 있다. 주인공인 료상은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⑨만 아는 사람 으로 “민중^⑩의 지팡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고, 돈^⑪을 밝혀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 상사가 파출소에 없을 때에는 “범^⑫없는 골에는 토끼가 스승”이라고 근무시간에도 노름에 정신이 빠지거나, 경마에서 요행수로 큰 돈을 따는 것 등 본업을 뒷전치고 일확천금을 노린다. 특히 내기를 좋아하는 료상은

“승부에는 행운불운이 으레 있기 마련이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낮가죽이 두꺼운 철면피로 묘사되어 있는 료상이지만 그 마을의 가게 주인들에게는 낮익은 손님이며,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동료들도 개성파가 많아, 귀하게만 자라 고생을 모르는 청년 순경, 가정환경이 아주 좋은 여경, 료상의 감언이설에 속아 항상 손해만 보는 중년순경,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하인 료상에게 잔소리를 하며, 덮어놓고 야단치는 부장 등, 그 모습은 “시시한 경찰관”이라는 이미지와 많이 다르다.

시타마치를 무대로 “파격적”인 인물의 일희일비를 그린 작품군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본에서 도라상과 료상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느껴질 정도이다.

부자동네에 사는 사람과 달리 이러한 자유분방하고 다정한 도라상이나 개성이 강한 료상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시타마치에서 자주 볼 수 있다.

淺草

아사쿠사는 천초사(淺草寺)를 중심으로 발달한 서민들의 변화가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7세기 스미다(隅田)강에서 형제 2명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물에 작은 관음상이 걸렸다. 불심이 지극한 이 형제가 그 관음상을 모시기 시작한 것이 천초사의 기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천초사의 참배길은 정면 입구에 빨간색의 거대한 제등이 걸린 “가미나리문”이라는 일주문을 지나 관음당(觀音堂)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도중에는 각종 선물가게 등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나카미세(仲見世) 상점가가 있다. 일본의 전통 부채, 축제의상, 그리고 앞아서 앞발로 손님을 부르는 고양이 장식물 등,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물건들로 가득차 있다.

나카미세 상점가를 빠져 나오면 보장문(寶藏門)이다. 그 양측에 있는 분노의 표정을 짓고, 역도선수와의 같이 근골이 우람하고 군살 하나 없는 몸집을 하고 있는 한 쌍의 큰 사천왕상은 불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며, 그 앞쪽이 관음당이다. 중생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관음보살 앞에서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어 시주함에

던지는 사람, 운수^⑥를 보려고 제비뽑기를 하는 사람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관음당을 향해 오른쪽에는 작은 신사가 세워져 있는데, 운이 좋으면 엄숙한^⑦ 느낌을 주는 검은 겹옷과 긴 치마와도 같은 바지를 입은 신랑, 또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머리 위에 전통적인 흰 두건을 쓴 신부가 올리는 일본전통식 혼례를 볼 수도 있다.

아사쿠사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천초사의 참배만이 그 목적은 아니다. 쇼핑과 각종 오락, 연극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 천초사 서쪽은 옛부터 대중연예의 중심지였다. 정통 일식복장을 한 남성이 앉아서 익살스런 이야기를 하는 대중예능인 “라쿠고” 등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기타노 타케시 (北野武) 나 “도라 (寅) 상”, “킨 (欽) 짱” 등, 만담^⑧이나 성대모사 등 여기서 각종 연예계 분야로 진출하여 열심히 한 우물을 판 결과 성공을 거둔 개그맨들도 적지 않다.

또 여기에는 부자동네^⑩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서민적인 분위기의 점포와 시설이 즐비하다. 단골손님^⑪이라면 외상도 가능한 술집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갈지자로 걷는” 아저씨들도 많다. 또 인형^⑫뽑기, 고리던지기와 회전목마 등의 놀이기구와 솜사탕 가게 등이 늘어서 있고 작고 아담한 놀이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이 아주 보기 좋다.

아사쿠사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인다. 원래는 쓸모^⑬가 없어 버려져 있던 화물역 이었는데, 이를 철거하여, 2012 년에 완공된 이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이며, 동경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명소이기도 한다.

아사쿠사는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깜짝상자^⑭와도 같은 마을이다.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를 신비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신비함을 현지인^⑮들은 물론, 먼 외국에서 지게같은 큰 배낭에다가 침낭을 짊어지고 온 여행자들까지 나름대로 즐기는 듯 했다.

浅草の四季

아사쿠사는 언제나 축제기분이 넘치는 서민의 마을이며, 일년 내내 축제가 있다.

2월 입춘 전날은 잡귀를 내쫓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절에서 콩을 뿌린 후,

콩을 먹고 액막이를 하는 행사가 있다. 한국에서 1년 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정월대보름날에 행하는 “부럼깨기”를 연상시키는 행사이다. 4월에는 무사로

분장한 남자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과녁을 맞추는 무예인

“야부사메(流鏑馬)”가 행해지고, 7월에는 소원성취와 액막이를 의미하는 붉은
과리를 파는 시장이 선다.

연말에는 아사쿠사 북쪽의 오토리신사에서 한국의 “복조리”와 유사한 발상인지도
모르지만, 갈퀴로 행복을 싹씩 긁어모은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장식용 갈퀴시장

선다. 그 갈퀴에는 “소문만복래 (笑門萬福來)”를 의미하는 복스럽고 “개성있게”
생긴 여성의 탈 과 기타 운수가 좋아진다고 하는 여러가지 물건이 붙어 있다.

하지만 아사쿠사를 대표하는 축제는 5월에 아사쿠사 신사에서 열리는
삼사(三社) 축제이며, 대단한 성황을 이룬다. 44개 마을별로 신의 위패를 모신

가마를 짊어지고 동네를 돈다. 마고자와 같은 축제의상을 입은 청년 30명이 어깨에
짊어져야 겨우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마에 2000여 명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는
축제 의 모습은 동경의 초여름을 알리는 명물축제로서 유명하다.

上野アメ横

동경 시타마치의 부엌이라 할 수 있는 우에노 아메요코 시장은 2차대전후
재일한국인들이 미군에서 배급받은 식품이나 옷 등을 판매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서울의 남대문시장과 비슷하다. 확자한 호객소리,
다투는 듯한 흥정 소리, 온갖 어패류들이 싱싱하게 요동치는 시장에서 있노라면
웬지 즐거워진다. 집안일을 마친 오전 10시 쯤부터 해질녘까지는 주부들 차지다.

집안 대소사를 치르거나 찬거리를 마련하려는 알뜰 주부들이다. 특히 연말에 는

신년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영덕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뜰 구매의 찬스예요!”, 라는 위세 좋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금방 익혀서 딱지를 떼어낸 영덕게가 전구 아래서 그 빛을 한껏 자랑하고 있다. 달콤한 냄새와 함께, “손님, 좀처럼 없는 기회 니까 한번 맛보고 가세요”라는 말에 끌려, 신선한 게살 한 점을 건네 받는다. 씹을 때마다 게살의 단맛과 바닷가의 향기가 입 안으로 퍼진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맛이다. 고등어, 명태, 성게, 그리고 거친 겨울 파도에 단련돼 물이 오른 방어 등 각양각색의 물고기가 산처럼 쌓여 팔리고 있다. 도매상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움직인다. 이렇듯 신선한 바다와 산에서 나온 재료덕분에 동경사람들의 설음식은 한층 그 맛이 각별한 것이리라.

山谷

세계각국의 관광객으로 붐비는 아사쿠사에서 북쪽으로 20 분 정도 걸어가면 상야지구이다. 이 마을은 보통 직장인들에게는 낯선 지명일지도 모르지만 동경의 노숙자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도시 TOKYO 의 새로운 상징인 스카이트리와 그곳의 주변마을에 해당하는 여인숙 거리와의 대비는 이 도시의 양극화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상야에 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과거가 있는 남성들”이 많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되어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하여 처가 도망가 “가문을 더럽혔다”는 낙인이 찍힌 유부남들, 등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필자는 “문화시민” 동경사람의 한 단면 을 보려고 상야로 향했다.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 시. 일부러 때가 낀 옷을 입고 “노동자스럽게” 분장했는데, 아침부터 할아버지들이 길가에서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필자도 조심조심 길고양이와 노는 남자들 옆에서 술을 마시며 아저씨에게 여기

와서 몇년이 되었는지 묻자 아저씨는 필자⁷를 힐끔힐끔 보다가 “당신이 알 것 없어”라고 하면서 다른 아저씨들과 흥분하면서 “ 부도⁸가 나면 끝장이야, 끝장!” 이라고 필자를 무시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기서는 “ 남의⁹ 잔치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면 안된다고 하는 암묵의 원칙이 있다.

그 후 경찰아저씨가 뜻밖에 필자와 같은 “ 보통¹⁰사람 ”스러운 “새내기 청년실업자”를 보고 “잠시 검문하겠습니다.”라고 물어왔다. 필자는 취재 목적으로 왔다고 말하고 경찰관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 경찰관 이야기로는 경기가 좋고 일거리가 많았던 90년대까지는 목돈이¹¹ 들어와 집을 얻어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고, 신문을 돌리거나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불황과 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해 빈털터¹²리가 되어버려 그 날의 숙사비용도 내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아졌다. 그래서 노동자 전용 여인숙도 외국인 배낭여행자한테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필자도 그러한 “국제적인”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먼저 숙박비용으로 2000 엔을 냈다. 1 평밖에 안되는 방의 벽면에는 균열이가 있고, 조명 스위치를 켜자 전구가 나갔고 또 TV도 안나왔다. 로비에는 100 엔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 워드도 엑셀¹⁴도 다 깔려 있었는데 중간에 꺼져버려 재부팅하여 인터넷을 이용했다.

밤에 밖에 나갔을 때 교회에서 “불우 이웃돕기”로 모은 성금으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실은 처음¹⁶이라서 불안불안했지만 필자도 그 활동에 참가하기로 했다. 노숙자들 가운데 아침에 필자를 무시한 아저씨가 주먹밥과 간식¹⁷을 게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아저씨는 필자를 보고 “나도 몸¹⁸에 우리가 가서 술도 마실 수 없어!”라고 사적인 사정을 털어 놓았다.”사실은 노숙자¹⁹들에게 거부감이 있던 필자도 이 때야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⑨東北

遠野

이와테현 도오노시는 요괴가 출몰했던 장소가 마을 여기저기에 간직하고 있다. 도오노사람 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은 자연현상 그 자체를 요괴로 여겼다. 예를 들면 눈보라 속에도 “설녀”라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했다. 설녀는 한결같이 소름이 끼칠 만큼 섬뜩한 눈보라의 화신으로 서술되었다. 비정상적으로 맑은 그 피부는 눈보라 치는 풍경이 비칠 정도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도오노에서는 “갓파”가 산다는 강가도 있다. 갓파는 “서유기” 속에 나오는 “사오정”과 같이 생긴 강에서 사는 요괴이다. 등에는 거북이의 갑각이 붙어 있고, 부리는 오리와도 비슷하고 머리에 물이 고여있는 접시같은 것이 있는데, 강가에서 노는 아이들의 다리를 잡아 당겨서 물에 빠트리지만, 강의 수호신이기도 하여, 생태계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에도 하천오염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 듯하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집에도 “자시키와라시(座敷童子)”라는 아이 모습의 요괴가 산다. 특히 장난을 좋아하며, 채 위에 작은 발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한밤중에 물레를 돌리는 소리를 내거나 안방에서 소리를 내며 놀기도 한다. 한편 자시키와라시는 복을 가져다 주고 집안의 성쇠를 담당하는 수호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요즘의 기상이변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를 살리자”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소위 “과학적인 잣대”만으로 자연현상을 가늠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여, 그 것이 가지는 힘을 “요괴”의 행위로 여겨 왔다. 설녀나 자시키와라시, 갓파 등을 결코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철학을 도오노에서는 느낄 수 있다.

三陸海岸と東日本大震災

혼슈 동북부 태평양 연안의 약 180km 에 걸쳐 만과 절벽이 이어지는

① 쪽날쪽한 해안선이 산리쿠 해안이다. ② 변화무쌍한 자연의 조형미는 장대하기만 하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에는 산리쿠 앞바다에서 관측 사상 최대규모인 ③ 리히터 9를 기록한 대지진이 일본의 동북지방을 휩쓸어, 땅은 갈라지고 가옥들도 파손되었다.

그 날 동경에서는 한 ④ 전문대 졸업식 식장의 천장이 떨어져 출혈과다로 사망한 사람도 몇 명 있고, 또 동경만의 매립지에서는 지반이 액상화되어 가옥이 함몰되었다. 그 날은 전철의 운행이 정지되어, 몇시간이나 ⑤ 발이 묶인 결과, 어쩔 수 없이 걸어서 귀가했기 때문에 다리가 뻣뻣해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슈퍼에서는 물, 식품, ⑥ 건빵 등을 사재기하려고 모두들 몰려들어 품절된 경우도 많았다.

같은 날에 산리쿠지방 바닷가에는 ⑦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해일이 덮쳐 제방도 무너지고 강물도 소용돌이치는 탁류로 넘쳤다. 동시에 “⑧ 수마”라는 말 그대로 물난리가 나, 가옥들도 물에 떠내려갔고, 반대로 배들이 육지로 밀려 올라왔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⑨ 꿈쩍없이 맨몸으로 허둥지둥,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피난했지만, 수 많은 사람들이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사람들도 ⑩ 그 믿겨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광경에 눈을 의심했고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길을 돌렸다.

그러한 가운데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南三陸) 방재대책센터에서 근무중였던 여직원 엔도 미키(遠藤未希)씨는 ⑪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에게 높은 곳으로 피난하도록 방송을 계속하다가 자신은 미처 피난하지 못해 24년의 일생을 마쳤다. ⑫ 젊은 나이에 사명감을 달성하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엔도 씨의 고귀한 행동을 접하자 가슴이 아프다.

⑬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목숨만 겨우 건진 이재민들은 가설주택으로 옮기기 전에는 ⑭ 울부짖는 아이들이 여기 저기서 걸어다니고 ⑮ 약취가 코를 찌르는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런 곳에서 살면서 토사에 묻힌 가옥에 생매장이 된 가족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시체가 있어도 없어도 고개를 푹 떨구고 그곳에 줄곧 서 있거나,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해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허탈감에 빠져서, 슬픔에 젖어 눈물로 나날을 지낼 수는 없다. 언제 또 여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모두들 전전긍긍하면서도 일자리도 못 구하고, 쥐꼬리만한 보상금과 비정기적인 의연금으로 하루살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지방에 가면 살림살이 일체가 마련되어 있는 숙사 등, 이재민들을 받아들여 줄 지역도 있지만 타향살이를 하기보다는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진이 발생한지 반년후 필자는 미야기현의 재해지를 찾았는데 그저 불도저로 땅을 고르기만 한 채로 길 양쪽에는 쓰레기더미가 수북하게 쌓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오나가와 (女川), 미나미산리쿠 (南三陸), 이시노마키 (石巻) 등 반년전까지 있었던 마을은 흔적도 없어 사라졌고, 들었던 바를 초월한 생생한 상흔이었다. 시가지는 참담한 잣더미로 변해 있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미나미산리쿠에서는 순직한 엔도 씨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한 제단이 철골만 남아 있는 방재대책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었다.

宮沢賢治

미야자와 겐지는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근대 작가이다. 그는 이와테현에서 태어나, 당시 죽을 병이었던 결핵으로 인해 3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생존시의 저술활동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몽환적인 작품만 쓰는 “백수건달”로 여겨져 왔지만 그가 남긴 많은 동화와 시들이 사후에 편집 출판됨에 따라 그의 작품세계의 풍부함과 깊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원래 물리교사였던 그가 쓴 문학작품들은 인문계, 자연계의 구분없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유복한 전당포 집에서 태어난 그는 자기 가족의 풍요한 생활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생산해 낸 이익^⑥을 착취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고통스러워 했다. 한편 부모들은 “가문의 영광^⑦”인 사업과 아무 상관도 없는
 문학에 종종^⑧ 자신을 잊고 몰두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풀리는 고지식하고 착실하기만
한 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다. 그런 상황에서 켄지는 자신의 생애를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 바치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되었다. 중학교 교사를 그만 둔 후, 농민들과 함께 작업복^⑨을 입고 밭 벗고나서
낮이나 호미로 풀을 깎거나 도끼로 나무를 베거나, 목공일을 하고 축사와
채소밭에서 농민과 똑 같은 생활을 했다. 농민출신^⑩이라면 몰라도 유복한 집안
 출신인 켄지같은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고생^⑪이 아니었다.
이양기^⑫도 없는 그 시대에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말만 앞선 탁상공론^⑬을
 싫어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농민들과 함께 뼈^⑭를 깎는 고생을 했다.

한편 농사일을 하는 사이에 음악회를 열거나 시를 쓰거나 해서, 농촌에 깊이^⑮
뿌리를 내리면서도 우물 안 개구리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보편성을 지닌 작품들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또한 켄지가 살았던 시대는 일본제국주의가 횡포를 부려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만들어 국가영토를 팽창시키고, 거품과도 같이 사라져버린 시대였다.
 켄지는 이러한 테마를 통하여 배타적이며 폐쇄적^⑰이고 “자승자박”적인 일본사회^⑱에
 있어서 살아있는 생물^⑲은 모두 한 형제이며, 이질적인 인물들과도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교감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제안했다. 그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개인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철학은 지금도 독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켄지의 생가와 정신적인 지지자였던 누이동생과 살던 집, 작품의 무대
 등 그의 발자취를 찾아 이와데현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石川啄木と崔承喜

유유상종^①이라고 할까, 타쿠보쿠는 미야자와 켄지와 같은 지방인 이와테현에서 태어나 20세기초에 활약했던 천재시인이다.

그 때까지 편협^②되고 민중의 생활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단가(短歌)”를 서민^③의 애환이 깃든 민중적 경향으로 표현한 최초의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사생활에서는 빛^④ 때문에 움푹달싹 못하게 되어 지인으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무시당하거나 해서 소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고향^⑤의 강산을 그리워하면서도 금의환향하지 못하는 순수한 농촌청년의 심정을 드러내는 작품들은 지금도 독자의 눈시울을 적신다.

타쿠보쿠는 한일합방의 다음달인 1910년 9월 이런 비판적인 시를 쓰기도 했다.

“지도 위의 朝鮮國에 검게 또 검게 먹칠을 하며 가을의 바람소리를 듣는다.”
여기서 그가 그저 감상적인 시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지닌 시인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채춤^⑦, 승무, 살풀이춤 등, 한민족의 넋을 담은 춤을 통해 시종일관 그 자긍심을 세계에 알렸던 불세출의 춤꾼 최승희(崔承喜)는 면면^⑧히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혼을 궁극의 춤으로 승화시키려는 과업으로 불타오른 진정한 예술가인데, 최승희는 “석천탁목^⑨”의 시를 자나 깨나 외우다시피 그지없이 애독했던 소녀시대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타쿠보쿠의 잃어버린 고향, 이와테현에 대한 마음을, 잃어^⑩버린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무용가가 최승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会津

후쿠시마현 서부지구인 “아이즈”라는 지명을 듣자, 필자는 왠지 음침^①하고 보수성향^②이 강한 이미지를 연상했다. 아이즈는 에도 시대 장군의 친척인 마쓰다이라 가문이 통치한 마을로 번성했다. 1860년대 마쓰다이라(松平)는 장군 대신에 공식출범^③한 교토 수호직으로 천황에 접근하려고 하는 조슈(長州) 즉

야마구치현 출신의 무사들을 많이 잡아 들었다. 나랏일을 맡게 된 것은 부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임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에도시대가 끝나자 마자 일본국내에 37 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이 아이즈를 중심으로 한 막부군, 남쪽은 조슈와 사쓰마를 중심으로 한 신정부군으로 분단되어,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이 그어졌다. 도쿠가와 장군의 형제들도 모두 장군에 대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식으로 신정부군에게 무릎을 꿇어 가세하여 동북지방을 침공했다. 장군에게 있어서는 “밀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느낌이었겠지만, 한편 아이즈를 비롯한 동북지방은 일치단결하여 아이즈를 침공한 신정부군과 싸웠다. 신정부군은 “오월동주” 상태라고 했지만 신무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막부군은 패배를 계속하며 전선을 북부로 이동했다.

그 때 적군에게 추한 꼴을 보여 줄 수는 없다고 해서 19 명의 소녀들이 봉수가 있었던 이이모리(飯盛)산에서 “다음 생에서도 아이즈에서 만나자”는 말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집단 할복자살을 했다는 일화는 몇번이나 영화와 드라마의 테마가 되어 그 때마다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있다. 그 소녀들을 모시는 위령탑을 찾아 오는 관광객으로 붐빈다.

1 년반의 내란은 끝났지만 아이즈를 비롯한 동북지방은 명치시대를 통해서 가고시마, 야마구치 출신자 등 편파적으로 구성된 정부로부터 명백한 차별을 받아왔다. 신정부에 대항한 동북지방 출신자라는 것이 입신양명의 걸림돌이되어, 숨죽이며 고난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아이즈 사람들은 경작지가 거의 없는 아오모리나 북해도, 심지어 캘리포니아에 이민을 가는 등 별별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아이즈시내를 안내해 주신 관광 가이드도 이 사실을 한없이 원망하며 그 힘겨웠던 삶과 헤쳐나온 역경의 역사를 하소연하고 있었다. 그 때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도 아이즈의 부모는 섹시감/신부감이 야마구치 현민이면 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동북지방이 정치적으로 겨우 회복된 것은 아이즈 전쟁이 끝난지 50 년 후인 1918 년, 즉 이와테현 출신의 상인 하라 다카시(原敬)가 야마구치, 가고시마 등 무사계급^⑧ 출신자의 그늘에서 벗어난 “문민정부”의 수상이 되었을 때였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⑩北海道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北海道サイクリング

필자는 대학생 시절에 자전거로 1800 킬로의 북해도를 일주했다. 도회지의 닭장^①과도 같은 아파트촌 사이의 도로와 달리 권태로울 정도로 넓은 북해도의 도로

여기서 바람^②을 등에 업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전거여행자들의 선망이었다.

북해도 남쪽의 항구도시 하코다테(函館)에 도착한 것은 가을^③ 분위기를 더해주는 8월 말이었다. 그 후 20일간 날마다 산과 바다, 그리고 겨울에는 천연^④의 빙상장이

된다는 강과 학들이 떼를 지어 날아온다는 습지 를 달리면서 넓은 농장에서 농사^⑤를 짓는 사람들, 요란하게 부릉거리는 오토바이 여행자,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최북단인 소야(宗谷) 곳을 향했다. 예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호텔이

아니고 버스 정류소나 개간^⑥되지 않은 황무지에서 텐트를 치거나“라이더 하우스”에서 투숙하기도 했다. 라이더 하우스는 주로 자전거/오토바이/도보 여행자들에게 제공되는 간이숙박시설로, 무료 또는 500 엔 정도로 투숙할 수 있다.

저녁에 고달픈^⑦ 몸으로 라이더하우스로 들어가, 거기서 만난 여행객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물론 도로 상황이나 관광지가 주된^⑧ 애깃거리이지만, 때로는 연애, 가족문제, 국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으로

소야(宗谷) 곳에 도착했을 때는 가슴^⑨이 뿌듯한 반면 여기서의 매력에 이끌려서 “함흥차사^⑩”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이 번에 필자는 20 년만에 다시 북해도를 방문했다. 물론 자전거 핸들 대신에 렌터카의 자동변속기^⑪를 손에 잡고, 라이더하우스 대신에 호텔에 투숙했는데,

호텔에서 묵는 고마움^⑫을 뼈저리게 느꼈다. 여행중 20 년 전의 자기자신과 같이

짐을 실은 산악자전거^⑬를 보았을 때는 추억에 잠겼다.

北海道三大観光地

일본 국토 면적의 21%를 차지하는 북해도는 일본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관광지의 하나이다. 유제품의 광고에 등장하는 북해도는 넓은 목장에서 무리를 지어 풀을 뜯고 있는 소와 말, 또 여행사의 광고에서는 백색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는 젊은이 등, 아무튼 대자연이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일 것이다.

또 사람들 성격도 다른 지역과 많이 다르다. 개척 시대의 기상이 살아있는 곳이며,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식으로 개척해 온 의식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개척자정신”이다.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고향의 도움을 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 그대로, 정착민끼리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이러한 북해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관광지가 삿포로시이다. 몸에 사무치는 추위가 석 달 내지는 넉 달이나 계속되기 때문에 봄이 오기를 학수고대는 북해도에서 겨울의 즐거움이라면 역시 삿포로시 중심부에 300 개 이상의 얼음조각이 전시되는 눈축제이다. 엄동설한의 기나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토끼풀이 상쾌한 바람에 흔들리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된다. 삿포로의 상징적 건물인 빨간 벽돌로 지어진 북해도 도청과 대형시계가 설치된 하얀 종루도 이 공원 근처에 있다.

두번째는 북해도 중심부 아사히카와시에 위치한 아사히야마 (旭山) 동물원이다. 여기서 조련사는 없지만 동물들의 본능을 발휘시키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여름에는 일본에서 가장 방문자가 많은 동물원이 되는데, 그들이 노력한 보람이 있어 겨울에도 그다지 입장객이 줄지는 않는다. 필자가 동물원의 성공에 관해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직원은 “처음에는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그건 다 기우에 불과했어요. 요즘은 각지에서 곰이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밭에 피해를 준다. 는 소식도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 동물원에 오신

것을 계기로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느껴 주셨으면 합니다.”고 대답했다.

세번째는 북해도동부, “대지의 끝”이며 유빙의 남측 경계지역인 세계유산 시레토코(知床)이다. 시레토코의 남벌의 피해에서 벗어나 남아있는 울창한 숲에는 각종 동물이 서식하며, 가을에는 연어와 송어류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온다. 19세기 말에는 한치 앞 밖에 못 보는 밀렵꾼들의 남획으로 인해 늑대 등 귀중한 동물들이 멸종했다. 하지만 지금도 시베리아에서 건너오는 철새와 세계 최대의 올빼미 등 희귀한 맹금류, 그리고 수많은 바닷새를, 그리고 바다에서는 바다표범과 바다사자, 물개 등의 바다동물들의 무리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북해도의 진면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시레토코가 아닌가 하다.

アイヌ民族の自然観

아이누민족은 오늘날의 북해도를 중심으로 사는 선주민족이다. “아이누”는 “카무이” 즉 성스러운 존재와 대비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아이누어에서 비롯되었다. 아이누민족들과 자연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 자연에 대해 외경심을 갖는 생활방식은 일본인의 고유신앙 “신도”와도 공통점이 많다. 북해도의 울창한 삼림이나 큰 나무는 신이 깃들여 있는 성스러운 자리라고 우러러 받들어 왔다. 또 인간이 죽으면 그 넋은 저승으로 들어가 영원히 혼이 되는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사물의 범주는 아주 넓고 나무·산·강·해·달·별·물·동물 등 다양하다.

모든 것에 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누민족은 소위 “아나바다”운동을 당연한 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신에게서 받은 물건을 아껴쓰지 않는 것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행위이며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고, 이러한 점에서도 일본본토의 신도와도 아주 비슷하다.

자연은 인간에게 선물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생활주변의 만물을 신으로 여기고 제물을 바친다. 예를 들면 곰이 마을에 나타나면 그것을 생포하지만, 신으로 “모신” 후, 신이 주신 은혜로서 고기는 식량으로, 곁이 좋은 털은 모피로, 웅담은 약으로 남김없이 이용했다. 또 연어도 잡은 후 간이 밴 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가족까지 훈제로 만들고 끝까지 먹는다. 그 때는 “죽이다”는 말을 쓰지 않고 저승으로 “보내다”고 하며, “보내기” 전에 고기와 모피, 그리고 약을 주신 신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의식을 올린다.

이렇게 삼림을 비롯한 자연은 사람들의 생활과 생업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의식이 싹트면서 삼림을 지키면서 다양한 은혜를 대대손손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생겼다. 이러한 자연관을 영원히 간직하는 사람이야말로 말로 마음의 부자이기도 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재인식되고 있다.

アイヌ文化

아이누민족은 독자적인 아이누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어로 쓰는 사람은 매우 적고 민족언어를 보호하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이다. 오랫동안 그들을 문화나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지 못한 야만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누민족은 태양의 아이들이 오기 10 만 년 전에 이 곳에 살았다.”고 설명해주는 구전문학인 “유카라”가 오랫동안 암송되어 왔다. 조상들의 가치관이 바래지 않도록 지금도 유카라를 배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현대일본인과 많이 다르다. 사회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일본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거나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대꾸하기보다는 먼저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은근히 암묵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일을 복잡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한다. 하지만 아이누민족들은 숨기지 않고 서로

맞대여 확실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 에도시대에는 북해도 남쪽의 마쓰마에(松前) 씨가 아이누민족과 그 땅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되^⑦로 주고 말로 받는” 식으로 이익을 차지하던 마쓰마에의 무역시스템이 지나쳤기 때문에 막부^⑧의 압력에 대해 아이누민족 모두가 항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여, 명치시대에는 일본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치시대 이후 “산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것은 야만스럽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민족의 관례나 축제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얼굴의 문신이나 그들의 독특한 소용돌이무늬의 겔옷, 남녀 한쌍의 “니포포” 라는 장승처럼 생긴 나무조각조차 문명사회에 뒤진다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억^⑩지로 “문명화”시킨 시대가 100년 이상 계속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누민족 가운데에서도 조상^⑫들의 문화를 폄하하지 말고 전통문화로서 보아야 한다는 기운이 생겨났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소수민족이 없는 단일민족국가이다”식의 단일민족^⑬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공공연히 주장하는 정계인들도 많다.

그 때 아이누민족의 성지인 니부타니(二風谷)에서 댐^⑭과 인공호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누민족 출신의 국회의원^⑮이자 아이누문화에 관한 만물박사 가야노(萱野) 씨 등이 동분서주한 결과 댐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아이누민족박물관도 건설하기로 되었다. 또 아이누민족들을 북해도의 “선주민족^⑯”으로 인정하라는 이슈가 거론되어, 활발한 활동의 결과 2008년 국회가 그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로 돌려버리지 말고, 그 실수를 거울 삼아 앞으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夕張

북해도는 각종 영화의 무대로서 유명하다. 특히 1970년대 일본 영화계의 거장^⑰

야마다 요지 (山田洋二) 감독의 작품 “행복의 노란 손수건”은 매일 악착같이 일만 하는 단조로운 도시생활에 실증이 나서 북해도를 방랑하던 중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식으로 여행지에서 만난 여자에 접근하려고 하는 남자와 강요를 받아 곤란한 여자, 그리고 교도소^③를 출감한 후 아내가 사는 유바리로 향하는 “과거가 있는” 사나이 등, 많은 종류의 사랑과 돈독해지는 우정으로 크게 히트했다.

삿포로에서 자동차로 90 분 동쪽에 가면 근대일본을 이끈 탄광 도시, 유바리 (夕張) 시다. 석탄이 주요 에너지였던 1960 년대까지 경기가 좋았던 유바리에서 한 뭇을 잡으려고 야심치게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상기한 영화의 주인공도 그 시대에 유바리에 온 큐슈사람이며, 시내에는 촬영지가 연고지^⑤로서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60 년대에 정부가 석유 및 전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광업과 메론재배 밖에 없던 유바리시를 떠나는 사람이 급증했다. 시는 석탄박물관, 스키장, 래프팅 코스 등 인구에 비하여 너무 규모가 큰 관광시설을 개발하여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했는데 방문자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의 각종 시설은 모두 파리를 날리는 상태이며 “가랑비에 옷젖는 줄 모른다” 식으로 재정상태가 악화했다. 이 들 대규모 관광시설의 건설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어 급기야는 2006 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재정이 파탄되었다. 재정파탄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국내판 IMF”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 유바리시는 시내의 이벤트를 개최할 때도 일본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었다. 그 결과 60 년대에 12 만명 있었던 인구도 1 만 명이하로 되어 버렸다.

필자는 2013 년 “재정파탄”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는 유바리시를 방문했다. 먼저 석탄 박물관에 들어가자 1200 엔이라는 그 입장료에 놀랐다. 보통 공립박물관 입장료의 2~6 배이다. 가이드 면허증을 제시해도 유료라고 한다.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관내는 리모델링도 되어 있지 않았다. 재정이 파탄되면 시립시설의 입장료금도 올라가는 것을 실감했다. 또 다른 몇 군데도 가봤지만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유바리 역 앞에 있던 지자체의 캐릭터 “유바리 부처”였다. 일본어로 “부처(夫妻)”와 “부채(負債)”의 발음이 똑 같다. 유바리 명물인 메론 얼굴을 한 부부가 리어카를 끌고 있는 그 모습은 다른 지자체의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많이 달랐는데, 파탄¹²이 실감날 뿐만 아니라 본의가 아닌 “몸개그”에 오히려 유머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유바리시를 방문하여 “타산지석¹³”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균형¹⁴이 맞지 않은 시설이 많으면 지자체의 자율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것은 “강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유바리시는 알려 준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⑪食文化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魚中心の料理

3000년전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 후 중국과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함께 수수, 피, 조 등을 수확하는 문화가 유입되어, 생활양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불교가 전래된 7~8 세기에 역대 천황들은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육식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려, 궁중의 숙수들도 짐승의 고기는 조리하지 않았다. 불교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신앙에서도 새와 토끼, 멧돼지 등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으로 여겼다. 그 후 일반백성까지 육식을 금지했다.

오리나 참새, 메추라기 등 야생조류는 먹었지만 신의 사자로 여겨지는 닭고기와 달걀은 15세기까지는 먹지 않았다. 그 후 토종닭, 특히 수탉은 식용으로, 암탉은 그 알로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먹게 되었다. 또 지금 술집에서 없어서는 안될 간, 염통, 천엽 등, 고기의 내장을 구운 닭꼬치는 20 세기가 되면서 마침내 보급된 것이다.

육류 대신에 생선요리가 고급반찬으로 여겨져 왔다. 해면을 날아다니는 날치에서 민물생선인 망둥이나 메기까지, 일본인들은 모두 식용으로 했다. 한편 퀘변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동물학적으로는 포유류에 속하는 고래는 거대한 생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먹어도 지장이 없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고래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일본각지에 고래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경사스러운 날에 먹는 해산물이라면 역시 도미와 바닷가재, 그리고 피조개이다. 그 가운데에도 일본어로 “경사스럽다”는 뜻인 도미는 인기가 있고, 일본인들은 “씩어도 준치”에 해당하는 관용어를 “씩어도 도미”라고 할 정도이다.

또 바닷가재는 그 모양이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장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산물의 공통점은 빨간색이라는 것이다. 홍백이 경사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도시락에도 해산물을 넣는다. 특히 기차로 여행하는 여행객이 가장 좋아하는 것의 하나가 전철역 매점이나 기차안에서 판매되는 각지방의 명물 도시락이다. 지방마다 다른 요리를 맛볼수 있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할까, 도시락 목적으로 기차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를 들면 이와테현 산리쿠 앞바다는 성게, 대구, 아귀, 가리비 등 어패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성게도시락”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일본의 식문화와 관계가 깊은 생선인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구운 생선이다. 한국이라면 뜨거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굽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부엌용 가스스테이블에는 보통 생선구이 전용 그릴이 들어 있기 때문에 머리와 지느러미, 아가미를 벗겨서 구운 고등어자반, 배를 가르고 칼집을 낸 후 구운 간간한 공치 등, 계절마다의 생선 요리를 먹는 것이다.

生の料理

전통 일본요리의 철학에서는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바꿔 말하면 “요리를 지나치게 가공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일본요리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숙주나물이나 누에콩, 풋콩 등 콩 종류도 그대로 삶아서 먹는 경우가 많다.

조리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요리가 회이다. 익히지 않은 생선을 잘라 간장과 “와사비”를 찍어 먹는 회를 먹을 때에 중요한 것은 첫째도 신선함, 둘째도 신선함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인은 요리기술의 좋고 나쁨보다 신선함을

최우선시한다. 그러므로 유통^⑦기한 전이라면 날계란조차 흰 자위와 노란 자위를 섞어 밥위에 올려 그대로 먹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신토불이 (身土不二)”에 해당하는 단어인 “지산지소 (地產地消)”는 신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준다. 즉 각 지방에서 신선도가 높은 제철 요리를 먹는 것이 미식가의 기본이다. 신선함과 계절감을 중시하는 것이 전통 일본요리이다.

洋食

현재 일본인들은 일식만 먹고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양식, 중화요리 등도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다. 일본인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은 명치시대 당시 일본인들의 체격이 왜소했기 때문에, 정부가 전통적인 식생활에 결여되어 있던 육식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에 유래된다. 이런 식으로 육식을 중심으로 한 양식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쌀밥^②에 맞도록 간을 바꾸고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변형시킨 것이다.

또 간장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우스터소스를 서양의 간장으로 여겨, 크로켓^③, 커틀릿 등 일본화된 튀김요리에 우스터소스를 뿌렸고, 된장국 대신에 걸쭉한 콘스프나 스투를 먹기도 했다. 오늘날도 일본가정의 식탁위에는 거의 다 간장과 우스터소스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양식은 본고장의 서양요리와 달리 일본화된 새로운 일본요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돼지고기^④에 빵가루를 묻혀 튀겨서 덮밥으로 만든 돈가스덮밥도, 빵 속에 팔소를 넣어 만든 팔빵도 그 예이다. 일본문화는 해외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변형시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문화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세계화^⑤”현상은 요리에도 해당된다.

食器へのこだわり

한국과 달리 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전통적인 일본의 식사방법이다. 또 다양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밥그릇^①의 경우 여름에는 손끝에 상큼한 느낌을 주는 자기를, 겨울에는 손에 따뜻한 감촉을 주는 도기를 구분해서 사용함으로써 나름대로 분위기를 살리기도 했다. 식사할 때는 물론

집에서 커피나 차를 마실 때에도 분위기에 맞는 컵받침^②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 젓가락을 쓸 때 일본에는 특수한 습관이 있다. 먼저 일본에서는 가족 사이에도 각자가 자기 자신의 젓가락을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젓가락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각자가 따로따로 쓰는 옷칠을 한 젓가락과 요리를 만들 때나 반찬을 각각의 접시에 덜어 먹을 때 쓰는 긴 젓가락이다. 여럿이 같이 먹는 음식을 자기 젓가락으로 직접 덜어내는 것은 매너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각 반찬의 식기 위에 놓여 있는 긴 젓가락으로 덜어 먹는다. 또 젓가락은 엄지와 집게손가락, 그리고 가운데손가락만을 이용하며, 밥이나 국을 먹을 때도 손가락은 별로 쓰지 않는다.

또 옛부터 일본에서는 흘수를 행운의 숫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릇에 담은 식재의 기본 숫자도 흘수로 한다. 이와 같이 일본요리에서는 먹는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보기에는 참으로 사소한 일에 구애받는 것처럼 보인다. 얼핏 보면 식기의 크기가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그 목적에 알맞는 크기의 식기를 골라쓰는 것도 일본요리의 특징이다.

医食同源

일본인들이 지금과 같이 병이 들면 병원에 가거나 약사가 처방해 주는 가루약이나 알약, 항생제를 먹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 였다. 그 전에는 주로 탕약을 먹거나 부처님의 가호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병들지 않도록 자라 등, 먹는 음식 그 자체를 “보약”으로 여겨왔다. 자라 외에 보약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여름의 가장 덥고 습도가 높은 날에 먹는 장어구이가 있다. 한국인이란 삼계탕을 먹고 싶어 하는 날인데, 일본인들은 이런 때 일수록, 영양가가 높은 장어구이를 먹고 싶어 한다. 특히 복날에는 달콤한 간장양념에 담궈 두었던 장어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길가에 진동하고 장어구이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룬다. 그 밖에도 전통적인 일본 가정요리는 영양의 보고이다. 예를 들면

일본인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된장국에는 신장결석을 막아 주고 “발모제”의 역할도 하는 미역이 들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두부, 즉 콩은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식품이며, 임신중인 여성의 입덧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유방암이나 지주막하출혈까지 막아 준다. 해초류의 한가지인 톳도 여성에게 좋아,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막아 주고, 변비해소의 좋은 약이 되기도 한다. 또 명란젓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 주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매실주는 피로회복의 좋은 약이다. 기침이나 가래 등 가벼운 감기에는 꿀이 효과적이다.

그래도 몸이 안좋을 경우에는 소화되기 쉬운 죽이나 미음을 먹는다. 일본의 어머니들은 젖병에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마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유식으로 위에 부담 없는 미음도 먹인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쌀밥과 된장국, 야채, 해초류, 그리고 생선 등 몸에 좋은 식재를 균형있게 먹는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날마다 조금씩 약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을 지켜주고, 또 배에 붙은 군살을 빼 준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80 세, 여성 86 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 일본에서도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오키나와에는 “양약고구”, 즉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는 말 그대로 동남아 원산의 “쓴 오이 여주”를 잘 먹는다.

이것이야말로 “약식동원”이라는 사상인 것이다.

장수하는 일본인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식생활이다. 일본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된장과 두부, 생청국장, 유부 등 대두 식품도 장수하는 식생활의 비결이다. 대두는 육류에 맞먹을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이 35%나 함유되어 있다. 또한 대두를 발효시켜 만든 생청국장에는 실처럼 끈적끈적거리는 혈전을 막아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같은 가다랑이포를 우려내어 만든 된장국에는 야채와

두부, 해조류 등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²¹가 풍부한 식품이다. 또 반찬으로 자주 나오는 생선에는 피를 맑게 해 주는 효과²²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한 때는 영양풍부한 양식이 몸에 좋다고 생각되었지만 이와 같이 일식은 바로 항노화, 또는 불로장생을 위한 각종 성분의 보고라고 재인식²³되어 있다.

京料理

교토의 먹거리를 파는 곳으로는 니시키(錦)시장이 유명하다. 동서로 약 390m에 이르는 대로변에 표고버섯과 메추리알, 재첩 등의 조림, 순무나 마 등의 청과¹, 등 약 130 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고르기 힘들 정도로 먹거리 모두가 먹음직스럽다. 설문조사³를 한 바 일본인관광객 가운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반찬은 죽순이다. 교토 죽순은 아린 맛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뿌리부분이나 끝부분을 통째로 덩석 깨물면 입 속으로 싸하게 풍기는 독특한 향기를 머금은 죽순즙이 맛있어 과식할 정도이다. 또 입가심⁶으로는 두부 한 모를 다시마로 끓이고 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다.

선종사원을 참배한 후는 사찰요리⁷, 즉 고기를 못 먹었던 승려와 여승을 위해 만든 야채나 두부만을 이용한 요리를 먹는 것도 비일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신선한 교토의 야채를 소금과 조미료에 절인 장아찌 또는 두유를 끓일 때 생기는⁸ 얇은 막인 “유바”, 밀의 단백질을 정제해 반죽한 “후” 등 교토만의 독특한 식재료가 풍부하다.

おでんと飲み屋

생선을 중심으로 한 일식중에 보존식으로 만든 것이 어묵이다. 일본인들은 경사스러운 날에 홍백색의 어묵을 자주 먹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먹는 게맛살¹도 어묵의 한 가지이다. 그 밖에도 겨울에 자주 먹는 오뎅에도 빠져서는 안될 식재료이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있는 오뎅의 건더기라면

“무우”, 두번째는 “계란”이었다. 한국^②에서는 무우나 계란은 오뎅 건더기의 범주에 없고 느낌이 그다지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 “오뎅^③이라면 그냥 오뎅뿐만이 아니라 무우나 당근, 두부와 유부 등을 뭉근한 불로 지글지글 끓인 음식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묵이 없으면 원가가^④ 허전해진다.

오뎅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지만 밤에는 포장마차나 술집에서 먹는 것도 좋다. 벌컥벌컥 미친 듯이 원샷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적어졌지만 “취중진담^⑤”이라고 할까, “자작은 안됩니다.”, “자, 부어라” 등, 낮에는 상하관계가 엄격한 샐러리맨들도 밤의 포장마차에서는 “야, 자”타임이 되는 것도 재미있다.

그럴 때 속이^⑥ 더부룩하지 않도록 먹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장시간 국물에^⑦ 끓여서 말랑말랑해진 두부와 무우일 것이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⑫温泉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温泉旅館

“온천대국”의 일본인들은 온천에 관해서 “일가견”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겨울마다 온천에 꼭 가고 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자기자신에 대한 “포상”으로 “이번 겨울은 어느 온천에서 기분전환을 할까”하고 가족들과 의논한다. 전에는 여관, 식사, 교통편 등 여행사가 치밀하게 수배를 하고 모집해서 각 온천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였지만,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숙소를 잡을 때는 대폭할인된 가격의 쿠폰을 입수하여, 그 것을 출력해서 직접 여관에 제시하는 이용자들도 많아졌다. 그러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각종 SNS 사이트를 개설하고 팔로워들의 입소문도 잘 이용하여 조회수도 매출액도 급상승하고 있는 여관도 적지 않다.

일본 온천여관은 호텔이나 한국의 “장여관”과 달리 숙박요금에 저녁과 아침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옛날에 “여관”이라는 장소가 연회장을 이용하는 손님만을 묵게 했다는 사실에 유래된다. 또 온천여관에서는 “입탕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전통식 여관의 포렴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단아한 여성이 흔쾌하게 맞이해 준다. 그 사람이 세심한 배려로 여관전체를 꾸려 나가는 여주인이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마친 후 불임성 있는接客 담당자 “나카이(仲居)”의 안내로 방으로 향한다. 소위 “VIP 예우”까지는 못미치더라도, 고급호텔에 못지 않는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방에서 쉬고 있으면 종업원이 차를 끓여 준다. 차에는 대개 그 지역특산의

일본전통 과자가 곁들여 나오는데 야채절임, 짭짤한 조림 등이 나올 때도 있다.

욕실에 갈 때는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거드랑이에 끼고, 면으로 만든 가운을 갈아입고 가는 것이 좋다. 온천물로 달아오른 몸에 무명의 옷감이 닿는 촉감이 좋기 때문이다. 쌀쌀한 계절에는 온천물로 덮혀진 몸이 식지 않도록 면의 가운과 함께 착용감이 좋은 겹옷을 걸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온천여관에 숙박할 때는 대개 아무데도 가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온천물에 들어간다. 온천물이 몸에 안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하루에 너댓 번씩이나 들어가고 싶지만, “과유불급 (過猶不及)”,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현기증이 나기 전에 나오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아도 건강을 해치면 헛고생이 된다.

식사는 방안에서 할 수도 있고, 일식의 코스요리 등 그 지방마다의 맛을 볼 수 있다. 가운을 입고 방석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밥상에 놓여진 향토요리를 먹는 것도 아주 신기한 체험이다. 온천에서 방으로 올라가서 식사가 끝난 후는 마을을 산책하러 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

나카이는 손님이 “출타중”인 것을 확인 하여, 저녁상을 치우고 이불을 깔아놓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코를 쿵쿵 골며 잠을 잘 수 있다. 흠뻑 땀을 흘리며 편하고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온천은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草津温泉

일본의 온천지는 약 3000 군데 있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손님이 줄어서 유령도시와 같이 거의 문을 닫은 온천마을도 적지 않다. 앞으로의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온천도 많은데 한편 손님이 꾸준히 찾아 오는 온천도 있다.

그 중에서 동경 북쪽에 위치한 군마 (群馬) 현 구사쓰 (草津)만큼 “온천 인기 순위”에서 계속해서 정상을 지키며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독보적인 온천은 없을 것이다.

필자가 처음 구사쓰 온천에 간 것은 어느 8 월이었다. 버스가 마을 중심에 도착하자 물이 떨어지는 큰 소리가 마을 전체에 메아리처럼 울린다. 여기는 온천물 온도가 56℃이기 때문에 그대로 온천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찬 물을 섞지 않고 큰 물받이에서 폭포처럼 물을 떨어트려 기모노를 입은 여성 들이 민요에 맞춰 2m 길이의 나뭇판으로 뜨거운 물을 저으면서 식힌다. 평화스러움이 넘쳐 흐르는 마을에서는 숙박객들이 삼삼오오 싱그러운 비누 냄새를 풍기면서 모여 거닐고 있다.

여기는 옛부터 특히 약효가 높아, 발목이나 손가락을 삐었을 때, 혹은 탈구를 했을 때 파스도 기브스도 없던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다래끼, 여드름, 부스럼, 가벼운 동상 등 피부병으로부터 찰과상, 베인 상처 등 외상, 그리고 천식, 위궤양, 류마티즘 등 통증에까지 효험이 있다. 필자가 온천에서 만난 남성은 사고로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 걷기 힘들었는데, 여기서 4 일동안 온천치료를 한 결과 잘 못 걸던 다리도 쾌유했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구사쓰의 온천을 발견한 사람은 8 세기경의 승려인 교키(行基)라고도 한다. 한방의에 정통한 스님과 “불로초” 역할을 하는 온천을 결부시킨 설화가 생겨난 것도 이해가 간다.

그 날 필자가 투숙한 역새지붕을 한 여관의 덧문이 설치되어 있는 방 가운데에서 모닥불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화로장치에서 불을 쬐어 몸을 녹일 수도 있었다. 여관에 도착한 10 분 후 입욕을 하러 갔다. 몇 분동안 입욕을 하기만 해도 심장이 뛰는 소리를 온몸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또 음이온으로 가득찬 산 속에서 밤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노천탕에 들어가면 시간의 흐름이 더디게 느껴진다. 햇살이 젓빛유리를 통해 비추고, 흥이 나서 흥얼거리는 사람도 있다. 욕조에서 나온 후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뿐해짐을 느낄 수 있다.

아내는 입욕한 후 화장을 하면 피부에 잘 스며들 듯이 화장발이 잘 받는다. 라고 여관의 종업원에게 수질에 대해 찬사를 보내자 종업원은 웃으며 “그런말을 자주 들어요.”라고 약간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 종업원은 온천에 오기 전에는 안색이 좋지 않았던 사람도 한번 온천욕을 한 후 자고 나면 피부에 윤기가 돈다고 한다. 그래서 숙환을 가진 환자나 재활요법 목적으로 와서 심지어 석 달정도까지 느긋하게 요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경우에도 합방형식으로 자취하면 하루 2000 엔으로 숙박과 24 시간 온천 입욕을 이용할 수 있는 여인숙도 많이 있다. 또 이렇게 좋은 물인데 누구라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온천시설까지 있다. 필자도 방방곡곡의 온천을 다녀 봤지만 여러 조건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역시 구사쓰가 제일이다.

温泉と文学

일본문학에는 온천을 무대로 한 작품이 많다. 예를 들어 8세기 초엽의 신화에도 온천을 발견한 신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여 후세에도 농사나 돈벌이에 안달했던 서민들도 그럴듯한 구실을 꾸며내어, 너도 나도 온천여행을 갔다가 그 기록을 문학작품으로 남기로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각지의 온천으로 무대로 쓰여진 명작이 등장했다. 먼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붓짱”은 시고쿠(四國) 지방의 도고(道後)온천을 무대로 그린 청춘소설이며, 지금도 주인공 붓짱이 사랑했다는 도고온천 본관에는 아침의 입욕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

또 신격화된 소설가 시가 나오야(志賀直哉)는 1917년 효고현 키노사키(城崎) 온천을 무대로 교통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어 온천요법을 하러 온 이야기 “키노사키에서”를 발표했다. 거기서 재미삼아 영원에게 돌을 던져서 죽인 것에 대한 번민을 갖게 되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찰하는 소설이다.

소세키와 나오야도 유명하려니와 “온천문학”이라면 노벨문학상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川端康成) 도 좋다. 1926 년에 발표된 “이즈 (伊豆) 의 무희”는 자괴감에 빠진 내성적인 남학생이 악기를 등에 지고 시즈오카현 이즈반도 각지의 온천지에서 연주하는 남사당 일행의 가녀린 소녀를 사랑하는 이야기이다. 그 직업에 대한 편견때문에 기죽어 지내며 비참한 환경에 놓여있는 처지였지만 그 소녀는 어둡지도 풀이 죽어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유층에 속하여 나이값도 못하고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남학생이야말로 평상시 친구와도 잘 사귀지 못하는 유치한 존재였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긴 머리의 그 소녀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배를 탄 후, 순진한 그 남학생은 눈물을 흘린다. 비뚤어지기만 하던 남학생이 인간의 정에 대해 뭔가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이즈 반도 각 온천지에는 이 소설에 연관된 장소가 많다.

마지막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카와바타의 명작 “설국”이다. “남남북녀” 라는 말은 일본에도 해당되는데, 여자는 북쪽이야 말로 피부가 고운 미인이 많기로 유명하다. 동경의 문학 평론가가 북쪽 니이가타 (新潟) 현의 온천지에서 날씬한 몸매의 춤꾼, 즉 여주인공을 자기 방에 재웠다. 그것을 계기로 조금 수상한 유부남과 가끔은 울먹이지만 착한 춤꾼과의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온천지와 눈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근대문학은 왜 이렇게 온천지를 무대로 그린 작품이 많은가? 문학자들이 작품을 쓸 때 온천지에 가서 썼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이지만, 온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평상시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비밀상적인 틈새이다. 온천욕 그 자체는 상처나 병을 치유해 준다는 실리적 목적 뿐만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도회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이기도 한다. 온천욕을 한 후는 방에서 선잠을 자는 등 지내는 사람도 많지만 이것도 “무용지용”이라고 할까, 고민이나 정신적인 피로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강요하지않고, 있는 그대로

나른해지면서 재생시키는 장소야 말로 온천지이다.

“재생”이라면 1960~70 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 당시에는 하나의 일을 마무리하면
“단합 대회”의 일환으로 온천에 갔다. 어깨가 걸리기 쉬운 경제발전의 일꾼들 을
 재생시킨 것도 온천이었던 것이다. 일본 온천은 그냥 즐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재생장치”로써의 역할도 이해하면 한층 더 온천과 일본
 문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入浴前のアナウンス

처음 일본의 온천을 체험하는 분들께 즐겁고 기분좋게 입욕을 하실 수 있도록,
 입욕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욕실에 가기 전에 객실에 준비되어 있는 “유카타”, 즉 면으로 만든 가운을
걸친 후, 신발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욕실에 가시기 바랍니다. 귀중품은 객실안의
 금고에 보관하십시오. 샴푸나 린스, 헤어드라이기 등은 가져 가지지 않아도
 욕실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남탕과 여탕을 확인 하신 후
 들어 가세요. 오늘과 내일은 남탕과 여탕이 교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빨간색
여탕, 파랑색은 남탕으로 기억하십시오.

탈의실 안의 락커는 자물쇠가 없이 옷을 담을 바구니가 놓여 있는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락이 긴 손님께서는 고무밴드로 묶은 후 욕실에
 들어가십시오.

욕조에는 몸과 얼굴을 깨끗이 비누로 씻고나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건은 탕 속에 담그지 마세요. 일본에서는 온천에서 때를 미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때밀이타올로 때를 밀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방에
 돌아가실 때는 속옷을 입으신 후 유카타를 걸쳐 주십시오. 남탕, 여탕의 식별방법,
 때미는 습관, 그리고 유카타를 입는 것 외에는 한국과 별로 다른 점이 없으므로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온천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⑬建築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伊勢神宮と式年遷宮

일본 신화에서 한국의 ① “단군”에 해당하는 건국신으로서 외경심을 갖고 우러러 받드는 신은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天照)이다.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미에현 이세신궁은 넓은 원시림 안에 있다. 필자가 이세신궁을 참배한 12 월말, 숲 속을 도도하게 ② 흐르는 차갑고 맑은 강은 신심을 정화시켜줄 것만 같았다. 신사 입구에서 30 분 정도 걸어가면 가식적인 ③ 장식을 하지 않는 통나무집과 같이 생긴 건물 이 나타났다. 그것이 일본에서 가장 신격화되어 있는 이세신사 신전이다.

7 세기에 지어진 신전은 20년에 한 번씩 본래의 ④ 형태대로 고스란히 다시 짓는다. 그것은 한 ⑤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건설에 종사하는 목공들은 공정을 상세히 보아왔기 때문에, 그 제작 기술은 그 옛날 1300 년 전과 다름없이 계승되어 왔다고 한다. 공정에서는 구멍을 ⑥ 뚫을 때도 드릴이 아니고 송곳을 사용할 정도로 전통적인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건축계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민의 ⑦ 이목을 끈다.

7 세기 당시 이미 사찰 등 대규모 건축 기술이 전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신사의 건축법은 대륙문화가 유입되기 전의 구시대의 건축양식이다. 이것은 외래문화가 들어오기 전의 고유한 신전이야 말로 민족의 조상인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장소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탓인것 같다. 바꿔 말하면 선진적인 대륙문명을 도입하면서도 순수한 ⑧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여, 잊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구시대의 신전은 20 년이 지나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20 년마다 새롭게 ⑨ 단장한 신전에서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 극진한 예를 갖추어 제사를 거행한다. 이를 “식년천궁 (式年遷宮)”이라고 하는데, 그 날은 아마테라스를 ⑩ 이세 땅에 모시게 된 감격을 되새기며 기원한다.

法隆寺五重塔

7 세기에 지어진 나라현 법륭사(法隆寺)는 백제나 수나라 등 뿐만이 아니라 인도양식의 벽화, 그리스의 배흘림 기둥 등, 세계 각국의 양식을 받아들인 종합적인 건축군이다. 하지만 선진적인 외국의 영향이 아닌 일본 특유의 건축기술도 생겨났다. 그것이 일본에서 생활할 때 피할 수 없는 지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진 설계”의 기술이며, 그것이 가장 잘 활용된 건축물은 높이 32 미터의 오층탑, 즉 불탑이다. “길고 짧은 것은 대 보아야 안다”고는 하지만, “지진 대국” 일본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이 다름아닌 법륭사 오층탑이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 비밀은 우선 그 재료에 있다. 한반도의 불탑은 석탑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의 불탑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나무라는 재료의 유연성이 지진으로 인해 가해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나무에 구멍을 판 뒤 대패질을 해서 조절한 다른 나무의 돌기와 맞도록 만들어 끼우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그 결과 지진발생시도 탑이 넘어지지 않고 결합부위가 삐걱거릴 뿐이다. 또 흔들릴 때도 각 층이 괘종의 추와 같이 중심을 잡아 엇갈리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기와는 떨어질지 모르나 탑 그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옛부터 일본땅에 살던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교육지책으로 그러한 조건을 헤쳐 나가면서 오층탑은 자연현상에 대처하여 사람들이 가진 모든 힘과 지혜를 결집한 건축이 되었다.

법륭사 오층탑이 지어진 1300 년후, “온고지신”의 정신을 기초로, 이 구조를 응용한 것이 도쿄스카이트리이다.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동경은 진도 5 를 기록했지만 도쿄스카이트리의 지상 600 미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작업원들은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었다. 1300 년 전의 예지를 결집시킨 건축기술이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姫路城と天守

성은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보루나 요새에서 기원하는데, 현재 각지에 남아 있는 성들은 “전국시대(15세기 중엽~16세기)”에 각지의 영주가 군사적 거점으로서 농성할 때 쉽게 함락되지 않도록 축조한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인에 있어서 “성”의 이미지는 성문이 으리으리한 수원 화성과 같은 성과는 상당히 다른데, 먼저 “천수각(天守閣)”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천수각”이란 본성 중앙에 세운 망루를 가리킨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망대와 사령탑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로 영주의 위엄을 나타내는, 이른바 상징적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관은 물론 내부장식에도 상당히 치중하게 되었다.

에도시대 말기까지는 백 동 가량의 천수각이 존재했는데,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리고 명치시대에 들어와서는 방치되고, 파괴되기도 하여, 현재는 여러가지 재난을 피한 천수각은 합쳐서 12동 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 가운데 에도시대의 모습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성은 효고현 히메지성인데, 일본최초의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이 성을 돌아보면 성이라는 것이 그저 약동적인 조형미를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목적으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주가 정사를 보았던 중심부를 에워싸듯이 이중의 바깥성이 나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해자 안쪽에는 성의 정문인 오테문(大手門)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문이 있다. 이곳에서 본성까지 가는 경로는 상당히 복잡하다. 통로를 따라가면 막다른 길이거나 심하게 굽어져 있어, 가면 갈수록 천수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통로도 있고, 복잡하기가 이룰데 없다. 또 흰 회반죽으로 바른 성벽에는 작은 창이 나 있는데, 그 것은 총포를 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은 문화재이기 전에 요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관광객 가운데에서 특히 인기있는 기념물은 절취선에 맞춰서 잘라내고 폴로 접착시키는

종이로 만드는 성 모형인데, 그것으로 “평화롭게” 축성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戦後の天守

“천수각”이라는 망루를 갖춘 성들은 일본각지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 대부분은 1950년대 이후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전쟁중인 1945년 여름 세 달 동안에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7동의 천수각이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불타서 파괴된 것에 기인된다. 도성 안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민들에게는 “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 혹은 “루저마인드”를 갖게 했다.

일본의 경제 부흥이 시작된 1957-58년, 나고야, 히로시마, 와카야마 등 각시에서는 “복구”라는 이름을 걸고 시민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공습으로 파괴된 천수각을 재건한 것이었다. 즉 절망해 있던 패전국민들에게 “백절불굴”의 정신을 갖게 함과 동시에 전쟁을 다시 겪게 하지 않도록 명심하게 하는 존재로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성이나 천수각이 없던 마을의 주민들도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원래 없던 천수각을 세우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들은 고령자에 배려한 구조로 승강기를 설치한 콘크리트 건축으로 지었다. 이 사실도 천수각이라는 것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시민들의 용기를 복돋는 존재 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편 단순히 관광목적으로 역사적인 고증도 학술적인 검증도 없이 지은 천수각도 증가했기 때문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 시민들, 그리고 성곽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보다 못해 더 큰 맥락에서 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목조로 지을 수 있는 경우에만 천수각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에도시대는 요새 겸 권력의 상징, 명치시대는 구시대적인 잔재, 2차대전시는 미군의 공격 대상, 대전후는 부흥의 상징, 현재는 학술적인 대상으로, 그 시점은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천수각이 일본인에게 특별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江戸城

현재는 “황궁”으로 알려져 있는 구 에도성은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성이었다. 에도성은 16 세기 말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徳川家康)가 관동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에도, 즉 현재의 동경에 들어온 것에 시작되었다. 그 후 정적이었던 풍신수길의 “임진왜란”을 일으켜 약체화됨으로서 “어부지리”^①를 얻은 도쿠가와 에도성을 본거지로 막부를 성립시켰다. 에도성의 장대한 공사는 각 지방의 영주에게 노동력이나 자금을 각출시켰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절실한 필요성보다는 막부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공사라는 느낌이 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도에서 100km 나 떨어진 곳에서 화물선이나 말 등은 물론 송아지와 망아지까지 다 동원해서 건축자재를 조달시켰다.

공사중에는 도급^④으로 건설을 맡은 감독들이 각지에서 에도로 들어온 “오합지졸”과도 같은 작업원들이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감독했다. 그 결과 에도성은 1603 년에 공사를 시작한지 햇수^⑤로 약 60 년만에 완공되었다. 그 규모는 현재의 황궁보다 훨씬 크며, 북쪽의 해자는 간다 (神田) 강. 남쪽은 동경만의 후미였던 하마리큐 (濱離宮) 에 이르렀다. 그 면적은 서울 경복궁의 58 만 m², 북경 자금성의 73 만 m² 를 훨씬 능가하는 230 만 m² 이다. 하지만 에도성을 “성”으로 인식하는 동경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에도시대^⑧가 종말을 맞이했을 때 막부는 명치정부에 대하여 성을 내춤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명치시대 이후에 에도성은 새로운 황궁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규모에 비해서 지명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명치시대 이후 사람들은 에도성을 성으로 보기보다도 궁궐로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和室と庭、そして洋室

필자가 태어난 집은 1964 년에 지어졌다. 그 시대에 지어진 시골 집은 다 그렇겠지만 방이 열 개 있는데 그 중 아홉 개가 다다미 방이다. 다다미는 일식 방의 기본이며, 일본인들은 방의 크기를 말할 때 “몇 평”이 아니라 “다다미 몇 장”이라고 셀 정도이다. 골풀을 엮어서 만든 다다미는 폭폭 찢는 여름에는 진드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려워지지 않도록 정원에서 햇빛에 건조시키기도 했다. 양실과 비교하면 다다미방은 쓰임새가 많아, 방안에 밥상을 놓고 식사도 하고,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TV 를 보기도 한다.

빛이 잘 들어오는 남쪽 방은 손님 올 때만 사용하는 “응접실”이다. “응접실”이라고 해도, 소파도 상들리에도 호화스러운 유화도 없고, 외국인 눈에는 수수하게 보일지 도 모르지만 손님이 오시기 전에 곳간에서 분위기에 어울리는 족자를 가져와 걸고 계절마다의 초화를 골라서 꽃는다. 일본인의 미의식은 “부자 티를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빈티”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적으면 적을 수록, 조용하면 조용할 수록, 소박하면 소박할 수록 좋다.”는 성향이 있다. 헤안이 높은 사람 이라면 지나친 장식에 없는 것이 오히려 마음 속에 여운이 남는다. 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난해지면 품성마저 떨어지게 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도덕심을 가지는 것도 강조된다.

시골의 전통적인 일본가옥은 셋방살이일지라도 산수의 자연경관을 본떠 만든 정원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바위나 모래, 정원수 등을 배치한 정성 들어 꾸민 정원은 이상향이 응축되어 있다. 필자가 태어난 집에도 20 평 가량의 정원이 있다. 정원에 접한 응접실의 한 모퉁이에서 바라보면, 정원 중심의 석가산에 봉숭아, 소나무, 철쭉 등이 심어져 있다. 또 해를 거둬서 마모된 석등은 짙은 녹색의 이끼가 조각천을 이어 붙인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눈이 내리면 입체적인

수목화와 같은 풍경이 되고 산수화 속의 고대 중국에 있는 듯한 착각¹⁵마저 든다.

우리 집에도 양실은 딱 한 방이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때, 거기에는 소파와 낮은 테이블, 그리고 음반¹⁶을 듣기 위한 스테레오, 그리고 웬지 아무도 마시지 않았던 양주가 놓여 있었다.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인 1960 년대에 있는 돈을 다 투자해서 지은 우리 집은 그 시대 사람들이 동경하던 “미국화된 생활양식”을 도입했다. 그 시대까지 일본 농촌에서 양실에 사는 사람들은 크소수의 부자¹⁷만이었고 우리 가족같은 백성들에게는 그런 겉모양만¹⁸이라도 “미국화된” 생활양식을 현실화하는 것은 꿈도 못꾼 일¹⁹이었다. 하지만 어느덧¹⁹ 일본 농촌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어, 차츰차츰 미국에 대한 동경도 달라졌다. 동시에 도시에서는 다다미방이 없는 주택이 기본이 되었다.

마음 속의 이상향인 정원을 보고, 양실에서 소파에 앉아 양주를 마시면서 미국의 음반을 들었던 우리 가족. 다다미 방 외에도 이상향을 가옥 안팎에 만든 것이 그 시대의 일본 농촌이 아니었던가.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⑭古典芸能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歌舞伎

필자가 처음에 본 가부키는 어떤 제후와 그 원수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권선징악의 복수극, “충신장(忠臣藏)”이었다. 일본인이란 다 아는 이 스토리는 주로 가부키를 통해 알리게 되었다.

가부키는 에도시대에 생겨난 대중적인 연극으로, 얼굴에는 화장을 하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남성 배우가 연기를 한다. 필자는 2013년 새단장한지 얼마 안되는 동경 가부키자 (歌舞伎座) 극장의 티켓을 구입하여 가 보기로 했다. 전통적인 건물 정면에는 해서가 아닌 독특한 육필로 “歌舞伎座”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다. 극장내의 구도는 사실적인 무대 배경과 소품이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무대, 그리고 연기자들이 등장할 때 걸어나오는 분장실과 무대를 연결하는 복도가 특징적이다. 17세기에 도시의 서민들 사이에 인기를 끈 이 무대예술의 주된 테마는 정의의 편이 악인에게 이기는 등, 마음이 훈훈해지는, 또는 통쾌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의리와 인정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사랑의 도피”를 한 결과 동반자살할 수 밖에 없게 된 이야기 등, 대중이 좋아하는 내용이 많다. 그 날 필자가 본 작품은 일본판 “홍길동”에 해당하는 도둑이 나오는 작품 “산문고산노키리 (樓門五三桐)”이었다. 주인공이 무계를 잡으면서 또박또박 명대사를 말하면, 관중들은 흥이 나서 배우 일족의 칭호를 외친다. 이 독특한 풍습은 명배우가 연기에 몰입하여 온힘으로 연기할 때 남성관객만 외치는 풍습으로, 가부키 극장다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준다.

무대 위에는 검은 복장에 검은 두건을 착용한 인물이 보인다. 이것은 무대에서 연기자에게 의상을 갈아입혀 주거나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사람이며, 배우가 대사를 깜빡 잊어버렸을 때에는 “대타”로서 가르쳐 주기도 하는 “숨은

공로자”이다. 그 들은 관객들의 눈에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는 점이 흥미롭다.

다음은 이렇게 매력적인 가부키 배우의 어떤 인터뷰이다.

歌舞伎役者インタビュー

가부키의 연기는 한 가문에서 대대로 계승하는 전통이 있다. 가문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상연 종목이 있고, 오늘날까지 대대로 이어온 가부키의 종가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이 N 가문이다. 필자는 차분한 연기로 인기를 얻고 있는 N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연습중 쉬는 시간에 만나기로 한 대기실로 향했다. “발밑조심”, “머리조심” 등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층계참을 걸어가서 대기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여성으로 분장하기 위해 목덜미와 관자놀이까지 요염하게 분과 안료를 바른 N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성의 화장과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때는 물론 가성이 아닌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우리는 먼저 통성명을 하고나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크면 뭐가 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실은 가부키배우가 되라고 집안에서 굳이 강요받지 않았어요. “부전자전”이라고 할까, 유치원생, 아니, 철들 무렵부터 소꿉놀이 대신에 시키지 않아도 가부키배우를 흉내내고, 스스로 무대에 서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모이면 어김없이 가부키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가부키 배우로서 선택받은 집안이었는데, 그야말로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않아요, 말하자면 하루 24 시간, 밤낮없이 15 년동안 가부키를 배워온 셈이죠. 지금까지 한번도 가부키배우가 되는 데 대한 망설임은 없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가부키을 배워 왔지만, 개구쟁이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것은 아니지만, 연습때문에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목이 쉬도록 큰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하는 편이

즐거웠고, 구속받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착실하게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유서 깊은 집안이라는 점에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까지도 위대한 가부키배우였다는 것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조상들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대를 이어야 하는 중압감도 있고, 동시에 명가의 “호가호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균형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한편 젊은이들에게 가부키를 소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가부키 관람료는 예매권이라 하더라도 비싼 편이고, 가부키라도 보러갈까 하고 선뜻 권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출연료는 적지만 아직 “푹내기”인 저희들끼리 공연함으로써 시험적으로 관람료를 싸게 해 보겠습니다 수입은 머릿수대로 배당하는 것인데요.

대인관계가 부드럽고 정직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인 N 씨는 최근에 마음에 드는 가부키 대사를 해설한 책도 집필했다. “그 책을 보신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면서 저를 보고 “많이 컸다”고, 아직 어른으로서 대접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관해서 물어봤다. “결혼은커녕, 먼저

여자친구가 있어야지요! 마음씨 고운 여성이 계시다면 만나고 싶은데!”라고, 20 대남성다운 일면도 보여주는 매력적인 배우였다.

能楽

능악은 14 세기에 생겨난 가면극이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점에서는 한국의 탈춤이나 마당극을 상기시키지만, 체제비판이나 저항정신을 나타내는 대중적인 탈춤, 마당극과 달리 능악은 그 시대마다의 권력자들이 즐겨 보호해온 가무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마당극과 비교하면 그 가면의 표정도 많이 다르다.

능악 전용 극장에 들어가자 정사각형의 바닥이 노송나무로 된 무대가 보인다. 벽면에는 한 그루의 소나무만 그려져 있고, 그 간소한 무대 위에서 국악에 맞춰 상연되는 것이다. 관객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을 하고, 청바지나 T 셔츠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무대로 이어지는 통로를 주인공이 걸어나오면서 공연이 시작된다. 역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능면(能面)” 즉 능악무대에서 쓰여지는 가면이다. 일본어로 “능면같은 얼굴”이라면 무표정의 대명사이지만, 잘 관찰하면 그 표정이 놀라우리 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능면이라면 정교하게 만든 젊은 요조숙녀의 가면인데, 얼굴을 1-2cm 숙이면 비웃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 울상을 짓는 표정, 흑흑 눈물을 짓는 것 같은 표정 등, 억누르는 듯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깊이 파헤쳐서 표현한 그 얼굴은 이해하려고 들면 마치 살아 있는 인간과도 같이 보이는 것이 재미있다. 한편, 그 연마된 “표정관리”기술로 만들어낸 진정성 때문에 마치 복제인간을 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섬뜩하다”란 면에서 능악이 다루는 주요 테마 중에는 현대영화로 말하자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추리영화나 공포영화도 많다.가부키와 같은 동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처연한 허무감이 배어나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상영중의 연기자들의 동작은 궁극적으로 단순화되어, 표현도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중들은 줄거리를 미리 알아둔다. 대사보다도 동작과 가면, 소리 등 비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미리 예습을 하고 또 상상을 함으로써 그 허무적이면서도 심오한 주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전해진 바로는 7 세기에 중국에서 전해진 각종 예능이 몇가지로 나뉘어지고 어떤 것은 도태되어, 소멸했다. 그 후 14 세기에 들어와 신이 내린 듯한 연기로 알려진

관아미(觀阿彌)와 뛰어난 수제자임과 동시에 아들인 세아미 (世阿彌)로 인해 능악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세아미는 스승인 관아미의 언어록을 “화전소(花傳書)”로 편집했다. 그 서적에서 가장 유명한 말로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 있다. 필자는 공연장에서 아역역할의 어린이가 귀여운 말투로 감정을 주입하여 연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랑스러운 매력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가질수 있는 매력이며 나이가 들면 어려운 것이다. 관객들로 하여금 가슴에 와닿게 하는 신선한 매력을 관아미는 “하나 (花)”, 즉 꽃이라고 부르며,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노인은 노인으로서의 “하나”를 변치 않은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고 한다. 600 년 전의 연극이 그대로 전수되어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뜻깊은 철학에 있을지도 모른다.

狂言

“광언”은 능악의 막간에 상연하는 희극으로, 약삭빠른 주인공과 눈치없는 조연의 동문서답을 풍자스럽게 묘사한 것이 많다. 연기자들은 가면을 쓰지 않는 그대로의 얼굴로 등장한다. 최근에 광언을 감상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코미디 프로 등의 출연제의를 발판으로 여러 분야에서도 활약하는 광언 배우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문의 연예기사란에 밀도 끝도 없는 유언비어와 같은 스캔들이 실리는 배우도 생겨났다. 그러나 필자가 인터뷰한 배우 S 씨는 이 붐을 냉정하게 보고 있었다.

“이번 붐이 광언자체에 의한 것이 아님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여기에서 만족하면 벽에 부딪치고 관객의 발길도 멀어질 겁니다. 저희들의 본업인 광언을 더욱 연구해야 합니다”고 생각한 신인 광언배우들이 솔선하여, 7 명으로 구성된 광언연구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공연은 관객이 어디까지나 코믹한 희극으로서 즐길 수 있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광언은 우선 관객이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스텝들은 궁리를 해서 전단을 만들거나 영어로 더빙된 DVD 를 제작하거나 했다. 예상대로 젊은 관객과 외국인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능악극장뿐만 아니라

지방순회공연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하면서 관객층을 넓혀 가고 싶다고 한다.

文樂

분락은 줄거리^①를 해설하는 해설자, 반주를 담당하는 샤미센(三味線) 연주자,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담당으로 구성된 인형극이다. 하나의 인형을 팀원 3 명이 한마음으로 조종한다. 머리와 오른손, 그리고 왼손과 양다리를 각각 한 사람씩 담당한다. 3 명이 그야말로 손발이 잘 맞도록 조작하면 인형의 움직임도 매끄럽고, 사람보다 더 실물처럼 보일 때도 있다.

반주인 일본의 국악은 자그마치 80 이 넘는 분야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면 타악기인 장구는 미묘한 음색을 유지하기 위해 연주중에 소리를 들으면서 가죽^⑤을 묶고 있는 끈을 조이거나 풀면서, 또는 가죽에 입김을 불어 습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현악기인 샤미센은 손가락으로 줄을 튕길 경우, 더욱 선명한 음색이 나온다. 이와 같은 세심한 배려가 분락을 더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인형이 연기하는 무대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와는 대조적으로 내용은 가슴을 울리는 비극이 많다.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의 만남과 일편단심. 잉꼬부부였다가 무고죄로 박해를 당해 동반자살을 한 사람들, “이기면 총신, 지면 역적”이라고, 변명도 못한 채 할복자살을 하는 무사의 고뇌 등, 한국의 판소리^⑩와도 비슷한 한을 풀지 못한 괴로운 현세의 부조리를 그리고 있다. 모두 눈물샘을 자극하는 줄거리이지만 단순한 멜로물만은 아니다.

분락은 원래 스승 집에서 얹혀 살면서 배우는 도제제도로 계승되어 왔지만, 현재는 국립양성학원에서 배울 수 있다. 학원은 등록금은 없지만 연수생으로 2년동안 다락방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서로의 경쟁심을 부추기며, 스승의

질타를 받아야 졸업장을 받는다. 마치고 나면 각 스승의 문하에 입문한다. 그 후는 누가¹⁵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손놀림
발놀림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옛날 그대로의 방식으로 배운다. “젊어서¹⁶ 고생은
사서도 한다” 는 말 처럼, 초지일관¹⁷해야 무대에 설 수 있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⑮陶磁器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土器から陶磁器へ

세계 최초로 칠기가 만들어진 지역은 약 9000 년 전의 북해도였다. 이것은 꽃에 오르지 않도록 칠기를 만드는 기법이 일본열도에서 고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기의 기원도 그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약 1만 6 천년 전의 일본이다. 진흙을 빚어 말리거나 불에 구운 이 질그릇은 물이 새기 쉬운 토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수혈주거에서 살던 시대의 토기는 새끼줄을 둘러 무늬를 내기도 하여 승문(繩文)토기라 불리고 있다. 약 5 천년 전 무렵에는 물결치는 모양을 돌기로 표현한 장식, 그릇 전체를 꾸민 손이 많이 간 장식 등, 주술적인 힘을 느끼게 하는 박력있는 형태가 생겨났다.

그 후 벼농사 등과 함께 온화하고 밝으며 볼록한 느낌을 주는 새로운 토기가 한반도로부터 전해졌다. 질이 좋지 못했던 승문토기에 비해 취사하기 쉬운 이 형식의 토기를 “야요이 (弥生) 토기”라고 한다.

5 세기 초,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마치 쇠와 같이 단단한 “스에키(須恵器)”라는 새로운 형태의 질그릇이 구워지게 되었다. 그 후 도공들은 마침내 도기 옆에 있던 재가 고온의 가마 안에서 녹아 저절로 유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에키의 기법은 평안시대 이후에도 계승되었다. 고운 흑토로 그릇을 만들어 유약을 칠하지 않는 채 구워낸 오카야마현 비젠 (備前) 도자기가 그 대표적인 존재이며, 지금까지 마치 찰흙을 만지는 듯한 감촉을 주는,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그릇을 꾸준히 생산해 왔다.

茶道と陶磁器

16 세기 후반 모모야마 (桃山) 시대에 다도의 양식을 완성시킨 인물은 센노리큐 (千利休) 이다. 리큐는 처음에는 히데요시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 궁극의 평화의 경지를 추구하는 다도를 보급시켰다. 히데요시는 방을 붙여

교토에서 대규모의 다도회를 거행했을 정도로 다도를 좋아했다. 하지만 리큐와 히데요시의 관계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리큐가 자신의 동상을 교토 대덕사 누문 2 층에 세웠는데, 히데요시도 걸어갈 문 위에 동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체면이 구겨졌다고 느낀 히데요시가 노발대발했기 때문이다. 리큐를 의심하게 된 히데요시는 할복자살을 요구하였다. 그 배경에는 금박을 바른 방에서 금으로 만든 사발로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히데요시, 그리고 표면적인 화려함 때문에 잃어버린 “와비”, 즉 소박한 정적감과 심오함을 이념으로 작은 골방과도 같은 다다미방에서 꾸미지 않고 실증이 나지 않는 디자인의 도자기를 쓰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리큐의 미의식의 총돌로도 볼 수 있다. 후세의 일본인들이 히데요시보다 리큐의 미의식을 계승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도회^④에서 차를 마시기 전에 나오는 음식인 “카이세키(懷石)요리”에도 도자기를 사용함으로써 신선한 매력을 연출했다. 다도^⑤에서는 사철에 따라 계절에 어울리는 그릇으로 음식을 담아낸다. 맑은 국물을 담는 옷칠한 공기, 회를 담는 그릇과 술잔, 구운 요리를 담는 접시 등, 다도회^⑥의 주최자는 정성을 다 해 그릇을 골라 손님을 대접한다. 다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눈으로 즐기며 먹는 미의식을 음식문화에 도입한 것이다.

窯見学

사가현 오카와치야마 (大川内山)지구는 에도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자기생산지로 유명하다. 그 시대는 자기와 채색기술은 비법이였기 때문에 외부^①에 누설되지 않도록 마을 입구에는 삼엄한 검문소를 설치하여 물샐 틈 없이 경비에 신중을 기울였다. 그토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법은 일본각지에 전해져, 일본도자기는 서구로 수출되었다.

필자는 오카와치야마를 방문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곳을 보기 위해, 골뚝^③에서 시커먼 연기가 자욱이 나오는 공방에 들어갔다. 후텁지근하고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도구와 재료가 놓여 있는 공방에서는 일손이 모자라는 듯 도공들이 분주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더니, 일반적으로

도공들은 소위 “올빼미형”보다 아침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단 가마에 불을 지피면 장장 13 일간은 밤낮으로 불을 지펴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가마 곁을 떠나지 않고, 특히 마지막 이틀 간은 “야근”이라는 개념도 없을 정도로, 한숨도 못 잔 채 아궁이에서 불침번을 서야 한다.

타닥타닥하는 나무가 타는 소리와 우웅하는 가마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바람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해서 구워낸 도자기도 조심스럽게 가마에서 꺼내 보면 여간해서 생각한 대로 구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도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가마를 지켜주는 신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다.

오카와치야마를 떠나기 전에 도공들의 묘지를 찾았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부터 대대로 조선인 도공들이 만든 가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무덤이나 “고려교”라는 다리도 남아 있다. 도자기의 발달에는 슬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일본도자기의 날아준 친부모도 거러준 양부모도 조선인 도공들이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다.

淺川巧と柳宗悦

고려시대 한반도에서는 청자가 생겨났다. 문양이 없는 순수한 청자가 자랑하는 것은 그 심오한 청자색과 뛰어난 형태이다. 길고 가늘고 가냘픈, 그리고 때로는 도도하면서도 슬프고, 따스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의 조화, 그러한 청자의 미를 발견한 사람은 송나라사람이었다. 12세기 개성에 왔던 송나라 사람은 이러한 청자를 대하고 할 말을 잃어, 그저 “자물최정절(此物最精絶)”이라고 감탄하며, 그것을 “고려비색(高麗秘色)”이라고 명명했다. 그 영향은 바다를 건너 아리타를 비롯한 일본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20 세기에 이러한 한국문화의 미에 이끌린 일본인이 있었다.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이다. 조선총독부 산하의 임업 시험장 관리로 일하던 아사카와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에 일찌기 눈을 뜬 민에 연구가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의 일본인관료답지 않게 반달^④이와 장지문이 설치되어 있는 한옥에서 한복 바지저고리를 즐겨 입고 떡배기의 국에 밥을 넣고 말아 먹었다. 또 수영을 기르며 조선의 담뱃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물론 그 당시

한국인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의 일상용 도자기에 둘러싸여 생활했다. 그것은 지금도 경북궁 안의 “한국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계승되고 있다. 급성 폐렴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 “나는 죽어도 조선에 있을 것이요. 조선식으로 장례를 지내주소”라고 유언했다.

아사카와^⑦의 부고를 듣고 많은 한국인들이 통곡했으며 서울 청량리에서 이문동 공동묘지까지 향하는 장례 행렬에서는 상여꾼을 자청하는 사람들만 해도 수 십명에 달했다. 망우리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한국의 나무와 흙이 되다”고 새겨져 있다.

그러한 아사카와와 같은 맥락의 인물 이 야나기 무네요시였다. 서울 광화문^⑩의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아아, 광화문’이란 글을 두고한 민예운동가의 제일인자로 인정받았던 야나기는 아사카와로부터 강화와 조언을 받아 조선문화에 심취했다. 솔한 저서를 남긴 그는 조선백자의 흰색을 “비애의 미”로 표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사카와와 야나기는 조선의 서민들이 애용했던 민예품 그 자체를 사랑했고, 취미^⑪를 뛰어넘어 경북궁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했다. 그 전시물은 지금도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 뜻은 후세에 계승되고 있다.

식민지 통치하에서는 민족간의 융화를 꾀하면서도 말만 앞선 관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비록^⑬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아사카와의 삶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아사카와의 고향 야마나시현에는 아사카와 기념관이 설립되었고, 그의 생애를 그린 영화 “길-백자의 사람”도 2012년에 개봉되었다.

民芸運動

명치시대, 즉 19세기 후반은 정부를 중심으로 유럽의 선진적인 도자기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유럽의 미술가들에게 인정받은 작품을 많이 만든 시대였다. 1867년에 개최된 파리 엑스포에 혜성과도 같이 나타난 일본 도자기는 전무후무한 일본 미술 열풍을 순식간에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때 유럽의 왕후귀족들은 부피^⑫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도자기를 사 들여, 궁정의 벽을 빈틈없이 장식할

정도로 사랑했다. 일본국내의 도예업계도 근대기술의 도입과 수출품 제작이 ^③업계의 대세가 되었다.

20 세기 초기에 들어와서부터 일본 도예가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예술 운동이 생겨났다. 그것은 해외에서의 인기나 정부의 의향과 상관없이 서민^④의 생활 주변에서 남아 있는 그늘진 곳의 미에 초점을 맞추는 “민예 운동”였다. 과거에는 이름도 없는 도공들이 만든 부질^⑤없는 것으로 우습게만 알았던 것이 그것을 계기로 “민중의 예술”로 주목을 받게 되어,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주도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인물이 가와이 칸지로 (河井寛次郎) 였다. 원래 상감청자 (象嵌靑磁) 등 화려한 작품을 모방하던 가와이는 1921 년에 능력^⑥은 좋으면서도 대접을 못받는 미천한 조선의 도공가들의 일상용 도자기를 보고 피가 솟구쳐 오르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 그것을 계기로 가와이는 “작품^⑦위주”의 생각으로 바꾸며, 77 세로 호상했을 때까지 투박하면서도 보기에 편안한 색깔의 실용적인 도자기를 만들었다.

2 차대전 후는 예술가로서 가장 명예스러운 문화훈장, 인간국보, 예술원회원의 “삼관왕^⑧”으로 추천받았지만, 쓰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에 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민예운동은 그 후도 계속되어, 가와이의 공방과 작품, 그리고 철학은 교토시 가와이칸지로 기념관에서, 대표적인 존재였던 야나기의 집과 수집품은 동경 일본민예관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陶芸教室

일본에서는 각지에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도예를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필자도 도예에 대해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교실을 찾았는데, 등잔^①밑이 어둡다더니,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도예교실^가 있었다. 그 교실은 필자를 제외하면 참가자는 주부인들만인데, 모티프^②를 데생한 다음에 그 그림을 백자에 그리는 사람, 본격적인 도예가가 되고자 젓가락 받침부터 큰^③ 독이나 향아리, 술병, 촛대, 차를 마시기 위한 다도용 사발 등 소박한 일상생활용 그릇을 만드는 사람 등 그

작품도 동기도 각양각색이다.

필자는 만사에 대해서 명민하지 않은 편인데, 처음에는 어색한 동작으로 흠을 반죽하고 있었다. 강사는 하면 할 수록 실력이 는다고 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초급반에서는 도예의 기초를 배웠다. 거기서 필자가 만든 작품들은 왠지 반듯한 형태가 아닌 비대칭적인 것 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그릇들은 좌우가 대칭이고 화려하고 매끈한 것인 많았지만 일본인은 그 외에도 흠집과 굴곡이 있고 비뚤어진 것, 심지어는 이가 빠진 것조차 사랑한다. 그런데

한국인의 눈에는 그것을 애들 장난으로 밖에 안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제 눈에 안경”이라는 속담대로, 도자기 표면을 살갓으로 치면, 외국인이 “땀띠”로 보는 것을 일본인은 귀여운 “주근깨”나 “보조개”로 보는 것이다. 그것도 승문시대의 주술적이며 자유분방한 모양과 무늬의 영향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일본 도자기의 흐름은 한반도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발전해 왔다. 그렇다고 해도, “청출어람”이라고 할까, 승문토기의 미의식이 살아있는 일본인의 미적 감각이 독자적으로 발전된 것이 일본 도자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쓰면 필자가 일본의 전통과 미의식에 따라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개성 있는” 도자기 밖에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초급반이 끝나며, 자유제작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옛부터 흥미가 있던 “하니와 (埴輪)”를 만들었다. 하니와는 고분 주위에 나란히 놓였거나 함께 묻힌 토용이다. 토용이라면 진나라 시황제의 병마용이 유명하지만 일본 토용은 그 정도로 사실적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가 많아, 반듯한 형태를 만들지 못하는 초보자도 도전하기 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한눈팔지 않고 작품만들기에 집중하다 보니, 조금씩 솜씨가 늘어 지역에서 열린 아마추어 전람회에 출품하여 노력상을 받기까지 이르렀다.

그 후는 하니와를 모델로 커피잔을 만들거나, 고분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다음 해는 우수상을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通訳案内士試験 韓国語で学ぶ日本⑩年中行事

問題 : 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正月

정월 초하루는 “도시가미 (歲神)”라는 신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 신은 산에서 내려와 인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신이 내려올 수 있도록 문 위에는 금줄을, 출입구 양측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장식한다.

새해 아침에는 일본에서도 세배를 하는 풍습이 있지만, 큰 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을 빌며 칠기 접시에 따른 약주나 정종을 마신다.

새해 첫날에는 야채나 생선을 조려서 만든 설날 음식을 먹는다. 건강하게 일년을 지내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검은 콩이나, 자손이 번창하여 건강하게 자라 대대손손 잇기를 원하는 의미로 청어알을 먹는다.

초하루 아침에는 다발로 묶여진 연하장이 왔는지 우체함 안을 살살이 뒤진다. 연하장은 복권의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엽서형식이 많으며, 뒷면에는 그 해의 띠나 가족의 사진 등이 인쇄되어 있다.

신년에는 남자아이들은 연날리거나 팽이돌리기를, 여자아이들은 나뭇판자로 만든 전통적인 라켓으로 제기를 치는 배드민턴같은 놀이 등 민속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또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서 주사위를 사용하는 윷놀이같은 게임인 “스고로쿠(雙六)”나 시조와 같은 전통적인 짧은 시를 읊으면서 그 시의 후반구절이 써 있는 카드를 찾는 “백인일수(百人一首)”라는 우아한 딱지치기를 하기도 한다.

정초 삼일동안은 가족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 등을 기원하기 위해 신사나 절에 가서 참배한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참배하는 신사는 천만궁(天滿宮) 신사이다.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사는 입시를 앞두고 초조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가는데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 그리고 각 학교의 전형 시험이 행해지는 1-3월에 걸쳐 수험생으로 붐빈다.

참배를 안가는 사람도 모처럼의 설 연휴를 하루종일 집에서 누워 있기 보다는 외출을 하고자 쇼핑가는 사람도 많다. 신년에 쇼핑할 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의 하나가 “후쿠부쿠로(福袋)”이다. 그것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쇼핑백안에 다양한 고가의 상품을 넣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신년에 인기가 있는 TV 프로로는 동경과 후지산 산록의 하코네(箱根)를 왕복하는 역전마라톤의 중계방송이 있는데, 가는 편도 오는 편도 방송되어, 경쟁프로의 시청자를 빼앗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또 초하루 또는 초이틀에 후지산이나 매, 가지의 꿈을 꾸면 그 해의 운수가 좋다고 한다. 연휴가 끝나면 시무식을 하는 회사도 많다.

春

지방에 따라서는 폭설로 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이는 겨울철에서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봄이 되는 환절기에 해당하는 2월 4일이 입춘이다. 그 전날에는 집안의 가장이 “복은 집안으로, 잡귀는 집 밖으로!”라고 외치면서 되에 들어 있는 복은 콩을 뿌리는 풍습이 있다. 또 절이나 신사에서 잡귀를 쫓는 뜻으로, 도깨비로 분장한 사람을 쫓아내는 행사도 열린다. 관동지방에서는 이 날에 호랑가시나뿔가지에 정어리의 머리를 꽂아서 액막이를 한다.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그 해의 운수가 좋다는 방향을 향해 큰 김밥을 통째로 먹고 액막이하는 풍습도 널리 알려져 있다. 2월 입춘후 처음 부는 남풍을 “춘일번(春一番)”이라고 하여, 봄의 도래를 의미한다. “춘일번”이 불어도, 꽃샘추위가 계속되거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진다.

3월 3일, 빨간색으로 장식한 계단식 제단에 한 세트의 인형을 장식한다. 앉아 있는 모습을 한 인형인데, 맨 윗단에는 궁중의 천황과 황후 모양의 인형을,

다음 단에는 3 명의 궁녀, 그 아래에는 5 명의 악단 인형을 장식한다. 이 행사에는 여자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이날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홍백의 쌀과자나 마름모꼴의 떡을 먹고 즐거운 한 때를 지낸다.

제비가 날아와서 살구꽃이 피고, 봄의 도래를 알려줄 무렵, 밭에서 배추흰나비와 호랑나비가 훨훨 춤을 추기 시작하면 금세 분주한 봄맞이 시기가 된다. 먼저 만우절 전후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나무 밑에 돛자리를 깔고 벚꽃놀이를 즐긴다. 벚꽃 아래에서 어디에선가 들리는 “흘러간 노래”의 애절한 가락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가져온 음식을 먹거나 하며 떠들썩하게 노는 것이 일본식 꽃놀이이다. 특히 그윽한 밤 어둠 속에 묻힌 벚꽃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기 위해, 벚꽃 주변에 불을 밝히고 그 우아한 분위기를 만끽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아름다운 벚꽃으로 둘러싸인 교정에서 초등학교 1 학년 아이들이 설레는 가슴으로 새로운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등에 메고 입학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사랑스럽다. 그 계절에는 “사쿠라모치” 즉 물에 푼 밀가루를 타원형으로 얇게 구워서 팔소를 넣어 싸고 소금에 절인 벚나무 잎을 두른 반달 모양의 떡을 먹으면서 봄의 도래를 미각으로 즐기기도 한다.

또 불교도가 많은 일본이지만 양력 4월 8일, 즉 “연등회” 혹은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불교사원 이외에서는 아무런 행사도 없으며, 심지어 “연등회”가 무엇을 하는 날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서 연한 분홍색에서 초록색잎이 눈에 띄는 4 월말이 된다. 4 월말부터 5 월초까지 “쇼와 (昭和) 기념일”, “제헌절”, “식목일”,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라고 부르는 국경일이 연달아 있다. 원래 단오절에 그 기원이 있고, 양력 5 월 5 일 전후에는 집 안에는 투구와 갑옷, 또는 무사인형을, 집 밖에는 남자아이의 입신양명을 기원하며 크고 작은 한 세트의 잉어 모양의 깃발을 단다. 또 그 날에는 떡갈나무잎으로 싼 팔소가 든 찹쌀떡과 조릿대잎으로 싸서 찐

잡쌀떡을 먹고 건강을 기원하기도 한다. 한편 기대에 부풀어 새로운 학생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대했던 바와 어긋나고 단조롭고 따분한 생활에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 나는데, 그런 심리상태를 “오월병”이라고 불리고 있다.

夏

①하지가 지나면 하루종일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 날이 계속되는데, 그만 왔으면 하고 바람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다. 장마철에는 ②수국 가지에 앉아 있는 달팽이만이 비를 좋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홍수로 인해 ③빗줄기가 강해지면 비가 다 떠내려갈 때도 있다. 그리고 장마철은 ④엄청난 번개와 천둥소리와 함께 끝난다.

그러한 장마철이 끝나고 연못 위를

⑤소금쟁이가 걸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 온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주변을 꾸민다. 민가의 처마끝이나 울타리에 ⑥덩굴을 뺏으며 피는 나팔꽃. ⑦풍경을 매달거나 금붕어어항을 놓아 두거나 햇볕에 달구어진 정원에는 물을 뿌리거나 한다. 또 7월에서 8월 상순에 걸치는 시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상사나 고객, 은사 등 아는 분들께 ⑧더위를 먹지 않도록 “건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는 뜻으로 엽서를 보내는 습관이 있다.

그렇게 더운 나날을 즐기는 아이템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카타”이다. 면을 소재로 만든 일본옷인데

⑨안감을 대지 않아 끈끈하지 않은 옷으로, 맨발에 나막신을 신으면 화룡점정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⑩불꽃놀이 대회가 경쟁적으로 개최되어, 빙수나 오방떡, 볶음면 그리고 ⑪문어가 들어 있는 동그란 풀빵에 우스터소스를 끼얹어 먹는 “다코야키” 등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

여름에 인기가 있는 음식중의 하나가 ⑫맥줏집에서 생맥주를 마시면서 먹는

가지째 꺾은 풋콩을 꼬투리째 삶은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이열치열”이라고 할까, 복날에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딱딱딱한 장어구이 덮밥을 먹는 습관이 있다.

1년에 한 번, 7월 7일 밤에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 만난다는 전설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온 뒤 일본의 신앙과 융합하여 생겨났다. 이날 밤에는 동네마다, 혹은 학교의 학부모회 단위로 가늘고 긴 종이에 소원을 써서 대나무 가지에 매달고 별을 향해 소원을 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도 학수고대하는 것이 각지에서 행해지는 여름축제이다.

교토의 기온(祇園) 축제는 천년전에 전염병 퇴치를 위해 열었던 행사가 유래가 되어 지금의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온축제의 상징은 높이 20미터가 넘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장인들이 솜씨를 발휘해서 제작한 나팔 모양의 지붕이 달린 수레와 현란한 봉황을 붙인 가마 등이다. 그 가마는 끄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행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 전부터 연습을 하며 결속을 다진다.

한편 오사카를 대표하는 덴진(天神) 축제에서는 강에서 펼쳐지는 배들의 행렬과 하늘을 수놓는 불꽃들이 오사카의 여름밤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백중”인 7월 15일 즉 양력 8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조상의 영혼이 이승의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라 하여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을 맞이하는 날이다. 한국의 “추석”과 같이 귀성객들이 여름용 일본옷을 입고 광장에서 “강강수월래”를 상기시키는 율무를 하며 여러 행사를 즐긴다.

여름에 가장 인기가 있는 TV 프로는 효고현 고시엔(甲子園) 야구장에서 열리는 고교생 전국 야구대회이다. 특히 결승까지 진출한 어떤 강팀이 상대팀을 1점까지 따라붙다가 9회초 2사만루인 상황에서 도루를 시도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아웃이 되어 저버린 시합 등 야구사상 기록에 남은 시합도 많다. 그러므로 고시엔(甲子園) 야구장은 야구를 하는 학생이라면 다 들어가 보고싶은 “야구의

성지”이며, 전국에서 응원단이 모여 “한방 날려!” 등 외치며 응원한다.

秋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가 싶다가도, 9 월이 되면 모기향도 다 바닥나고, 바다에는 해파리가 출몰하며, 매미 대신 여치와 귀뚜라미 노래가 들리기 시작된다.
한중일삼국의 공통된 명절인 추석은 음력 8 월 15 일의 보름달 달맞이인데,
 일본에서는 특별한 행사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큰 명절은 아닌 것 같다.
 추석에는 경단과 토란, 술 등을 장만하며, 참억새 등 가을의 화초를 장식하고 달맞이를 한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는 낙엽활엽수림이 선명한 붉고 노란 색의 단풍으로 물든다. 땅거미가 지며 기러기가 보금자리를 향해서 날아간 후에는 귀뚜라미와 방울벌레 등이 우는 소리를 즐기는 모임이 열리기도 한다.

이렇게 상쾌한 가을은 결혼식을 거행하는 시기로 좋다. 일본의 결혼식은 초대장 없이는 참석하지 못한다. 신랑신부쪽도 인원 × 식대+예식비를 계산하고, 동시에 축의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예상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돌잔치” 대신에 남자아이는 3 살과 5 살, 여자아이는 3 살과 7 살 때,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다. 부모는 이 날에 각각 나이가 찬 아이들에게 일본옷이나 양복을 입힌 후 그들이 곱게 자라도록 신사에 참배하여 신의 가호를 기원한다. 그 날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이 손에 든 봉투 속에 들어있는 가늘고 긴 흰색의 옛 즉 “치토세아메 (千歳飴)”이다. 옛을 잡아 당기면 길게 늘어나듯이 “수명이 늘어난다” 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나무가 마르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겨울이 다가온다.

冬

까치들이 까치밥을 다 먹고, 농가 처마끝에 달린 꽃감에도 흰 색 가루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면, 진눈개비와 싸락눈과 우박을 몰고 동장군이 찾아온다.

양력 12 월, 즉 “동짓달”이 되면 회사마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송년회를 한다.

또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성탄절을 지내기도 하지만, 일본인들은 무슨 이유인지 성탄절을 중요시하고 성탄절은 공휴일로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일본 북부지방에서는 아이들은 썰매타기나 눈싸움을 하고 즐겁게 지내기도 한다.

연말에는 새 해를 맞이하는 각종 준비로 아주 바쁘다. 먼저 온 가족이 모여 1 년동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이듬해의 재앙을 씻어낸다. 또 오래된 바늘이나 구부러진 바늘을 두부나 곤약에 찔러 절이나 신사에 갖고 간다. 만물에 낚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못쓰게 된 바늘도 정성들여 공양하면 바느질솜씨가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이다.

12 월 31 일 밤에는 남녀별로 “청군과 백군”이 아닌 “홍팀과 백팀”으로 나뉘서 노래자랑을 하는 프로나, 장기자랑 혹은 종합격투기 텔레비전 프로 등이 해마다 방송된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가족이 모두 모여, 장수를 의미하는 메밀국수를 먹는다. 설날 그믐날의 자정 12 시전후에는, 전국각지의 절에서 108 번의 종을 친다. 거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집착, 분노, 질투 등 백팔번뇌를 떨친다는 의미가 있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⑰信仰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神社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도”에는 무수한 신이 존재한다. 신의 종류를 분류^①하면 ①자연신,②토지신,③신격화된 위인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이 합쳐져 하나로 된 신앙이 신도이다. 신들을 모시는 신사의 구조는 불교사찰과 약간 다르다. 먼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문이 세워져 있다. 그것은 “새가 앉아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도리이 (鳥居)”라고 하는데 신사의 얼굴인 셈이다.

한국의 “숫대”와 같이 일본에서도 새는 하늘과 인간세계를 연결시키는 존재로 여겨졌다. 문을 통과하면 신사의 수호신인 한 쌍의 해태상이 보인다. 또 경내에는 일본신화를 테마로 한 탈춤을 공연하는 무대가 있고, 축제 때에는 피리나 북, 징 등에 맞추어 연기를 하는 것이다. 신사에서는 불상과 같은 신앙의 대상은 모시지 않으나 구슬^④이나 거울, 혹은 금줄에 흰 종이를 매단 서낭나무와 서낭바위를 모시는 경우가 많다. 신전^⑤에서는 흰색의 상의와 붉은색 하의를 입은 젊은 무당이 때때로 박을 치면서, 신에게 바치는 살풀이춤을 추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신전 앞에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은 참배하기 전에 손을 씻고 입을 행구어 심신을 깨끗이 하기 위한 장소이다. 그 후 신전앞에서 손을 두 번 마주치고 절을 한다.

일본인은 신앙에 의하기 보다는 그때 그 때 원하는 바에 따라 그에 맞는 신사를 선택해서 참배하는 듯하다. 예를 들면 부부^⑦가 아기를 원할 때는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고야스 (子安) 신사”에 간다. 출산 후 약 한 달이 지나면 그 지역을 지켜준다는 “서낭당”에 해당하는 신사에 가서 그 마을의 새로운 성원으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집에서 그 신사^⑨의 부적을 부뚜막신이나 ‘터주’에 해당하는 신으로 방안의 높은 곳에 신사를 본따 만든 제단을 설치하여 모셔놓고, 날마다 밥과 소금, 물, 술을 올린다.

또 농민들은 여우를 모시는 “이나리 (稻荷) 신사”를 참배한다. 한국에서는

여우는 “구미호^⑩” 등 사악한 동물로 여기고 있지만, 실은 들쥐를 잡는 동물로 눈을 지켜준다고 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요괴로 숭배되어 왔다. 이나리신사에서 주목할 점은 여우가 좋아한다는 유부나 유부초밥^⑪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신들의 “보직”이 확실하기 때문에 각자의 기원하는 바에 따라 신사와 절을 바꾸어 참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高尾山と神仏混淆

초여름 맑게 갠 어느 날, 점점 녹음이 짙어지는 다카오산을 찾았다.

모든일에 너무도 경황없고 번잡한 느낌이 드는 동경을 떠나, 전통신앙이 살아 숨쉬는 다카오산을 오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린 후, 등산로를 한동안 걸어 올라가니 산길에서 자연관찰을 하러 온 많은 초등학생들을 보았다.

그들은 도감을 한 손에 들고 돋보기로 꽃을 관찰하면서 “수술! 암술!”하며 외치고 있었다.

등산로를 마지막까지 오른 후 양측에 주홍색 등롱이 늘어서 있는 참배길을 걸어가면 약왕원(藥王院)에 도달한다. 여기는 일본 토속신앙인 신도(神道)와 외래신앙인 불교, 그리고 요괴들까지 같이 모시는 절이다. 경내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높이 4m 는 될 법한 거대한 “텡구(天狗)상”이다. “피노키오”와 같이

긴 코에 커다란 눈, 그리고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 “텡구”는 산신령과 같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 왔다.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신령이 사는 산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불교가 전파된 후 신비스러운 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생겨나,

산악불교가 번성하게 되었다. 약왕원도 그 중 하나이지만 불교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굵은 금줄이 매달려 있어, 한 초등학생이 그것을 보고 인솔자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 선생님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몰라, “그런게 있어!”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는 듯했다. 요괴가 신의 하나로 여겨져, 불교의 스님도 그것을 모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해서 “얼렁뚱땅하다”고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일본인들은 종교적으로도 대립하기보다는 ⁹ 서로 타협하면서 차선책을 찾고, 원만하게 공존하는 것을 선호한다.

15 분정도 걷는 동안 여기저기에 ¹⁰ 빨강색의 턱받이를 한 돌하루방같이 보이는 수행자 모습의 석상을 보았다. 그들은 “지장(地藏)보살”이라고 해서 여행자의 안전을 지켜 준다.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끼며 해발 599m의 산 정상에 도착했다. 어디에선가 메아리도 들려 왔다. 일본에서는 ¹¹ 메아리를 한자로 “木靈”이라고 쓰며, 사람들은 나무에도 신비한 넋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왔다.

¹² 햇볕도 따가워졌으므로 하산길은 등산로와 달리 인적이 드문 계곡길을 내려가기로 했다. 하산 도중 텅구같은 ¹³ 요괴가 노려보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음산한 산길을 내려오면서 일본인의 종교관과 관혼상제에 관해서 생각해 봤다.

크리스찬 인구가 1%밖에 안되는 일본인데, ¹⁴ 예식장은 신사 스타일보다 성당이 많다. 한편 무슨 소원이 있을 때는 성당에는 안가고 ¹⁵ 그 소원을 가장 잘 풀어 준다는 신사, 혹은 절에 간다. 또 ¹⁶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불교식으로 분향소도 있고, 또 스님이 불공을 드리는데 영결식에는 유교식으로 상주가 상을 치른다. 이렇게 보면 종교적으로 ¹⁷ 양다리가 아닌 “몇 다리”를 걸치고 있어, 마치 종교가 “포화상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본인에게는 ¹⁸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나의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나아가서는 종교학적인 분류와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는 존재를 모두 수호신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바꿔 말하면 한국인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나 종파에 속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인은 “¹⁹ 아전인수”식으로 그 때마다 믿는 대상을 택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을 알려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카오산의 메아리나 지장보살, “텅구”등이다.

2 시간 후 겨우 케이블카역에 도착하여, “인간세계”로 돌아가자 ²⁰ 모두들

안심하는 눈치였다.

座禪體驗

필자는 실은 불교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었다. “아는게 힘”이라는 말을 믿고, 지식만을 축적해 온 사람에게는 “윤회전생”을 주장하는 불교는 비과학적이고, 지식인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 석가탄신일(연등회)에 스님이 보시해달라고 탁발을 하는 것을 봤을 때도 그것은 그냥 모금활동인 줄 알았다. 사십구일재나 기일 등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절에서 불경도 읊었지만 필자는 불교를 믿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집 족보가 보관되어 있는 절에 가서 단지 조상을 기리고, 친족과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인 줄 알았다.

그런 내가 이번에 좌선체험같은 “생소한 일”을 직접 해 보기 위해 선종사원에 가겠다고 하자, 가족들은 “해가 서쪽에서 뜬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필자가 이번에 좌선을 하러 간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어깨너머 공부이지만 선이라는 것은 일본인의 사상을 형성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신기루, 또는 아지랑이와도 같이 종 잡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마음먹고 가기로 했다.

절에 도착했다. 의복을 단정히 입은 후 초인종을 누르고, 미닫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스님께서 현관의 작은 마룻방에서 맞이해 주셨다. 평소보다 약간 목소리를 낮추어 인사를 하고 나서 벗은 신발의 앞쪽을 입구쪽으로 향하도록 가지런히 놓아두고 안에 들어갔다.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면 그곳은 조용하고 엄숙한 세계이다. 오래된 목조건물과 머리를 말끔히 깎은 스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웃이 날개”라더니 필자도 밤색 “사무에”를 입으니

수행승같이 보이는 게 신기했다.

이어서 저녁 때부터 밤 늦게까지 초보자들도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어깨의 힘을 빼고 좌선을 했다. 좌선중에는 헛기침조차 할 수 없다. 잡념을 떨치고 곧은 자세로 앉아 집중하려 노력해 본다. 하지만 곧 잡념에 사로잡히고 깜빡 졸다보니, 몇분도 지나지 않아 발이 저러오기 시작했다. 참느라고 참았는데, 마지막에는 괜히 왔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팡!”하는, 듣기만 해도 아플것 같은 소리가 선당 안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수행자의 잠을 깨우기 위해 또는 자세를 바로 고쳐주기 위해 치는 막대기 소리이다. 이것으로 맞기도 하고 스스로 때려달라고 청하기도 한다. 이것도 경험이라 생각해 무심코 부탁하고 말았다. “팡”하는 소리와 함께 아픔을 느꼈다.

밤에는 스님께서 생명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다. 절에서 기르는 고양이 새끼를 품은 스님이 설법해 주셨다. “이 고양이는 물론 나방, 그리고 민달팽이와 이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생물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일본인이 밥을 먹기 전에 “이타다키마스(받겠습니다)”라고 합장을 하는 이유는 이런 도리를 잘 알고 있어, 귀중한 생명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겠다는 뜻이다.

10 시에는 소등했다. 창 밖에 보이는 밤안개 사이로 나타난 초승달이 인상적이었다.

이튿날 아침 5 시 기상. “땡땡땡”하는 종소리에 잠을 깬데, 창 밖이 어두워 아직 한밤중인 줄 알았다. 15 분 후, 좌선을 하기 위해 법당으로 향했다.

이윽고 아침의 정적 속에서 좌선에 들어간다. 아침의 수행이 끝나면 식사시간이다. 스님들은 필요없는 움직임이 없고 필요 이상의 소리도 내지 않았다.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드십시오.”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고 나온 것은 죽과 비지, 은행조림 등이었다. 식후에는 사용한 그릇을 차와 단무지로 깨끗이 닦아 먹도록

지도를 받았다. 쌀^㉗을 씻은 후의 쌀드물도 그냥 흘리지 않고, 그것으로 사용한 나무주걱을 씻어냈다. 이런식으로 만물은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되새기면서 먹고 사용하는 것이다.

식사가 끝나면 선당 주변의 청소를 한다. 법도^㉘를 모르고 청소도 익숙하지 못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한박자 늦은 필자로서는 반성할 정도 많았다.

說法

청소가 끝난 후에는 서로 마주 앉아 반성을 겸한 “신세^㉙타령 대회”가 열렸다. 그 날 좌선에 참가한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고민이 많은” 사람, 솔직히 말하면 “생활^㉚이 엉망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많았다. 아프다는 핑계로 등교를 거부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아버지께 “속아서” 마지못해 참가했다고 하는 소년. 고슴도치^㉛와도 같은 머리와 배꼽피어싱을 하고 아무한테나 반말을 하면서도 “반성회”에서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무뚝뚝한 고등학생.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식사시간에 더구나 말 걸지말라고 하는데도 남한테 시비를 걸거나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대학생. 병석^㉜에서 일어난 베이비붐 세대 남성. 아이를 키우느라 수척해 보이는 “홍일점”의 미혼모. 등 정말 다양했다. 다양한 사정을 털어놓은 참가자들에게 스님은 좌선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보고 마음 속의 부처님을 만나 진실된 자신으로 돌아가는 중요함을 설법해 주셨다.

“노약자석^㉝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남보다 먼저 앉으려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뽕내기^㉞를 좋아하고 허풍이 심한 한편, 남을 험담하는 사람. 상대방의 학벌이나 문벌에 따라서 아첨을 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등 태도를 바꾸는 사람. 여러분은 그러한 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죠. 좌선 하는 마음 속에는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고통을 못참고 도중에 그만

포기하고 싶은 자아와 그래도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건성으로 듣거나 여우에 흘린 듯한 표정을 짓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함축적이고 납득이 갔다.

마지막에 우리는 붓펜으로 사경을 하고, 스님께서 멧돌을 갈아서 만드신 메밀국수를 먹은 후 절을 뒤로 했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⑩相撲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相撲とは

스모는 한국의 씨름과 같이 몸에 살바를 두른 상투머리의 씨름꾼 두 명이 맨손으로 싸우는 일본 고유의 경기이며, 있는 힘을 다해 만만치 않은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승패를 가린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처럼 체구가 작은 선수가 오히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 양선수의 실력이 비슷하지만 싱겁게 결말이 나 맥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외의 일이 벌어지는 것도 스모의 매력이다.

매년 1 월에 시작해서 두 달 간격으로 15 일간의 스모대회가 열리고, 또 지방순행도 있다. 특히 스모 대회 마지막날은 대만원으로 입장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 선수들은 모두 700 여 명으로 “요코즈나”를 목표로 몸을 아끼지 않고 승부를 펼치고 있다. 스모선수들은 일본에서 야구선수, 축구선수들과 함께 주목을 받는 존재이며,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이 항상 선수들을 따라다닌다.

横綱

스모선수의 최정상급 선수에 주어진 칭호를 “요코즈나(横綱)”라고 하는데, 그들은 힘만 가장 센 “천하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전국민의 모범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요코즈나는 행동거지나 사람됨이 중시되어 품성이 모자라다고 판단되면 요코즈나로 등극할 수 없다. 또 등극한 후에도 변치 않는 자세로 정진함으로써 국민의 칭송을 받는 것이다.

요코즈나의 독특한 점은 그 “신령함”에도 있다. 그들이 씨름판에 올라갈 때는 살바^④ 위에 자수를 놓은 직조의 앞치마를 착용하고, 그 위에 “구름”을 의미하는 굵고 흰 금줄을 메는데, 그것은 신사 앞에서만 장식하는 신령스러운^⑤ 것이다.

요코즈나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이유의 하나는 그 기원에 있다. 일본 신화에 따르면 그야말로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 일본 땅은 이즈모(出雲國)의 오쿠니누시(大國主命)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늘에 사는 아마테라스(天照大神)가 그 땅을 양도하도록 천하장사^⑦를 사절로 올려보냈다. 막무가내^⑧로 그 요구를 거절한 오쿠니누시의 둘째 아들인 타케미나카타(建御名方)는 천하장사에게 은^⑨ 힘을 다해 항거했다. 하지만 천하장사는 타케미나카타의 팔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나가노현 수와(諏訪)로 도망쳐, 거기서 천하장사에게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간절히^⑩ 애원했다. 그 결과 아마테라스가 일본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스모의 기원은 신화이며, 최초의 천하장사^⑫도 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각 스모대회에서 대미^⑬를 장식하는 것이 요코즈나들의 시합이다.

80년대까지는 “용병^⑭”으로 여겨왔던 외국인 선수들이었지만 2000년 이후는 일본선수 대신에 외국인 선수가 활약하게 되었고 일본인 요코즈나의 복귀가 기대되고 있다.

大相撲観戦

동경 료고쿠(両国) 국기관에서 열리는 스모대회를 보러 갔다. 입구 부근의 매표소에서는 암표상^①이 접근해 왔는데 필자는 그대로 관내로 들어갔다. 착석하자 씨름판에 선수들이 들어와, 사람들이 환호^②를 보냈다. 각 선수가 후원자의^③ 단체명을

수 높은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 후 의식이 시작됐다. 스모는 일본의 고유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스모선수는 씨름판에 오르면 우선 소금을 뿌린다. 성스러운 씨름판의 부정(不淨)을 없애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소금을 다 뿌린 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허리를 구부려 손을 두번 마주친 다음에 양팔을 좌우로 크게 벌려 손바닥을 뒤집는다. 이것은 야외에서 스모를 하던 시대에 잡초를 뜯어 그 이슬로 손을 씻고 손을 넓게 펴보여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보이는 것에서 유래한다.

마침내 선수들은 씨름판 중앙에 나와 양다리를 번갈아 높이 올려 지면을 밟는다. 그리고 양선수는 한번 길게 숨을 내쉬고 8 할정도 숨을 들이쉬고 멈춘다. 서로 마주선 채로 쌍방이 동시에 시작하기 위해 호흡을 맞춘다. 이것을 “아흠호흡(阿吽呼吸)”이라고 하는데, 지루할 만큼 기다린 후 겨우 호흡이 맞으면 몸을 부딪치며 힘을 겨룬다. 이 번 시험은 상대가 곤두박질 당해서 졌는데,판정이 어려운 경우는 재시험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相撲部屋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대회에서 열리는 신입 문하생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험내용은 몸무게와 골격 등 체격에 관한 것은 물론, 체력검사도 있다. 그것을 다 통과한 후는 대소변 검사, 근시/원시 색약이상 등 시각검사, 그리고 총치나 사랑니의 유무 등 치과검사까지 모두 거친다.

합격자는 반년동안 국기관내의 스모교습소를 다니면서 스모의 기본동작, 실기에서부터 스모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배운다. 일본전통문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스모선수들은 여러 분야에 정통한 “팔방미인”이 요구된다. 또 몸을 챙기는 것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교습소에는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는 응급실이 있고, 들것 등 각종의약품이 완비되어 있다. 신인선수들은 특히 인대나 늑골의 손상, 디스크, 또 뇌진탕 등이 많다. 선수들은 상처가 낄이지 않아,

몸에는 언제나 부스럼 딱지가 있다. 필자가 어느 도장을 견학했을 때에도 연습중 밀쳐져 넘어지는 바람에 팔꿈치를 다친 선수를 보았다.

스모선수들은 수도권 40 몇 군데에 있는 스모도장에 소속되어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침식을 함께 하며 연습에 매진한다. 도장은 가족에 비유된다. 사범인 “오야가타”가 아버지 격이다. 연습 중에는 씨름판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근엄한 얼굴로 가차없이 선수들을 지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를 크게 혼내기도 한다. 사범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말대꾸 등은 당치도 않는 일이다. 어엿한 프로선수로 양성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재능을 살리는 것도 못살리는 것도 사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장내의 크고 작은 일을 꾸려 나가는 사모님은 선수들의 여러가지 고충에 대해 상담해 주기도 하고, 편의를 봐 주기도 하는 믿음직스러운 존재이다. 과거에 사범부부는 아들형제가 없는 “무남독녀”를 오히려 원했다고 한다. 외동딸을 가장 실력이 있는 제자에게 시집보내고, 사위를 보게 된 후 그 사위에게 도장을 계승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각 도장에 들어온 순서에 따라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된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족처럼 한 솥밥을 먹으면서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수들은 각 대회 승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등급은 10 단계로 나뉜다. 5 단계이상인 “세키토리”가 되면 월급을 받지만 그 이하인 “와카모노” 즉 연습생은 용돈 정도를 받는 게 고작이다. 프로와 연습생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군”인 연습생들은 “일군”인 프로선수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 빨래에서 다리미질, 설거지 등은 물론, 시합중에는 “일군선수”인 세키토리의 살바를 묶어 주기도 한다. 시합과 직접 관계없는 것, 예를 들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러먹는 경우도 있지만

명령을 잘 들어야 하고 말대꾸를 하면 안된다

한편 서열이 바뀌면 싫더라도 선배가 후배의 시중을 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약육강식의 스모계이기 때문에 발뻘고 잠을 잘 수 없어 불면증을 앓는 선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한 억울함에 자극받아 “두고보라”는 마음으로 와신상담하여 분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力士の一日

선수들의 생활은 말처럼 쉽지 않아, 잠꾸러기에게는 힘들겠지만 매일 아침 5 시에 울리는 자명종시계 소리로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선수들은 겨울에도 옷을 얇게 입고, 알몸으로 연습한다.

파 김치가 된 선수들이 기대하는 것이 점심시간에 “짱코”를 먹는 것이다. 그것은 스모도장에서 날마다 먹는 전골 인데, 선수들은 몸을 키우기 위해 고기, 생선, 야채 등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듬뿍 먹는다. 밥도 네 다섯 그릇을 먹는데, 선수들에게는 “활력소”라고도 할 수 있다. 보통 사람과 같은 양은 간에 기별도 안가며, 또 많이 먹는 것도 연습의 연장이다. 그래서 요리를 리필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다. 물론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은 선수로서는 실격이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식단을 짜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영양밸런스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배탈 등 위생관리까지 해야 한다.

하루의 연습이 끝나면 흐트러진 머리를 빗으로 빗고 기름으로 고정시킨 뒤 끈으로 묶고 단정히 한다. 끝나면 오후 4 시까지 알팍한 이부자리에서 낮잠을 잔 후 청소를 하고 저녁식사 준비를 한다. 그리고 오후 6 시 경에 짱코를 다시 먹고

나면 자유시간이다. 외출도 가능하지만 침구사나 주치의를 찾아 가는 선수 외의 대부분의 스모선수들은 각자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잡담을 하며 보낸다. “와카모노”는 10명 정도가 한 방에서 지내고, “세키토리”는 독방을 사용한다. 다음날의 아침연습을 위해 소등은 10시 30분이다. 여러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수들의 잠꼬대나 코고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린다. 물론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은 금물이다.

武蔵丸

하와이 출신의 한 청년이 입문한지 겨우 2년만에 프로인 “마에가시라(前頭)”라는 등급으로까지 승진하여 주목을 받은 것은 1991년이었다. 동경 닛브리(日暮里)에 있는 무사시가와(武蔵川) 도장의 이름을 본떠서 “무사시마루”라는 선수명을 가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체격이 좋았다. 부모는 사모아섬에서 하와이로 이민했고, 생활고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 17살 때 미식 축구로 단련한 그 매머드와도 같은 몸이 주목을 받아, 권유를 받았고,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일본행을 결심했다. “갑자기 일본에 갈 일이 생겼어요.” 라고 부모님께 보고한 후 그는 하와이를 떠났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몸이 너무 커서 난처했다. “몸이 너무 커서 옷을 사러 가게에 가면 제 사이즈의 옷은 없다고 그래요. 또 베개의 크기도 작아서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목이 아팠어요. 버스를 탈 때에도 몸에 비해 차량이 작아 옷 내릴 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더듬거리는 일본어였지만 착실하게 배웠습니다. 기왕 내친 걸음이었고, 또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으로 일본에 왔으니까, 오기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남 부럽지 않는 체격에 연습으로 얻은 기술을 합치면, 그야말로 “날개 단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데뷔를 앞두고 “시간은 금”이라고, 저는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열심히 연습만

해 왔어요. 도장에서 해야 하는 연습외에도 ¹²푸시업, 턱걸이, 줄넘기, 물구나무서기 등 스스로 매일의 운동량을 정하고, 연습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¹³승산이 없어 보여도 이를 악물고 끈질기게 끝까지 매달렸지요. 다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¹⁴“어디 가세요?”, “네, 어디 좀 가요.” 식의 인사를 나누고 교류할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지요.”

¹⁵도일한 후 파죽지세로 이겨온 무사시마루는 1999년 스모선수의 최상등급인 요코즈나(横綱) 등극의 한을 풀었다. 2004년에 ¹⁶현역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일본인들 가운데에서 아직 인기가 높다. 요코즈나가 된 후에도 ¹⁷“이긴 뒤에도 방심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얕보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고, 그 지위에 안주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지지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⑱道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고대 중국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붓놀림을 중국인들은 “서법”, 즉 서를 쓰는 법으로 표현했다. 그것이 한국에 전래되면 “서예”, 즉 예술위주로 보이게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글씨를 쓰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추구하는 의미로 “서도”라고 불리웠다. 그 밖에도 차를 마시는 것을 다도, 꽃꽂이는 “화도”, 칼부림을 “검도”, 전통적인 레슬링을 “유도”로 부르며 단순한 기술을 떠나 정신면을 추구했다.

柔道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격투기는 유도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무술의 하나이며, 일본의 격투기로서 유일한 올림픽종목이기 때문이다. 태권도와 달리 유도는 치기나 차기가 없고, 다다미가 깔린 도장에서 오히려 레슬링과 같이 주로 엮어치기 등 메치거나 누르는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도는 에도시대까지는 “유술”이라고 해서, 칼, 활과 함께 전방에서의 접근전을 가상하여 싸우는 기술이 그 기원이다. 기술면을 중시했던 유술에 한계를 느껴, “유능제강 (柔能制剛)”, 즉 부드러움이 강인함을 제압한다는 동양철학에 따라 정신면을 강조하는 “유도”로 보급시킨 인물이 가노지고로 (嘉納治五郎) 이다. 그 때까지 승패 위주인 “術”에 자기의 내면을 추구하는 “道”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전쟁기술에서 정신수양으로 승화되어 다른 격투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예의이다. “예의에서 시작하여 예의로 끝난다”라고 할 정도이며, 먼저 상의위에 띠를 꼭 묶고 고개를 들어 차렷자세로, 혹은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는 방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낙법의 각종 기본동작을 배운다. 예의범절과 공격을 당하는 기술을 다 배운 후 겨우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술을 배울 자격이 생긴다. 유도를 배울 때에는 “수,파,이(守,破,離)라는

단계가 있고, 선불리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기본동작을 확실하게 배워 기초를 다진 후 그것을 상황에 따라 적용한 후 검은 색 띠를 따는 것이다. 유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본동작”이야말로 “도”라는 끝말이 붙는 각종무예나 다도, 꽃꽂이 등을 배우는 비법이다.

필자는 한동안 유도도장을 다녔는데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모르는 것 투성이였다. 도장은 외부와 다른 세계라는 선을 긋기위해 유도의 창시자 가노 사범님의 사진에 대해 예를 하고나서 들어가야 된다. 준비체조를 할 때에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하는데 근육이 아파져 혼자 휴식을 취했다. 그 후 실수로 초급반이 아닌 중급반에서 연습하는 바람에 갑자기 시합 형식의 연습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대회에서 연패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어서, “기합”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 후 필자가 완전히 초보자라는 것을 알게 된 사범님께서 초급반에 옮겨주셨다.

연습이 끝난 후 사범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술만을 닦아도 실은 검은색 띠를 딸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는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기술만을 연마한 사람에게 못할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길고 긴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기술만 익힌 사람보다는 “도”를 배운 사람이야말로 “칠전팔기”, 즉 좌절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한편 철학적, 관념적일 뿐만 아니라 “도”는 기술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두가지는 “수레의 양쪽바퀴”입니다.

茶道

캘리포니아에서 히피로 지내던 그렉 씨는 어렸을 때 일본 사극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난투장면에 매료되어, 무술가가 되기 위해 검도용 호면과 죽도만을 들고 일본에 왔다. 영어 원어민인 그렉 씨는 동서남북도 모르는 동경에 오자마자 영어강사를 하면서 무술을 배웠다. 그와 동시에 다도도 배우기 시작했다. 갈색 턱수염을 기른 그렉 씨 는 이렇게 말한다.“날마다 열심히 했는데, 10 년 전쯤

“道”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는데, 다도와 무술, ^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보조사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때 다도 선생님께서 “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지 말라, 무턱대고 찾으려면 “도”가 떠나가니까, 차라리 자네가 마치 자석과 같이 “도”를 끌어당길 때까지 한 우물만 파면서 기다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럭 씨는 도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위해, 또 그 때까지의 생활에 만족을 못느껴 무술가의 꿈을 접고, 다도에 전념하고자 생각했다. 그 후 다도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교토로 주거를 옮겼다.

천성이 그랬는지 다른 사람의 말에는 개의치 않고 일도 안하고 오로지 다도만을 했기 때문에, 생활은 궁핍했고 한 평반의 좁은 방에서 라면박스를 책상 겸 밥상으로 대신하고, 빵가장자리를 먹으면서 쓰레기와 같은 다다미 위에서 잤어요.

교토 사람들은 같은 말도 말하기에 따라 모가 난다는 걸 아니까, 말하기 거북하면 무턱대고 말하기 보다 말끝을 흐리거나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체로 강요하는 듯한 말은 뻔뻔스럽다고 여겨 타인을 의식해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몰라 가끔 향수병을 앓았는데, 교토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은, ‘정들면 고향’ 이란 말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서로 헤아리는 것, 살피는 것이야말로 다도의 철학이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나물먹고 물마시는” 자족의 생활을 하면서도 다도에만은 열심이었던 그럭 씨는 이렇게 말했다.

“다도를 몇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도”의 추구에 고집하는 것보다 순순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소중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외의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친구가 연출하는 연극을 무대 뒤에서 봤는데 배우들은 막이 내린 후도 계속 관객들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도에서 “잔심(殘心)”이라고 해서, 손님이 떠난 뒤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마음 속에서도 손님을 배웅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분야는 다르더라도 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도”의 매력입니다.

그렉 씨는 그야말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교토의 좁은 셋길 구석구석까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나이는 못속인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날마다 달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를 추구하면서도 건강이 제일인 것 같다.

一期一会

불교는 백제에서 일본에 들어와 오랜 세월을 걸쳐 전국각지에 전파되었고, 전국민의 독실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문화의 토양을 만들고 다도의 사상적 배경이 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무상”이라고 설명한다. 변화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또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상호 관련을 맺고 의존해 가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도의 근본정신인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말이 생겨났다.

주인과 손님의 인생에 한번뿐인 만남이라는 뜻이며, 두 번 다시 없는 이 순간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 성심성의껏 다도에 임하라는 뜻이다.

센노리큐(千利休)는 다도의 마음을 네 글자의 한자로 표현했다. 즉 “화경청적(和敬清寂)”이라는 네 글자이다. 그 의미는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존경하고, 항상 청아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스레 손님 자신이 절도를 지켜지는 것이다.

生け花と華道

원래 꽃꽂이는 신이나 부처님에게 나무나 꽃을 바친 것에서 시작되었다. 16세기 말경부터는 꽃꽂이의 형태와 수법이 확립되어, 예술작품으로서 감상하기 시작했다. 꽃꽂이가 서민들의 생활에 도입된 것은 19세기말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양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 사이에 파급되면서 거실과

응접실만 아니라 현관 등에도 꽃을 장식하게 되었다. 꽃을 장식하고 즐기는 것은 일상생활에 풍요함과 여유로움을 안겨 준다.

한편 일본인은 그러한 장식방법에도 “도”라는 개념을 응용했다. 예를 들면 “침봉”을 화분에 놓고 꽃이나 가지의 밑동을 그 바늘에 찔러 고정시키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하늘, 땅, 사람”을 표현함으로써 꽃꽂이를 “화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武士道

“무사”라는 계급이 천황을 대신하여 사실상 일본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가마쿠라시대, 즉 12 세기 말이다. 우연히 고려시대 최 씨 무신정권과 때를 같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장군이 나라를 다스린 시대가 약 700 년 계속되었다. 원래는 무장농민에 불과했던 무사들도 그 무력을 공격목적으로부터 싸움을 막는 수단으로 바꾸어, 동시에 점점 통치자로서의 도덕이 요구되어, “무사도”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소위 “무사도”는 신도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바탕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色即是空 空即是色)”이란 선종의 무상함과 “인,의,예,지” 등 유교의 도덕개념을 접목한 것이다. 그것은 신라시대의 “화랑 (花郎)”, 즉 귀족들이 “유불도 (儒佛道) 삼교”를 합쳐서 “화랑도”를 만든 것과 비슷하다. 또는 한국에서 “사서오경 (四書五經)”을 읽고 과거를 보았던 양반과 “대장경(大藏經)”을 배운 승려의 역할을 무장농민들이 했다고 하면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에도시대에 서술된 무사들의 “성경”으로 여겨졌던 “하가쿠레 (葉隱)”에는 “무사도란 삶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 말은 많은 무사들의 좌우명이 되었다. 죽음에 처했을 경우 그것을 아무 가치도 없는 “개죽음”이라 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도량이 작은 사람이 하는 행위이며, 또 수치스럽고, 세상에 대해 낮을 들 수 없다는 뜻이다. 유교의 영향으로 명예와 수치심을 중시하고, 또 선종의 영향으로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깨끗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사들은 한국인의 눈에는 어쩌면 잔혹하게 보이는 “할복자살”을 택했다. 무사들은 타인에게는 본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마음 속에 담아 두는 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터무니없는
의심을 받았을 경우에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일편단심 (一片丹心) 을 보여 주는
것이 무사의 자신감이며 귀감이었다.

그러한 비애의 “깨끗함”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즐겨 보는 사극에는 역시 무사가
많이 등장한다. 예로부터 인기있는 사극에 “미토코몬 (水戸黃門) ”과
“추신구라 (忠臣藏) ”가 있다. 미토코몬은 “부장군”¹⁰으로써의 지위를 감추고 몰래
충실한 부하들과 함께 “암행어사 (暗行御使) ”를 하여, 각지의 탐관오리
(貪官汚吏) 들의 부정부패를 밝혀내는 권선징악의 스토리이다.

또 “추신구라”는 여러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해 칼로 적의 이마를 벤 후
할복자살한 주인을 위해서 47 명의 충신들이 힘을 모아 원수를 갚았다는
복수극이다. 일본에서 “의사”¹²의 대명사는 바로 그 “47 명의 의사”를 가리킬
정도이다.

2 차대전후 무사도의 정신은 제국주의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부정적으로
생각되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점을 채우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어, 지금도
일본인의 윤리로서 살아 숨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동일본대지진 때에도
각지에서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중국인 연수생들을 다 피난시킨 후 자신과
가족은 쓰나미에 희생당한 오나가와 (女川) 의 회사원. 남성뿐만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에게 쓰나미가 덮쳐온다고 방송을 계속하다가 그대로 목숨을 잃은
미나미산리쿠(南三陸)군청의 여직원 등, 이러한 “살신성인”¹⁶의 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의 도덕관념,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오열을 참으며 희생자를
추도하면서 산더미처럼 쌓인 부서진 가옥과 시신 등의 뒤처리를 하는데, 슬픔을¹⁸
억누르고 묵묵히 일을 하는 그 모습에는 자신의 운명을 평상심으로 극복하려는
“무사도정신”이 깃들여 있지 않을까.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㉑和食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米

기원전 5세기경부터 일본열도에서는 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 식생활은 쌀 중심으로 되어 왔다. 과거에는 쌀에 보리나 잡곡을 섞어 지은 된밥^①을 먹고 구수한 누룽지도 먹었다. 밖에서 일을 할 때는 둥글넓적한 모양이나

각지고 두툼하게 만든 주먹밥도 먹는다. 현재 일본의 주식인 밥은 간^③을 하지 않고 지은 달착지근한 쌀밥이다. 일본의 쌀밥은 상당히 맛이 좋아, 반찬이 없더라도 김이나 장아찌, 또는 젓갈만 있으면 하루 세번씩 매일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축제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끈기^④가 많은 찹쌀을 찌서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찢어 떡을 만든다. 전통적인 일본문화에서는 쌀에 곡식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왔고 그러한 성스러운 쌀로 만든 떡은 축제음식으로 여겨져 왔다. 또 경사스러운 날에 먹는 찰밥의 일종인 팔밥도 있다.

“국수^⑥를 먹을”때 등 관혼상제 때에는 대부분 술이 곁들여 나온다. 전통술^⑦은 쌀을 원료로 양조된 것으로, 서로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 받았다. 막걸리^⑧를 거르고 만든 감칠맛이 나는 정종은 “백약지장”이라고 해서 약으로 마시거나,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신사 경내에서도 볼 수 있다. 신령스러운 쌀을 원료로 만든 정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면 신령스러운 기운이 몸에 들어온다고 했다. 그래서 맹정신^⑨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것도 술을 마시고 해버리는 것은 “신이 한 짓”으로 너그럽게 봐준다.

이런식으로 쌀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이 고안한 밥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푸드^⑩ “쇠고기 덮밥”의 체인점이 보급된 것이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고기^⑪에 양념을 버무려 밀간을 하고 양파를 넣어 끓인 것을 밥 위에 올린 것은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있고, 경쟁사^⑫가 서로 가격을 인하해야 할 정도이다. 이러한 체인점에서는

¹³먼저 매표기에서 식권을 구입하는 선불식과 식후에 계산하는 후불식이 있는데 가격이 아주 싸고, 주문후 1 분이내면 요리가 나온다. 바쁜 샐러리맨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일행이 없이 혼자 들어와 5 분정도에 후딱 먹고 나가는 손님도 많다. 5 분의 시간도 없는 손님에게는 포장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러한 바쁜 사람들도 빵이나 국수보다는 밥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魚料理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도 생선요리를 좋아하여 부역용 가스렌지에는 생선구이용 곤로가 들어 있을 정도이다. 또 일본에서도 퇴근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요정^①에서 상기된 우는 얼굴로 분위기를 맞추면서 사업상 접대를 하는 사람이나 “오늘은 갈 데까지 가보자”고 무제한 마실 수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로 주말이 되면 술집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빈다. 한편 집에서 저녁식사에 곁들여 한두잔 반주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 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정종^④을 마실 경우 가장 어울리는 안주 중 하나가 생선회라고 할 수 있다.

회^⑤는 생선을 “단지 잘라서 먹는 것”을 말하며, 비늘과 내장의 손질을 꼼꼼하고 능숙하게 처리하여 지나치게 가공하지 않는 일본요리의 철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리이다. 회는 음식재료를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한 요리이며 칼만을 사용한다.

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참치와 같은 큰 생선은 날 것으로 먹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생선 중에서도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은 상하기 쉽고 웬만큼 신선하지 않으면 뒷맛이 개운하지 않지만, 심근경색을 막아 주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어 손질한 후 사용한다. 날것^⑦ 상태로 사용되는 어패류에는 주로 보리새우, 농어, 광어, 그리고 패주 등이 있다. 또한 참치^⑧는 혈액중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발효가 느리다는 점에서도 날로 먹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등어는 날것 보다는 식초에 절이는 것이 좋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생선초밥은 식초를 넣은 밥 위에 날 생선 또는 익힌 생선을 얹어 한 입으로 먹는 요리로 전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초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식초에는 상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가격이 일정하고 알기 쉬운 회전초밥집과 달리 목재 카운터에서 먹는 전통적인 초밥집에서는 메뉴에 가격이 적혀있지 않다. 당일 아침에 수산시장에서 사들인 도매가격으로 그 날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며, 그것은 그 집이 신선한 생선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밥이나 회를 뜨는 전통요리사에게 있어 칼은 매우 중요한 도구로 수염을 깎을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잘 갈아서 쓰고 있다. 또 생선을 처리할 때에는 주방용 칼뿐만 아니라 손이나 도마, 칼의 손잡이 등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가정 시간에 배울 정도이다.

최종 처리 단계까지 사람의 손이 생선에 닿는 생선초밥은 회 이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요리사의 손 위생상태, 더 나아가서는 조리장 전체가 깔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초밥요리사는 명심해야 한다.

雜煮

한국의 “김장”과 같이 12 월이 되면 가족이 모여서 떡을 치는 가정도 많고, 또 국회의원이 12 월에 받는 보너스를 “김장보너스” 아닌 “떡값”이라고도 한다. 닭고기 또는 생선, 야채 등을 넣은 국에 떡을 넣고 끓인 떡국은 일본의 새해 식탁에는 빼놓을 수 없다.

일본동부 지방의 떡국은 대체로 네모난 떡을 노릇노릇하게 구워 넣는다. 재료로는 당근, 소송채, 닭고기, 어묵 등을 사용한 것이 많고 국물은 간장과 소금으로 맑게 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근은 잔뿌리를 손질하지 않고 그 대로

먹는데, 그것은 갈라지는 잔뿌리는 자손을 의미한다든지 노인의 수염을 상상시켜 불로장생을 의미한다든지 아무튼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 서부지방에서 만드는 떡국은 작은 찹쌀떡을 굽지 않고 넣는다. 재료는 푸른 채소와 닭고기에 토란의 껍질을 벗겨 통째로, 또는 둥글납적하게 썰어 넣기도 한다. 닭고기 외에도 소금에 절인 방어 또는 연어알을 넣거나, 달콤한 팔소와 찹쌀떡을 넣은 떡국도 있다. 각 지역과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조리방법을 고집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떡과 재료를 함께 삶는 곳도 있지만, 야채의 쓴 물이 생기거나 고기나 생선냄새가 남기 때문에 재료는 따로따로 미리 손질하는 것이 좋다. 각각 손질한 재료를 밀폐용기에 넣고 냉장고에 보존해 두면 언제든지 떡국을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닭고기는 녹말가루를 얇게 골고루 묻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건져내면 본래의 고기맛이 빠져나가지 않고 나중에 국물이 탁해지지 않는다.

신정때는 신에게 크고 작은 두 개의 찰떡을 올리고, 1월 11일에 그 딱딱해진 떡으로 단 팔죽을 만들면 비로소 신정이 끝난다고 한다.

そば

일본에서는 평생을 바쳐 면을 만들려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요리사들이 직접 만든 라면이나 우동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는데, 일본동부지방에서는 메밀국수를 자주 먹는다. 메밀가루에 밀가루와 물을 넣고 반죽한 후 밀대로 얇게 밀어서 가늘게 자른 쫄깃쫄깃한 국수가 메밀국수이다. 메밀 한 알 마다 배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쌀보다 영양가가 높다. 또 살이 찌서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살을 빼기 위해서 메밀국수를 먹는 사람도 있다.

메밀은 마른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빨리 크는 것이다. 그러므로 흉년이 들면 귀중한 구황식물이 되기도 하였다. 17 세기에 들어와 성 건축과 대규모

도시계획이 진행되던 에도는 인구^⑦ 백만명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활기찬
도읍이었다. 당시 도시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마을사람들을 상대로 한
포장마차^⑧가 잇달아 들어섰다. 그 중에 메밀국수를 삶아^⑨ 물에 살짝 씻고 찜통에 찐
다음 송송 썬 실파를 놓고 간장소스에 찍어 먹는 간편한 음식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후 메밀국수는 출출할 때 먹는 “간식”으로 에도서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더구나 비타민 B1, B2 등을 풍부하게 함유한 메밀국수는 뛰어난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영양분들은 물에 녹기 쉬워, 메밀국수를 삶을 때 삶은 물도^⑩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간장소스에 넣어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 그런 이유에서
 설날그믐날 밤에는 긴 국수처럼 오래 살라는 뜻을 담아, 일본인들은 메밀국수를
 먹는다. 이런 식습관은 영양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인 지혜였던 것이다.

鍋物

몸에^① 사무치도록 추운 밤이지만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끼리
먹고 싶어지는 것이 “스키야키”이다. 특히 칸사이지방에서 자주 먹는 것은
고급스러운 연한 핑크색을 띤 쇠고기를 철판 냄비에 올려, 달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날계란에 찍어 먹는 불고기식 냄비요리이다. 식욕^③을 돋구는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달걀물에 찍은 고기가 입 속으로 들어간
순간 녹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시간이 지나 물기^④가 자작자작해지면
 다시 물을 부어 간장과 설탕, 술 등으로 간을 맞춘다.

스키야키와 함께 인기가 있는 냄비요리가 “샤브샤브”이다. 이것은 원래
베이징^⑤에서 양고기를 먹는 냄비요리가 그 원조라고 한다. 냄새나고 질긴^⑥
양고기를 못 먹었던 일본인들은 양고기 대신 얇게 썬 쇠고기를 펄펄 끓는 육수
속에 살짝 담갔다가 양념장에 찍는 “샤브샤브”로 먹었다. “시모후리”라는 살코기^⑦
속에 조밀하게 지방이 들어간 최상의 쇠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이
 샤브샤브이다. 절반^⑧ 정도 익은 고기는 매우 부드러워 입 속에 넣으면 살살 녹는

듯이 맛있다. “샤브샤브”란 이름은 육수^⑨ 속에 쇠고기를 담그어 짓는 모양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고기밖에도 새송이버섯^⑩이나 팽이버섯, 물에 불린 표고버섯, 부침용 두부가 아닌 부드러운 두부 등도 한입으로 먹기 편하도록 가지런히 잘라 둔다.

양념^⑪으로는 깨를 갈아 간장 등으로 맛을 낸 깨소스와 꿀 등의 과일 즙을 간장과 섞은 새콤달콤한 소스를 준비한다. 처음에 고기를 먹고, 그 후 고기^⑫를 우려 낸 국물에 야채 등을 넣어서 먹는 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다.

おはぎ・ぼたもち

“오하기”라는 찐^① 찹쌀에 팔고물을 묻힌 달콤한 경단과 같은 떡으로 “보타모치”라고도 한다. 그^② 표면에 묻은 팔고물에서 떨어지는 고물을 가을에 피는 “하기(싸리꽃)”에 비유해 “오하기”라고 불렀다. 한편 보타모치는 “보탄”, 즉 봄에 피는 탐스러운 꽃송이의 모란꽃을 닮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먹성^④좋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경단은 아이 주먹만한 크기에 통통하고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찹쌀떡에 팔고물을 묻힌 것이 기본이지만, 콩^⑤을 같은 콩가루나 검은 깨를 표면에 묻힌 것도 있다. 제과점에서는 날개^⑥로 팔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콩도 유전자변형 식품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히간(彼岸)”이라는 행사때 먹게 되었다. “히간^⑧”이란 춘분과 추분을 전후해 조상에게 공양을 드리는 일본고유의 풍습인데, 그 날이 올 때마다 생각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오하기이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②アニメ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アニメの原点

일본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생겨난지 약 9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세계 제일의 애니메이션 대국이 되었다. TV 나 인터넷 동영상으로 애니메이션을 즐기고, 또 동인지를 만들거나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소위 “코스플레이” 를 즐기는 세계각국의 애니메이션 팬들. 이처럼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인기의 비밀을 밝혀 본다.

일본인들은 오래전부터 만화에 친숙해 왔다. 7세기 초에 건설된 법륭사(法隆寺)에는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불상의 제단이 있다. 서민들의 오락인 만화의 기원을 불교문화에서 찾는 것은 “우물에서 송충이 찾는 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제단 측면그림의 상단에는 벼랑 위에 서 있는 황태자가, 가운데에는 몸을 던지는 황태자가, 하단에는 호랑이가 황태자를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현재의 만화와 아주 비슷하다. 또 12세기에 그려진 두루마리 그림 “조수희화(鳥獸戲畫)”에 그려진 동물들은 오늘날의 만화 캐릭터와 다르지 않다. 18세기가 되어 오사카에서 그림과 스토리가 목판 인쇄본으로 출판되었다. 삽화라는 형식의 상품성 만화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정지상태의 화상을 움직이는 것도 시작되었다. 그것은 등장인물의 형태를 오려낸 그림을 손가락에 끼우거나 대나무에 붙이거나 해서 만든 것을 등불에 비춰 노는 그림자 놀이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서민이 만화를 즐기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외국에서 인기있는 이유를 알 것이다.

漫画からアニメへ

1980년 전후에 필자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저질”애니메이션은 하루에 30분 이상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친구랑 만날 때마다 “어제 ○○를 봤느냐”는

것이 인사말이었다. 때로는 배꼽을 쥐고 웃으며 때로는 애뜻함에 가슴을 저리며 날마다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그 때 인기가 있던 작품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세대는 물론 1940 년대에 태어난 부모 세대도 만화를 빌려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만화의 폭넓은 저변층이 히트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가운데에도 특히 스포츠에 정열을 쏟는 소년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많이 등장했다.그 스토리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먼저 뛰어난 재능과 끈기를 겸비한 주인공이 스포츠 씨클에 들어가 울고 웃으며 팀워크를 다져 승리로 이끄는 작품이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

야구선수를 동경하는 소년이 메이저리그 선수와 대결하기 위해 인내심있게 연습하는 모습과 부자지간의 갈등을 그린 “거인의 별”.그 붐은 야구붐을 일으켰고, 각지에 야구연습장이 생겨나 공을 치는 소년들로 붐빌 정도이었다. 또 과자의 덩으로 붙어있는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이 그려진 딱지로 딱지 치기를 하는 것이 유행했고, 지금도 TV 광고에 나올 정도 그 인기는 매우 높다. 어떤

프로야구선수는 그 소년시절을 상기하며 이렇게 말한다. “국민학교 때는 “거인의 별”을 보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 야구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몇번이나 졸랐는데, 처음에는 하반신을 단련하기 위해 하는 토끼똥이 오히려 몸을 해친다고,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마지막에는 알아서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최근에는 인생의 장래까지 결정지어주는 애니메이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더욱더 그러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백마를 탄 왕자”에 대한 짝사랑 등을 테마로 한 작품도 많지만, 남자아이들 처럼 스포츠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생겨났다. 배구의 세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소녀들의 이야기, “어택 넘버원” 이 인기를 얻었다. 이와 같은 작품군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크게

히트했는데, 이와 동시에 만화잡지의 발행부수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70 년대에 접어들면서 “마징가 Z”, “우주전함 V 호” 등 SF 액션 작품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지구를 외계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벌어지는 우주전쟁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SF 붐을 일으키고, 흥행을 위해 제작된 같은 제목의 영화로 보다 폭넓은 층에게 어필하게 되었다. 그 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성인들도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다. SF 이외에도 권총과 시퍼런 칼을 찬 도둑의 일당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때로는 영탐하면서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루팡 3 세” 등 성인용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도 남녀노소 구분없이 인기를 끌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아이들만이 즐기는 것이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그러한 “어린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대 일본에서는 잘 못된 생각이며, 회사 임원이나 정치가들까지 모두 즐기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철학이나 문학, 환경문제, 전통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테마가 없고, 서적이라는 매체가 표현하지 못하는 테마조차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너구리와 인간과의 교류를 그린 작품 “라스칼”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려 주고 있다. 또 21 세기에서 온 로봇이 낙제점만 받는 소년을 도와 주고 심술 꾀은 골목대장이나 비위에 거슬리는 소년들과 친구가 된 작품 “도라에몽”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일본만화라고 할 수 있다.

世界に受け入れられた日本アニメ

2003 년 아카데미상, 베를린영화제 등 국제적인 영화상을 싹쓸이하러 시상식에서 주목을 받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채 세계각국에서 방영되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주었고, 90 년대에 들어서는 전세계에 일본 애니메이션의 열성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을 예로 들면 1960 년대는 “우주소녀 아톰”, 70 년대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나 “캔디 캔디”, “엄마 찾아 삼만리”, “독수리 오형제” 등, 80 년대는

“숫돌이”, 90년대는 “김전일 소년의 사건부”, “호빵맨” 등이 일본 작품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채 방영되었다. 외국에서도 실뜨기밖에 못하는 비실비실한 소년을 도와주는 로봇 “동짜몽 (도라에몽)”, 중국역사소설 “수호지”와 “서유기”를 바탕으로 그린 “드래곤볼” 등은 아시아권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동심에 깊은 인상을 주었고, 디즈니에 버금가는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비디오나 DVD, 만화책들은 현지의 언어로 번역된 해적판이 버젓이 나돌 정도로 보급되어 있다. 그 결과 역설적이지만 일본 작품의 지명도도 높아졌다. 요즘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보급되어 비싸긴 하지만 어느정도 정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 중 60%이상을 제작할 정도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본의 외화보유고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본에 있어서는 “화수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アニメーターの存在

애니메이션 제작의 뒷받침 역할을 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생활은 운택하다고는 할 수 없다. 동경 미타카 (三鷹) 시에 자리잡은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宮崎駿) 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지브리 미술관”상설전시실인 화실에는 영화의 자료와 화필, 그리다 만 밑그림 등이 널려있는 책상이 놓여 있는데, 미야자키 감독이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애니메이터들의 직장이나 생활은 일본판 “88만원세대”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개미와 같이 일을 하는 한편, 그 수입은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일본에서는 애니메이터의 일터의 절반이상이 네리마 (練馬) 구와 스기나미 (杉並) 구에서 집중되어 있는데 대기업이 아니고, 독촉받기 일췌인 영세하청업자가 대부분이다. 애니메이터는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수입도 불안정한다.

필자는 인연이^⑤ 달아서 동경 기치조지 (吉祥寺) 에 있는 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했다. 어수선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애니메이터는 이렇게 말한다. “애니메이터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초면인^⑦ 사람들은 저를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같은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수입도 별로 없고 출퇴근시간의 개념 이 없을 정도로 장시간근무를 하고, 또 마감 직전에는 사무실에 꼬박 갇혀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에, 제작업무를 하면서도 “구직센터^⑪”에 가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한 현실도 모르고 단지 흥미에^⑫ 끌려서 무작정 뛰어들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어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저는 보다 재미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들의 밝은 미래와 연결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누가 뭐라해도 무지무지하게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니까요.”

秋葉原探訪

필자가 학생있었던 1980 년대에서 90 년대에 걸쳐, 매니어를 가리킨 “오타쿠”라는 말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단어였다. 취미와 코드가^① 맞는 사람끼리 사귀며, 보통사람들은 싫어했다. 적어도 “나는 오타쿠다”라고 밝힐 수는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지”격인 아키하바라 지역에는 약간 관심은 있었지만 아키하바라의 매력을 알려주는 가이드와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또 “격세지감^③이라고 할까, 어느 덧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오타쿠들이 만든 대중문화가 산학연구로 경제성적 효과가 생겼거나 정부와 제휴하여 “쿨 재팬 캠페인”의 대표격이 되었기 때문에 아키하바라를 산책하기로 했다. 거기서 본 것은 모양새만은 오타쿠 문화인데 사실은 그들 모두는 일본전통문화의 진수였다.

집합장소인 관광안내소의 “물음표”를 찾았다. 먼저 모든 점포가 모두 아이쇼핑할 수 있기 때문에, “탐험”해 봤는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많았다. 어렸을 때 놀던 용수철로 움직이는 미니카, 그리고 소년시대에 봤던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지우개나 봉제인형, 캘린더, 또 정교한 피규어 등, 마치 “죽마고우”를 만난 것 처럼 정겹고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장르를 넘나드는 300 가량의 캡슐뽑기가 나란히 놓여 있어, 30년만에 한번 해 봤다.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1970년대의 비디오게임 “인베이더”였다. 다운로드받으면 최신형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인기가 있는 것이 기적이었다. 한국인이나 중국인과 비교하면 일본인은 옛것을 고스란히 남기는 “보수적인” 취향이 있는데, 이런 게임에도 그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아키하바라에 가면 반드시 먹는 것이 “오뎅 통조림”이다. 이어령은 일본문화의 특징을 분재, 소형차, 워크맨 등 큰 것을 작게 만든 “축소지향”이라고 정의했는데, 냄비로 끓인 오뎅을 통조림으로 축소시켜 자판기로 판매하는 것도 그 예이다.

아키하바라에서 2000년대 “메이드 카페”가 우후죽순과 같이 생겨났다. “메이드 카페”는 20살 전후의 메이드, 즉 웨이트리스가 대접해 주는 카페를 가리킨다. 애니메이션 세계에서 나온 것만 같이 애처로운 메이드들을 보고 마음이 설레는 남성고객도 많다. 카페의 장식은 일부러 아마추어답게 꾸며져 있다. 카페로 들어가자 “다녀오셨어요, 도련님(아가씨)”이라는 말이 들린다. 여기서는 손님이 주인이며, 자기집에 돌아온 걸로 가상하고 있다. 안을 기웃기웃 유심히 살폈는데, 손님은 80%가 남성이며, 여성객은 20% 정도였고, 그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음료수는 그냥 음료수이지만, 메이드와 같이 “주문”을 웁으면 음료수 맛이 좋아진다고 한다. 또 메이드카페 명물 오므라이스는 “도련님”의 신청을 받아 오므라이스에 케첩으로 그림을 그려 준다. 다정다감한 말투로 말을 걸어 주는 그들은 남성들의 “로망”이며, 완전히 몽클해진 손님 가운데는 날마다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10 년 이상 계속된 카페^㉞들은 모두 메이드의 인기에 공을 돌린다. 1000 년 전에 쓰여진 연애소설 “겐지 이야기”에도 메이드들처럼 성숙되지 않는 소녀를 좋아하는 주인공이 등장했고, 또 같은 시기에 쓰여진 수필 “마쿠라노소시”에도 아이가 가지는 순수함을 “귀엽다”고 해서 사랑하는 문장이 나온다. “귀여운” 유치함을 상품화시킨 것이 메이드카페이다. 보수성, 축소지향,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것 등, 일본 전통적인 가치관이 여기서도 살아 있다.

通訳案内士試験 韓国語で学ぶ日本②環境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日本環境問題史

일본의 환경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19세기 말 도치기(栃木)현 아시오(足尾) 구리광산의 광도에서 흘러나온 광독이 홍수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광산으로 인한 나쁜 영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진상규명을 할 엄두도 못내고 방치되어 있었다. 그 후 광독의 위험성이 부각되어, 국회의원 다나카 쇼조(田中正造)를 선두로 농민들은 드디어 쫓기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공업입국 일본”을 상징하듯 각지에서 공업대학과 공단 등이 건설되었다. 몇년 후 고도경제성장의 “부산물”로서 공장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로 인한 산성비가 각종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안전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환경파괴의 피해를 입은 것은 인간 뿐만이 아니다. 신천옹, 황새 등 귀중한 야생조류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공해재판이 잇달아 열렸고, 일본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일지 모르지만, 뒤늦게나마 1971년에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공서로서 “환경청”이 설립되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지구온난화방지회의에서 일본은 2010년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수준에 비해 6% 감축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되었다. 그 후 일본 전국각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실시되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철저화도 그 하나이다.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대형쓰레기라는 구분은 전에도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등도 구분하는 지역이 많아졌다.

또 학교에서는 자연 시간에도 환경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 온실가스의 80%이상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된 최근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주효하면 조만간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中国の砂漠化問題と日本

경제 발전의 부산물로 중국을 덮치고 있는 환경문제가 너무 심해, 그 영향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서부지방에서도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특히 큐슈지방에서는 대기중의 세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가 급증했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 미터이하로
되어, 공항에서는 자주 결항이 발생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몽골과
중국북부에서 생긴 황사가 주된 원인인데, 그 황사는 본래는 세계적인 사막화에
기인된다. 그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 길어다 쓸 물이 없는 것은 물론, 선인장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토양이 펼쳐져 있다. “푸른 지구 네트워크”는 녹지를
재생시키는 활동을 하는 비정부조직이다. 이 조직은 중국의 환경문제를 염려하는
T 사무국장이 뜻을 품고 걸프전쟁이 끝난 199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관개하기
어려운 토지에서도 잘 자라는 소나무를 심는 일을 중심으로 손에 괄이와 삽을 들고,
구릉지에 식목을 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말한다.

“소나무는 1m성장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도 가뭄에 시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애를 쓴 보람도 없이 그야말로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남기려면, 무조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목이외에도 사회구조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도 많았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치 못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하산인사로 내려온 담당자가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공연히 뇌물을 요구하고, 거절하자 저를 비난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질^⑩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었습니다. 또 부정으로 일본^⑪에서 온 자금을 횡령하려고 하는 부하들도 한 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짓을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상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빨리 인수인계를 마치고 귀국하고 싶었어요. 실은 동경^⑭ 본부 앞으로 귀국요망서를 보낸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국인을 보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의 1 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중국인의 약 3 배 이니까, 중국인만을 비판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는 속담과 다름 없죠. 환경문제^⑮의 “진범” 은 자연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인재육성과 재배기술의 개선에 힘을 기울여 숲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한다.

風の谷のナウシカ

“원령공주”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등 신도적인 세계관을 그린 작품으로 알려진 마야자키 하야오 (宮崎駿) 감독의 1984 년 작품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는 인간의 이기주의와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단순한 오락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하는 그 작품의 줄거리이다.

“지구 종말 전쟁”이 일어난 지 1000 년이 지나 황폐해진 지구는 부해(腐海) 즉 오염된 바다에서 뿜어나오는 유독 가스와 그곳에 사는 거대한 유충이 인간의 삶을 위협했고 사람들은 방독면 없이는 근접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해저에서는 곰팡이^③의 숲이 펼쳐지고 유독가스도 나오지 않아 평화스러웠다. 그러한 계곡은 부해 가까이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바닷바람의 덕택으로 유독가스의 위험을 피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 주인공인 나우시카는 바람계곡의 공주로서 “메베” 즉 “갈매기”^④라고 불리는 글라이더를 능숙하게 다루며

바람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혜로운 소녀이다. ^⑤ 또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유충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어느 날 한 군사대국이 “지구 종말전쟁”에서 지구를 불태워버린 로봇병사를 빼앗아 왔다. 그 목적은 오염된 바다를 태워버리고 지구상에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위한 것이었다. 로봇병사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도시국가도 ^⑥ 수수방관하지 않고 복수하기 위하여 거대한 유충을 군사대국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바람계곡으로 유인하였다. ^⑦ 유충의 무리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기세로 난폭하게 바람계곡으로 향했는데, 그 앞에 나우시카가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러자 유충은 ^⑧ 촉각을 뺏치며 신비로운 힘으로 죽은 나우시카를 회생시키고, 바람계곡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⑨ 시대를 내다보고 제작된 이 한 편의 영화는 1984 년에 공개된 작품이면서도 마치 2011 년의 세계를 예상한 것 같다.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힘을 가진 로봇병사는 즉 원전이며, 그것을 군사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군사대국은 즉 핵보유국이다.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는 정치가 중요할 뿐 방사능에 해당하는 “^⑩온갖 악의 근원”인 유독가스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도시국가는 원전가동국이며, 이러한 국가에서도 ^⑪ 편리함이 우선이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전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자족하며 생활하는 “^⑫도원향”과도 같은 바람계곡이야말로 이상향이 아닌가는 것이 제작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메시지이다.

福島原発事故と環境意識の變化

후세까지 계속될 ^① 후쿠시마 원전사고 문제에 접근할 실마리는 있는 것인지. ^② 냉해, 산사태,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살아가는 일본인의 생활에는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가 정착되어 있다. 고 할지 모르지만,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③ 허술한 피난훈련뿐이었다.

2011년 3월에 방사능으로 충만한 원전이 폭발하여, 바이러스^④와도 같이 보이지 않는 방사물질이 확산되었는데도 일본정부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⑤중대한 일인만큼 상황이 매우 얽혀 있었고, 국회에서의 논의는 공전을 계속할 뿐,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⑥날이 갈수록 각종 소문이 돌고 국민들 아니 칸 나오토 (菅直人) 전수상까지 헛소문에 휘말렸다.

^⑦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⑧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 정부의 방침은 변경을 거듭하였고, 또 소위 “^⑨언론플레이”로도 들리는, 속이 들여다 보이는 위로의 말이나,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⑩정부의 답변은 황설수설하여 이재민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일반국민들까지도 화가 치밀었다. 심지어는 국민들은 “^⑪콩으로 메주를 쑤다”고 해도 못믿을 정도까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쌓였다.

그 후는 “원전건설 추진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사고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였지만 “^⑫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10년은커녕 사고후 8년만인데 ^⑬보수언론의 언론인이나 앵커들을 중심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선전하는 사람도 등장했다. 한편 원전에 의존해야 운택한 보상금과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과소지역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같은 자치체 안에도 사람들에게 원전을 나쁘게 얘기하지 말도록 ^⑭함구령을 내리는 원전 추진파”도 있고, 한편 그들을 보고 “^⑮그놈의 돈타령”이라고 얼굴을 찌푸리는 반대파도 있다. 환경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가 ^⑯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 원전건설의 비극이다.

自然の力と神道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필자는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생활주변에서 ^⑰친환경적인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장보러 갈 때는 쇼핑백을

지참하여 비닐봉지를 받지 않는 것부터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②감소 일로에 있는 휘발유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자동차도 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이재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경^③에서 흥청망청 쓰고 있는 전력 뒤에는 희생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 몰라”할 수는 없고 뭔가 죄책감을 느꼈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④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맘을 먹고 태양광 발전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열 발전에도 장^⑤단점이 있다. 장점은 먼저 반영구적으로 작동하며, 장^⑥소를 적게 차지하는 발전시스템이라고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그 가격이었다. 구청, 도청에서 보^⑦조금 신청 절차를 해도 100 만엔이상 자기부담을 해야 한다. ^⑧필자와 같은 “계산적인” 사람은 몇년으로 본전을 뽑을 수 있는지 계산한 결과 약 12년이 걸렸고, 그 후는 날마다 이자대신에 어느 정도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후쿠시마의 사람들 앞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실^⑨속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중은 모니터를 보면서 현재 얼마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혹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필자는 1kw 당 38 엔을 받는다는 계약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면 현재 그냥 앉아서 얼마정도 “벌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재미있다. 설치한 후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의 햇^⑩빛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필자는 이즈모의 농촌에서 자라났다. 남쪽과 서쪽의 이웃에 갈 때에는 100 미터이상 걸어가야하는 시골인데, 정원수에는 여^⑪름에는 투구벌레와 하늘가재, 가을이 되면 왕잠자리 등이 날아와, 또 집 옆의 밭을 매면 벌레에 물린다. 벌레뿐만이 아니라, 봄에는 휘파람새, 여름의 백로, 가을의 기러기, 겨울의 백조 등 사계절 마다의 야생조류도 날아온다.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밭^⑫에는 팔랑개비를 꽃아 놓고, 바람이 불어와 그것이 돌아가면 그 진동으로 땅 속의 두더지가 도망을 치는 것도, 생선이나 고구마, 감 등 식재를 밖에서 말리면 햇빛과 바람이 맛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 산^⑬에 나무하러 가서 말린 나뭇가지를 장작으로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입욕을 하는

것도, 어렸을 적부터 몸에 배어있다. 자연¹⁴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보탬이 된다는 것은 시골에서는 상식이다.

이런식으로 자연의 혜택을 듬뿍 받고 있던 필자가 동경¹⁵에 올라와서 허전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자연의 혜택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원전사고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전기비용 삭감이라든지 태양열발전기 설치의 이유는 많지만 필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햇빛의 혜택-일본인들은 그것을 “아마테라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혜택을 가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通訳案内士試験 韓国語で学ぶ日本②③技術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戦後の自動車生産史

1950년대 후반, 배기량 1000cc 의 토요타가 미국의 도로를 처음으로 달렸을 때, 운전자가 아무리 액셀을 힘껏 밟아도 속도계가 꿈쩍도 하지 않고, 변속도 부드럽게 되지 않아,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들의 흐름을 탈 수 없었다. 주위의 차들이 토요타를 추월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겨우 고속도로의 흐름을 타자, 이번에는 핸들이 덜덜거리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았다. 부분 한 곳의 나사가 헐거워졌는지, 심한 진동으로 본넷의 후미가 벗겨져, 자동차의 전면유리를 덮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는데, 그 소문을 든 미국인들은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의 고물차만도 못했고,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에 도금을 한 것”이며, “일회용 자동차”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거북이운전을 하는 차량과 노건에서 잭으로 차를 들어올려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차량, 그리고 견인차가 끌고 가는 자동차는 토요타 아니면 혼다였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일본자동차 제조사의 기술력은 ‘도토리 키재기’였다고 한) 다. 지금은 신차인 경우 구입후 3 년후에 차량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50 년대에는 3 년안에 고장이 나 버렸다고 한다. 그 시대를 기억하는 어느 미국인은 이렇게 말한다. “일본차의 유일한 장점은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떼일 가능성이 없을 정도였지요.”

결코 밝은 전망은 아니었지만 일본 자동차회사는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소형차의 약점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대형차처럼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실내를 방음재로 싸버릴 수 있겠지만, 소형차는 그럴지도 못하다. 유능한 인재들

확보하여 불철주야 연구하고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였다. 또 실패하면 사고로 연결되므로 시행착오를 거쳐, 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끝에, 대형차와 비교해도 성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소형차를 만들어 냈다.

이 일에 종사한 기술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본인은 좁은 내부의 한계를 철저하게 이용함으로써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라더니, 우리들은 “대형차 수준의 승차감을 실현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저해되는 요인을 인내심을 갖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80 년대에 들어와, 미국자동차회사가 토요타의 경영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왔다.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 이란 느낌이 들어서 좀 쑥스러웠지만 회사를 좋게 평가해 준데 대해 몸들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歩留まり 100

필자는 한 때 봉제공장에서 중국어통역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일감이 풍부하여 공원들은 끊임없이 그야말로 “뼈빠지게” 일을 했다. 하지만 80 년대는 한국산이, 90 년대이후는 중국산이 유입되어, 각 공장에서는 공장노동을 일시적인 일자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해고하고, 그 대신에 중국인 연수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필자가 통역을 맡은 공장도 그러한 공장의 하나이다. 중국인 연수생 앞에서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다. “총 생산량에 대한 불량품의 비율을 “합격품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량품을 제로로 하자는 것이에요. 필자의 통역을 들은 연수생들은 겁을 먹었다.

공장장은 연수생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했다. “언뜻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합격품율도 높아지겠지요. 최종공정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부분공정 모두가 헛고생이 되겠지요.” 이렇게 말한 후, 길이 들어 잘 드는 가위를 손에 들고 공장장이 지도하기 시작했다.

같은 이야기는 반도체 칩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다른 공장에서도 들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완벽주의”야말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한편 농경사회에서는 집단의 의향에 어긋나는 개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 이런 관습이 신제품 개발에서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앞으로 일본인들이 넘어야 할 과제는 전통적인 근면주의를 이어가면서 개개인의 발상을 충분히 살려내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宇宙開発に使われる日本の技術

일본에 최초의 우주인으로서 이름을 떨친 인물, 모우리 마모루(毛利 衛)씨는 우주개발과 일본의 기술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주에서 행성탐사를 하기 위해 이미 일본기업의 제품과 부품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아직 NASA 가 찾아내지 못한 우수한 일본제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우주자외선에 관계된 제품과 부품뿐만 아니라, 우주식량의 맛의 개선과 일용품의 개량 등 우주에서 쾌적하게 지내기 위한 기술입니다. 또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지구와 다르기 때문에, 우주생활에 맞는 식품이 필요합니다. 사전답사도 할 수 없는 우주공간과 같은 분야에서는 꼼꼼한 일본인의 감성에 의한 제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육성할 터전이 필요합니다. 일본과학미래관은 체험형 전시와 교류를 통해 최첨단기술을 접하고 일반인들이 과학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우주에서 무엇이 가능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식견을 넓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주개발분야에 진출하는 인재의 배출이 기대됩니다.”

地雷原を畑に—世界平和に貢献する日本の技術

전쟁의 “슬픈 잔재”인 대인지뢰 처리기 개발에 히타치(日立)의 관련기업이

제조에 착수한 것은 1995 년이었다.

“전세계에는 1 억수천만 개나 되는 대인지뢰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수작업으로 지뢰를 제거한다면 이 문제는 몇천년이 걸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A 사장이다. A 사장의 부친은 전쟁이 끝난 후에 불발탄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뢰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동병상련”의 느낌을 받았다. 또 현지인들로부터 기술협력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 사장의 결단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지뢰밭은 긴 세월이 흘러 황무지로 되어 있거나 관목 등이 무성한 곳이 많아, 지뢰제거 작업원은 겁을 먹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뢰제거와 동시에, 이 지뢰 제거후의 토지를 농지로 개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는 지뢰밭을 비옥한 농지로 바꾸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유압셔블에 부속장치로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로터리 컷터를 붙였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그 컷터날로 관목, 작은 돌 그리고 지뢰조차도 산산조각으로 부수며 땅을 가는 것이다. 5 년에 걸친 연구결과, 칼날이 무더지지 않는 성질을 갖춘 초합금 컷터날이 개발되었다. 이 기계는 지금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니카라과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기계가 일군 캄보디아의 밭은 지금 해바라기 밭으로 되어있다.

ロボットは友達

일본의 산업용 로봇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특히 인간형 로봇 개발이 유명하다. 자동차회사로 유명한 혼다가 인간형로봇을 제작하기 위해 동물의 걷는 모습을 관찰하고 인체 관절의 움직임과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학서적을 참고하면서 로봇제작 프로젝트를 발족시킨 것은 1986 년이었다. 인간형 로봇의 개발은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연구였다. 12 년후 인 1997 년, 혼다는 몸 길이 120cm, 체중 52kg 인 두발 보행 로봇 “ASIMO”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두발 보행 로봇의 개발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연구원들은 인간형 로봇의 가능성을 확신했다. ASIMO 가 발표되자 그 안정적인 걸음걸이에 많은

연구원들이 일순 숨을 죽였다. 그 뿐만 아니라 허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팔 힘도 강하고 엉덩방아를 찢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우주소녀 아톰”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된 이 로봇은 동경 오다이바의 과학미래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간형로봇이 우리 집안에서 같이 생활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서양인들은 로봇을 “저거 가져 와, 이것 들어……” 라고 인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와 같은 존재 또는 프란켄슈타인과 같이 인간에게 반역하는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상식”은 일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만물에 생명이 깃들여 있다는 신도의 영향일지도 모르지만 “우주소녀 아톰”, “도라에몽”, “마징가 제트”등도 인간과 함께 살며 정도 많고 인간을 이해하는 존재로 본다.

인간형 로봇은 인간의 도우미로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이 요구된다. 한편 머리카락 한 올까지 실물처럼 사랑스럽게, 또는 아무지게 생긴 “미소녀 로봇”도 제작되었다.

앞으로는 아이가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장가를 불러 주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에는 수발을 해 주기도 할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또 함께 생활함으로써 가족처럼 정이 들어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多言語ロボット/通訳ロボット

2005년에 개최된 아이치(愛知)엑스포에서 선보인 인간형 로봇 actroid의 존재에 대해 필자는 알고 싶어졌다. 그것은 이 로봇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12살에 영어, 15살에 중국어, 18살에 일본어교육, 21살에 한국어를 배워 어학연수도 해 온 필자로서는 actroid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호적수”와도 다름이 없었다. 다언어 로봇이 인간을 제치면

해야할 일을 잃은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젠가 만나고 싶었는데, 그 다음 해 일본 과학기술관에서 그 “임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20 대 초반으로 보이는, 총기⁵있게 생긴 얼굴이 특징적인 로봇이었다. 견학자들이 몇명 줄을 서서 그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Actroid 의 첫인상⁶은 별로 호감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인간이 하는 말을 잘 못알아 듣는 것이 많고, 모르는 경우⁷에는 립싱크로 우물쭈물하거나 멍하게 이쪽을 보기 때문에 어색했다. 또 외모는 미인이었지만 성형을 한것 처럼 보이는 “성형미인⁸”였다.

드디어 필자의 순서가 왔다. 4 개국어로 “승부”하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 날은 “Japanese language only”라는 표시가 붙어져 있었다. 막판에 적군이 도망친 것같은 느낌였다.

그 후 몇년이 지나, actroid 의 성능도 향상되었고, 또 영-일, 중-일 번역은 실용적인 소프트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한-일 번역은 어느 정도 적적¹¹해내는 소프트도 나왔다. 한-일 간의 언어학적인 차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인이 일본어를,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지. 필자는 “꿩 대신 닭¹³”식으로 로봇이 완벽하게 인간을 대신하여 번역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수요가 많아져도 일본어와 한국어에 정통한 인재가 없으면 표면적인 번역밖에 못하기 때문이다. 문법적으로도 어휘적으로도 비슷하고 번역하기 쉽다고 생각되지만 상대방의 심중을 미루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않는 일본식 커뮤니케이션을 로봇이 헤아려 번역할 수 있을까.

또 필자가 그 날 actroid 를 보았을 때, 어딘지 그가 차갑다고 느꼈다. 어학력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 어휘량만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로봇에 뒤진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고객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고객의

발언을 가장 적당한 말로 번역하기 위해 미리 고객과 상의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만약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함으로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다음의 찬스를 다짐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는 말 처럼 가장 효과적인 단어를
순간적으로 고르는 기술. 이 기술은 아무리 컴퓨터의 기술이 진보되어도 인간이
우월하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분야이다.

通訳案内士試験 韓国語で学ぶ日本^㉔福祉

問題：下線部を日本語に訳しましょう。

育児と福祉

여성이 임신해서 출산을 하면 정부에서 출산육아금이 지급되고, 이 보조금을 가지고 출산비용에 보탠다. 그 밖에도 지출할 비용이 많아, 아기침대와 유아복, 기저귀, 포대기, 그리고 딸랑이 등 장난감까지 준비해야 하지만, 즐거운 비명과 함께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 친척들이 모여 “엄마를 닮았다, 아니 아빠를 닮았다”라는 등 웃음꽃을 피우면서 모두가 축하한다.

일본에서는 “몸은 떠나 있을 망정 마음만은 곁에 있다”는 뜻으로, 자른 탯줄을 작은 동나무 상자에 넣어 아기와 어머니를 맺어준 정표로 소중히 보관하는 습관이 있다. 어머니들은 “모자건강수첩”에 출산후의 수유에 관한 기록이나 소아과 진찰기록 등 여러가지를 기록해 놓는다.

출산후 2 주일내에 출생신고를 하면, 3 살이 될 때까지 매달 1 만엔 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육아란 틈나는 대로 조금씩 하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쏟는 어머니들도 적지 않다. 젖이 먹고 싶어서 응애응애 하며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달래거나 아무런 근심없이 천진스럽게 잠자는 아기 곁에 누워 잠이 들 때는 기진맥진한 생활 속에서도 모정이라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생후 7,8 개월이 지나면 젖니가 나고 영금영금 기기 시작한다.

3 살이 되면 부모는 아직도 울어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무럭무럭 자라는 성장기의 아이들은 실외에서는 모래장난이나 흙장난을 하고, 미끄럼틀, 정글짐 등 놀이기구에서 놀기도 한다. 또 실내에서는 공기놀이나

집짓기놀이, 구슬치기 등을 하고, 바람개비와 대나무로 물총 등을 만드는 법도 배운다. ¹⁴지육의 발달을 위해 끝말잇기나 수수께끼를 하는 경우도 많다.

각 가정의 방침에 따라서는 ¹⁵영특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영어나 미술, 악기 등을 배우게 하는 소위 “치맛바람”이 일본에도 있다. 아이의 장래를 대비하고, ¹⁶4,5 살 꼬마가 학원에서 계산이나 한자의 쪽지시험을 보는 장면도 TV 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러한 어머니들 가운데에는 ¹⁷다 큰 아이를 끼고 사는 사람도 많다. 한편 ¹⁸아이응석을 너무 받아준 탓에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게 만드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아이들이 6 살이 되면 사회복지의 대상외가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少子化と結婚しない若者たち

일본의 65 세 이상 인구는 1/4 를 차지해 고령인구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이 되었다. 한편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¹공원에서 솔래잡기나 숨바꼭질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 아빠의 목말을 타는 아이들, 엄마가 밀고 있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는 아기들은 이전보다 감소했다. 아이들이 있더라도 ²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모도 많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결혼생활과 독신생활을 저울질하는 독신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결혼한 후에도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옛날같이 ³“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배우자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⁴극단적인 경우는 신혼여행중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있을 정도이다.

그 결과 지금 일본에서 여성이 출산하는 아기는 1 인당 1,4 명이며, 한국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면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복지제도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⁵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납세자가 있어야 안정적인 복지제도가 완비된다.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결혼하지 않고 ⁶동거생활하는 커플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정도에 불과하다. 또 어떤 라디오 프로의 “청취자의 사연 코너”에서 소개된 바에 의하면 소위 “속도위반결혼”도 전체 부부의 약 1/4이며, 20대 초반의 커플에서는 2/3를 차지한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결혼을 원하지 않는가.

90년대 이후, 직종을 불문하고 정사원 즉 직장의 중심역할을 하는 일자리가 감소되어 젊은 층의 취업률이 저하되었다. 한편 생활기반이 취약해짐과 동시에 연약하고 내성적인 남성들이 증가한 것도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증가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파트타임 노동으로 인해 경제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자의 약 30%이상을 차지한다. 일본기업은 한국과 비교하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당 연도의 졸업생을 중시하며 일단 취직한 후 전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고도의 기술이나 경력이 요구된다. 또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은 인내심이 결여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면 잘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선입관도 뿌리 깊다.

안정된 직장이 없는 사람이나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젊어서 노숙자가 되는 젊은 층도 급증하고 있다. 안정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집을 얻지도 못하고 PC방 등에서 숙식하는 젊은이들은 대도시 공원 등에서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노숙자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아무리 굶주림에 괴로워도 구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대로 가면 결혼은커녕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혼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청첩장은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기모노나 “족두리”에 해당하는 흰색의 모자 등 신부의 의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례는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등은 물론 축의금 예상과 답례품의 예약도 중요하다. 또 새로운 집을 구입한다면 외곽 신도시의 아파트로 할 것인가 단독주택으로 할 것인가는 물론, 내진구조와 새집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택 내부에 관해서는 방의 구조 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성들은 부엌의 싱크대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쓰는 경우도 많다. 물론 주택의 가격도 중요하며,

어떻게 계약금을 마련할까도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계산하면 할 수록 결혼이라는 것은 꿈도 못꾼다고 느끼는 젊은 층도 적지 않다. 저출산율이라는 사회문제는 빈곤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먼저 빈곤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다.

ニート生活 30年だったおじ

필자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환갑잔치를 했다. 70년대인 그 날 찍은 기념사진을 보고 새삼스레 놀란 것은 친척들이 아주 많았다는 점이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작은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고모부, 어머니와 외삼촌까지 1930-40년대에 태어난 우리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다. 필자의 부모가 태어난 1947년 그 당시는 일본에서도 다둥이 엄마들이 많았다는 것도 수궁이 간다. 그 세대는 늙을수록 한층 원기왕성하며 연세를 알아맞추기 힘든 어르신들도 많다.

우리 친척 가운데서 며느리를 보지 못했던 사람은 외삼촌 1명 뿐이었다. 그 이유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령기가 되면 선을 보았고, 잘 맞는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친척이나 상사, 친구 등 주위에서 남성으로 하여금 청혼하도록 권유했었기 때문이었다. 또 여성측도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 한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암묵적인 양해”로되어 있었다. 만약 “나잇값”을 못하면 부모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결혼한 후 며느리는 잔소리를 좀 듣더라도 시부모를 잘 모시고 귀여움을 받아,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한가한 노인들이 아이를 보살펴 주었다. 필자도 그렇게 해서 할머니, 외할머지 집에서 자랐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외삼촌은 학생시절에 성적이 아주 좋았고, 친척 가운데서는 “장래가 촉망된다”고 여겨왔다.그 지역의 “특목고”에 해당하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유명한 대학에 진학했으나, 1970년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취직을 못하고 방탕하다가 귀향해서 나태로운 나날을 지내게 되었다. 학력에 어울리는 직장이 있어도 월차가 적다든지, 복지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하는 등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모처럼의 기회를 차거나 했다. 취직할 조짐이 보이지 않게 된 딱한 외삼촌은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어 조바심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연로하신 부모님, 즉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숨을 지으면서도 아들을 취직시켜, 장가보내고 싶어 했다. 부모들은 엄격한 주입식 교육으로 유명한 중학교 정교사였는데, 그 “사랑의 매”도 자기 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외삼촌이 일을 시작한 것은 작은 할아버지가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생명을 선고받아 통증을 덜게 하려고 호스피스에 입원하면서부터였다. 필자가 병문안 갔을 때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링거주사를 맞으시면서 “눈 감는 날이 오기 전에 제 구실 할 수 없었던 자식이 귀찮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해서 기쁘다”고 말씀하셨다. 병은 차도가 없었고, 그대로 돌아가셨다.

외삼촌은 그 후에도 마을의 초밥 레스토랑에서 죽어라고 일을 했다. 60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기보다는 결혼생활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주위사람들도 이제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친척들의 외삼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진 모양이다. 필자도 결혼은 “의무”보다 “중요한 선택안”이 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育メン修行?

중국인 아내와 결혼한지 7년,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아이를 겨우 갖게 되었다. 아내가 임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아내는 입맛이 잃어 1달에 7kg 정도 살이 빠졌다. 또 말끝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여, 집에 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학생 시절의 친구가 3시간만 아이 봐 주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했다. 필자는 아이를 볼 줄 몰랐는데, 다음 해의 “예습”으로 연락해 봤다. 사실은 필자는 육아같은 것은 도저히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남녀가 유별하다”는 의식이 있었고, 육아를 한 적이 없었다. 한편 왠지 강한 호기심도 있었다. 친구는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필자에게는 말길 수 없는데, 그 대신에 한 번 놀러 오라고 해서 지난번에 가 봤다.

친구 아파트에 들어가, 1살 터울인 아이들을 봤다. 형은 두 살, 동생은 한 살이다. 동생은 우주복을 입고, 공갈젓꼭지를 물고 자고 있었다.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시절 하루종일 입씨름을 하듯 토론하던 사이였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는 수학 교사로 취직하여, 이미 학교 밥 20 년이다. 그는 성적이 좋았고 소위 우등생였는데, 아기 앞에서는 그 때까지 본 적도 없는 일면이 볼 수 있어 아주 신기했다. 먼저 말끝마다 하는 말이 “유아어”였다. 고등학생 때는 공산주의의 우월성에 관해서 논의하던 그 친구가 “찌찌”, “붕붕”, “맘마”, “뽕뽕”, “맨매” 등 유아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한 살 동생을 “어부바”하면서 두 살 아이에게 “까까”를 먹인 후 “치카치카”시키고 오줌을 누였다. 그것이 끝나면 분유를 떼지 얼마 안 된 동생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보고, 그 친구가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보였다. 필자는 능숙하게 유아어를 “구사”하면서 육아를 하는 동갑내기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모종의 패배감을 느꼈다. 필자도 칭얼거리는 동생에게 “엄마 손은 약손”, “도리도리 까꿍” “메롱메롱”등을 하려고 했는데, 왠지 그 친구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의 “육아 수행”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 그 날은 모든 일을 잘하는 친구를 보고 “패배감”을 느꼈는데, 앞으로 뭔가 하나만 잘 할 수 있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で学ぶ日本^㉕観光実務

空港から都心へ^①初対面の挨拶と注意事項

① 테스트 중, 테스트 중, 지금 마이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② 뒷좌석에 계시는 남성분은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곤니치와, 안녕하십니까? 우선 H 여행사를 대신해서 일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2 박 3 일간 여러분께서 일본을 여행하시는 동안 안내를 맡게 된 가이드 다카다 나오시입니다. 기억하기가 어려우시면 “다 갔다”라고 기억하시면 합니다. ③ 무엇이든지 용무가 있으시면 여행인솔자인 김 동명 씨, 또는 저를 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④ 미흡한 정도 많습디다만 여행중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거리낌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번 여행 ⑤ 스케줄은 좀 빡빡합니다만, 취지를 살리도록, 또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으로의 스케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는 현재 나리타공항을 출발하여 동경 중심부 신주쿠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⑥ 좌석벨트를 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상황으로는 호텔에 5 시쯤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교통상황에 따라서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⑦ 그 경우에는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여행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버스를 내리실 때에는 귀중품을 휴대하시고, 특히 여권과 지갑을 ⑧ 재차 확인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화폐와 신용카드에 관해서 인데요, 일본의 지폐는 1000 엔, 5000 엔, 그리고 10000 엔의 3 가지가 있습니다.

⑨ 지폐의 액수와 색깔을 잘 확인한 다음 사용하십시오. ⑩ 변동환율제라서 매일 약간씩 환율을 시세가 다릅니다.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000 엔이 약 10 만원, 10000 원은 약 1000 엔입니다. 한국 원은 호텔 안의 은행만에서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라면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교통 질서에 관해서입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는 좌측통행, 사람은 우측통행입니다. 버스를 타실 때, 혹은 길을 건너실 때, 아무쪼록

주의하십시오.

다섯번째는 선택여행에^① 관해서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본을 대표할 만한 온천지인 하코네온천에 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실 경우에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단체로 참가하시면 각종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향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예약하신 후는 변경, 혹은 환불은 안되므로^③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아까 공항에서 나눠 드린^④ 벤티를 금방 알 수 있게 옷이나 모자에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안내서에는^⑤ 일정표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사항이 적혀 있으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여행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유시간에는 택시, 지하철, 전철 등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1 킬로이내가 410 엔이지만, 시간과 거리의 병산제이며^⑥ 밤 10 시 이후는 20% 할증요금이 추가됩니다. 빈차인 경우에는 한자로 “空車” (“공”은 빌 공자)라는 표시가 있고,^⑦ 또 택시문은 운전기사가 리모콘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직접 열고 닫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하철은 동경시내에 14 노선이 있고, 또 JR 이라는 전철, 그리고 각종 민간전철^⑧도 있습니다. 모두 정확한 출발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자정 12 시이후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또 전철은 다른 색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므로 신주쿠역과 같은 큰 역에서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의 역 이름을 한자나 로마자로 확인하신 후 매표기에서 표를 구입하십시오. 타실 때에는 승강장과 전철사이가 벌어진 곳이 있으므로,^⑨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노선이 너무 복잡해서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길가에서 담배꽂초를 버리시면^⑩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空港から都心へ②車窓の説明－ホテル到着前のご案内

자, 지금 여러분이 타신 버스는 수도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논이

보이지요? 논이라고 하면 아까 자기소개드렸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카다”입니다. 일본이름으로 “다”는 “밭전” 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에도시대까지 서민들은 성을 갖지 않았고, 19세기후반이 되면서 법률상 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농민인구가 80%이상을 차지했던 그 당시, 자기 집이 위치한 장소에 관련되는 성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 성인 “다카”는 “높은”, “다”는 “논”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이 그 당시 높은 곳에 있는 논에서 일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전형적인 “요시다”는 “좋은 논”, “다나카”는 “논의 중심”, “후쿠다”는 “행복한 논” 등 “논’자가 들어가는 성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유의 성이 285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얼마정도 있을지 추측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그마치 20만 가지 이상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버스는 드디어 동경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

우리 버스는 약 10분후에 H호텔에 도착하겠습니다. 동경 중심부인 신주쿠 지역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변화가까지는 도보로 약 10분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스케줄에 관해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도착하시면 체크인을 하신 후, 방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저녁식사는 오후 5시 45분에 1층 로비에 모여주십시오. 저녁식사는 양식이며, “오르되브르” 즉 전채요리와 식전주가 나오면 김 단장님께서 건배선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후는 자유시간입니다.

객실에 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숙하실 객실은 3층과 5층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3층 위는 4층이 없고,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는 “사” 즉 죽음과 통한다고 해서 꺼리는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길흉을 따져서 이러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관해서도 유의하실 사항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키는 카드타입입니다. 문을 열면 왼쪽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가늘고 긴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카드를 삽입하시고 불을 켜주세요. 방의 문은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으므로, 카드를 방에 두고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또 실내에 계실 때는 반드시 문 고리를 안으로 걸어 주십시오. 또

외출하실 경우는 카드를 프런트에 맡기십시오. 다음은 객실 설비에 관해서입니다.

객실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맥주나 음료수^⑪를 드신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 프런트에서 각자 정산해 주십시오. 뜨거운 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객실내에 전기포트가 있으므로 수도물을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전원에 관해서는 한국의 헤어드라이거나 면도기^⑫ 등 전자제품을 이용하실 경우도 호텔내에서는 그 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전화 사용하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객실에서 객실로 걸 때는 먼저 “우물 정자^⑬”를 누르신 후 상대방의 방번호를 누르십시오. 여러분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7 시에 모닝콜을 부탁해 두겠습니다. 아침식사는 6 시부터 8 시까지 1 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각자 드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키와 함께 봉투에 들어있는 밀 쿠폰을 지참해 주십시오. 아침식사는 부페스타일입니다.

식사가 끝나시면 9 시부터 동경시내관광을 나갑니다. 현재는 비가 올것 같은 날씨인데, 일기예보^⑭에 의하면 내일은 흐리거나 곳에 따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등받이와 발 받침대를 제자리로 해 주십시오. 또 ⑮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세요. ⑰ 번번이 죄송한데요, 꺼내신 짐들을 인도에 그대로 놓으시면 통행인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방에서 휴식하신 후 5 시 45 분까지 아래층 로비로 모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翌朝のご案内—東京観光（皇居/浅草/ショッピング）

여러분, “오하요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우선 버스 안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더우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사분께 온도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여권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⑱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관광코스에 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컸던 성곽이기도 하고 현재는 일본 천황이 거주하는 황궁앞 광장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는 동경을 대표할 만한 절이며 전통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아사쿠사지구의 천초사 (浅草寺) 로 갑니다. 거기서 점심을 드신 후, 스미다강

유람선을 다시고 일본 최첨단의 자동차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매립지 오다이바에 갑니다. 유람선 갑판에서 동경만의 경치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다이바에서는 먼저 두발보행 로봇을 견학할 수 있는 일본과학미래관을 견학한 후 미래형 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는 토요타 자동차의 전시장 “메가 웹”과 그곳에 인접한 아울렛 “팔렛타운”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약간 빠듯합니다만 여러분께서 동경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등 여러 모습을 보다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 이 부근은 교통이 잘 소통되고 있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체가 예상됩니다. 서두르게 해서 죄송하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목적지인 황궁 앞 광장에는 9 시경에 도착하겠습니다.

.....

여러분께서는 저쪽의 초고층 빌딩을 보고 계십니다. 1991년에 완성된 이 빌딩은 동경도의 행정기관인 동경도청입니다. 높이 243 미터이며, 지상 203 미터에는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고, 전망대에 서면 눈 앞에 펼쳐진 동경의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멀리 후지산까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밤 10 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무료일 뿐 아니라, 호텔에서 10 분거리이기도 하니까, 동경의 야경을 보러 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교통뉴스에 따르면 지금 이 도로는 1 킬로미터 정도 정체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일본에 정치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원편을 보십시오. 국회의사당입니다. 일본의 국회는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로, 권력이 있더라도 해산할 가능성이 있는 “중의원”과 임기가 길며 해산할 가능성은 없지만 의결 우선권이 없는 “참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일본 수상은 한국의 대통령과 크게 다르며, 후보자들이 일대일로 대결하여 국민들이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고 여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상이 바뀌더라도 정계가 크게 바뀌어지지는 않아, 수상이 누가되건 국민생활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빌딩들은 정부의 주요부처가 모여 있는 가스미가세키 (霞關) 지역으로, 서울이라면 세종로를 연상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해자와 돌담이 보이시죠. 이곳이 에도성, 즉 황궁입니다. 여기서 잠깐 동경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오타도칸(太田道灌)이라는 무신이 에도성을 축성했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때부터 일본동부지역의 중심이 되었는데, 17세기에 들어와 도쿠가와 장군이 막부, 즉 무신정권을 배치하면서 부터, 크게 발전했습니다. 황궁은 현대적인 고층빌딩과 잘 조화되어 지금도 도쿠가와 장군 300년의 영화로웠던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황궁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때는 귀중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집합시간은 10시, 집합장소는 주차장입니다. 버스 색깔은 노란색, 차번호는 2734입니다.

.....

여러분, 전면에 높은 타워가 보이시죠? 이 타워는 2012년에 완성된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하는데 동경 동부지역 어디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현위치를 가능하는 기준이 됩니다. 높이가 634미터이며, 세계에서 두번 째로 높은 건축물입니다. 전파탑으로서 사용될 스카이트리는 이제 명실공히 동경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타워 밑을 흐르는 강이 스미다강입니다. 서울 한가운데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지만, 동경 한가운데에는 에도가와강, 아라카와강, 스미다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모두 동경만 즉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지만, 특히 이 스미다강은 봄에는 벚꽃명소로서, 여름은 불꽃대회의 명소로서도 유명합니다.

.....

여행에서 쇼핑은 빼놓을 수 없으시죠? 그럼 쇼핑시 한국분들이 자주 당황하시는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세에 관해서입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품가격에 8%의 소비세가 추가된 요금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슈퍼나 편의점에서는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계산시 착각하는 일입니다. 일본엔을 한국원으로 계산할 경우 자릿수를 하나 틀리게 계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충으로 하기보다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입니다. 일본에서 안내하는 가이드들 중에는 국가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관광객을 정식 면세점이 아닌 면세점으로 안내하여 소개료를 받는, 소위 ‘뒷돈을 챙기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면세점이라고 써있는 가게라도 무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바로 나오셔서 정식면세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게의 판매원들에게 물어보셔도 한 편이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또, 면세점이외에도 가게에서는 가격인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하면 가전판매점이나 약국체인점에서는 적립카드를 받으시면 그 날에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소 그러한 저렴한 점포를 잘 알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쇼핑에 열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출발시간은 5 시, 집합장소는 주차장입니다. 이상 쇼핑에 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成田空港到着前のご案内

손님 여러분, 우리 버스는 약 10 분 후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귀국시에 필요한 각종 수속에 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여권은 휴대하고 계십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 갖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탑승수속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 여권이 필요합니다. 탑승수속을 하실 때에는 여행가방 등 큰 짐은 카운터에서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탑승하시기 전에 라이터나 칼, 그리고 음료수 등 100 밀리 이상의 액체는 휴대할 수 없으므로 맡기실 짐에 넣으셔야 합니다. 저는 탑승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타실 비행기는 일본항공 JL 5207 입니다. “JL”이란 “JAPAN AIRLINE”의 머리글자입니다. 행선지는 인천, 출발예정시간은 정각 17 시, 즉 오후 5 시입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여행사를 대표하여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H 여행사 단체여행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인생에 단 한번일지 모르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며, 이러한 마음가짐은 모든 가이드가 명심해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일본에 오신 이 기회를 기억해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⑤여행이
결실있는 여행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여러분의 협력으로 여행을
무사히 마칠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손님 여러분, “사요나라”, 안녕히 가십시오.